

대한치과의사학회지

大韓齒科醫史學會誌

The JOURNAL of the Korean Academy
of the History of DENTISTRY



1984

제5권 제1호 · 통권 5호 · 1960년 10월 9일 창립

대한치과의사학회

대한치과의사학회지

大韓齒科醫史學會誌

The JOURNAL of the Korean Academy
of the History of DENTISTRY

제5권 제1호

〈1960년 창간〉

1984

대한치과의사학회

대한치과의사학회지

제 5 권 제 1 호 통권 5 호

1984년 12월 발행

목 차

원 저

세종의 의약 진흥 정책	이 덕 일 (7)
조선조 태조 및 태종의 의약 진흥 정책 고찰	김 정 군 (11)
근세조선 치과의학의 배경 고찰	김 관 홍 · 김 정 군 (13)
고려시대 치과의학사 연구	이 한 수 (17)
룩소르의 역사적 산책	김 규 문 (49)
우리나라 치과 출판에 관한 연구	이 병 태 (51)
근세조선 초기 치약에 관한 고찰	박 승 오 (65)
치과계 단체 활동 (2)	신 재 의 (67)
와전 귀면무늬의 치아에 대하여	배 광 식 (77)

기 타

권두언	이동섭 · 이덕일 · 김정균 · 이병태 (6)
표지의 설명	이 한 수 (78)
임원 명단	(78)
편집 후기	박 승 오 (78)

The Journal of the Korean Academy of the History of Dentistry

Vol. 5 No. 1 Dec. 1984

Contents

ORIGINAL ARTICLES

- King Sejong's(세종·世宗) Medical Promotion Policy.....Lee, Deok-Il (7)
Study on Medical Promotion Policy of the King Taejo(태조·太祖)
and the King Taejong (태종·太宗) in the Yi-Dynasty (조선조·이조·朝鮮朝·李朝)
.....Kim, Jeong Gyun (11)
Study on the Dental Background in the Early Yi-Dynasty(조선조·이조·朝鮮朝·李朝)
.....Kim, Gwan-Hung & Kim, Jeong-Gyun (13)
Study on Dental History in Goryeo Era(고려시대·高麗時代)....Rhee, Han-Soo (17)
Historical Promenade for LusorKim, Gyoo-Mun (49)
Study on the Dental Publication in Korea.....Lee, Byeong-Tae (51)
Study on Dentifrice in the Early Years of the Yi-Dynasty(조선조·이조·朝鮮朝·李朝)
.....Park, Sung-Oh (65)
Group Activity of Korean Dental Association (2).....Shin, Jae-Eui (97)
Pictures of the Teeth Shown in the Tiles(와전·瓦塼) of
Ancient Korea.....Bae, Guang-Shick (77)

OTHERS

- Preface.....Lee, Dong-Seop/Lee, Deok-Il
Kim, Jeong-Gyun/Lee, Byeong-Tae.....(6)

卷頭言

醫史學 研究者의 養成

終身名譽會長 李 東 燮

최근의 해외 치과의사학계는 전에 없던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과 중국학계에서 계속 우수한 논문이 발표되는 사실을 볼 때에, 과연 우리는 이래로만 있어 좋을까 하는 우려마저 숨길 길이 없습니다.

본인은 이제나마 치과의사학 연구자의 양성과 그 연구의 진흥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금후 적지 않은 문제가 있을 것을 지적코자 합니다. 임상과 직결되는 연구만을 여러 이유를 들어 합리화 내지는 구실로 삼으려는 우리 치과계의 흐름은 이제 크게 지양되어야 합니다.

치과의사에게도 국적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 나라 치과의학사조차 알려고 하지 않는 치과의사가 배출되어서는 안 될 터입니다. 우리 치과계 지도층의 깊은 자성이 요구됩니다.

이 학회지는 제한된 소수 회원들의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곧 우리 전체의 얼굴이요, 모습인 점을 자각해야 합니다. 힘든 여건 속에서도 그래도 자신의 역사를 알고자 힘쓴, 여러분의 이번 호에 발표된 연구에 경의를 표합니다.

歷史는 愛情어린 눈으로

終身名譽會長 李 德 一

본 회지에 대한 치과의사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을 기뻐하면서, 이 방면의 연구 또한 활발함을 마음 든든히 여기는 바입니다.

치과 역사 중의 어떤 부분은 지금 당장 연구에 착수되지 않고서는 안 될 부분도 있고, 또 어느 역사의 부분은 우선 문제를 제기해 놓고 두고두고 고찰되어야 할 것도 있습니다만, 과연 그러한 것들이 무엇이나 하는 점만이라도 인식된 것을 본인은 기뻐하는 바입니다.

본지를 통해서 그러한 문제점 내지는 과제들을 우리 전체 치과의사가 인식하는 일이야말로 뜻있는 일일 뿐더러, 이것은 곧 자신의 과거와 앞날을 성찰하는 바른 길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날의 역사 뿐 아니라, 현재는 물론이고 또 미래의 그것에 대해서까지도 깊은 사랑과 책임을 느끼려는 능동적이고도 파사로운 마음가짐을 품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역사는 날카로우면서도 어디까지나 깊은 애정서린 눈으로 보고 느끼고 또 논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역사 연구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齒科 醫學史의 重要性

會 長 金 正 均

요즈음 치과의학이나 의학이 사람을 치료하는 인술이라기 보다 돈을 벌기 위한 수단 및 사회적 지위를 얻기 위한 단순 직업으로 변해 가고 있습니다. 각 대학에서도 기초과목보다는 임상과목에 더 치중하여 치료를 위한 방법만 가르키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진전한 사회를 이루는 전문직업인은 현 자기위치를 확고히 하기 위하여 오늘의 자기가 있기까지의 과거를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치과의사는 단순한 치의학 발달사가 아니고 옛 치과의사들이 걸어온 발자취이며 또 한 시대적 산물인 것입니다.

모든 분야가 다 마찬가지이지만 치의학도 너무 세분화 되어 갑니다. 그래서 치의학 전체의 흐름을 한데 묶어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과거의 연구가 아니라 현재를 위한 연구인 것입니다.

대부분의 치과의사들이 관심밖인 치의학사에 몇몇 회원들이 꾸준히 연구해 주셔서 해마다 학회지를 발간하게 된것은 매우 뜻있고 기쁜일로 여겨집니다.

호르는 물

副會長 李 丙 台

치과의학의 각 분야에서 가장 뒷전, 눈길에 띄이지도 않으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밖에 있는 치과 역사학에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이 책을 내게 되었다. 1960년에 창간하여, 1호·2호·3호는 프린트물로 제작되었다가 지나간 잠을 자더니 1983년에 4호로써 제법 책답게 나왔다. 이번에는 원저와 연구논문이 붓물터지듯 들어 차 책은 꽤 중량감 있게 되는 성 싶다.

역사는 인위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자연스럽게 수집 정리될 때 그 진가는 더 있을 것이다. 보다 많은 인사가 보다 많은 것을 발표하도록 하였으면 하는 의욕을 감출 수가 없다.

世宗의 醫藥振興政策

李 德

서 문

세종의 자주적 의약진흥책은, 근세 조선 치과의학 발달을 이해함에 있어 필요한 기초적인 것이다. 사료되기에, 이에 관한 자료를 종합 고찰하였다. 물론 이 분야의 연구는 보다 많은 자료의 수집을 필요로 하나, 일단은 우선 그 윤곽을 살피기로 하였다. 1984년 현재, 치과 관계 문헌 중에는 아직도 이 방면의 연구는 없는가 싶다. 제현의 많은 비판을 바란다.

본 문

세종(世宗 1419~1450)은 일찍이 집현전(集賢殿)을 설치하고 민족 문화 건설의 일환으로서 의약 부문에 있어서도 새로운 많은 진흥 시책을 추진하였다.

세종은 세종 2년인 1420년에 집현전(集賢殿)을 궁중에 설치하고 왕실의 교육과 학술의 연구 기관으로 삼았다. 이곳에서는 학자를 우대하여 고전의 연구와 수집, 그리고 왕의 정치 자문에 응하게 함으로써 왕권의 강화와 학문 발전에 큰 계기를 이루었다.

이 집현전은 고려의 수문전(修文殿)·보문각(寶文閣)을 본따서 만든 것으로, 대제학(大提學)이 그 책임자이며 10~20명의 학사(學士)가 전임 연구관이 되었다. 그런데 집현전은 세조(世祖) 때에 폐지되었고, 성종 때에는 홍문관(弘文館)이라 하여 다시 신설되었으며, 또 정조(正祖) 때에는 규장각(奎章閣)이라 개칭되었다.

첫째, 세종은 향약 부문에 있어서 많은 진흥 시책을 추진했다. 그 시책은 크게 네가지를 들 수 있다.

하나는 향약의 연구 개발과 그 관리 그리고 감별에 대한 연구 진흥의 시책이고, 또 하나는 국내 각처에서 생산되는 향약의 실태 조사 사업이며, 이어 향약의 질적 향상과 생산량의 증대를 위한 시책의 일환으로서의 향약 채취 월령(鄕藥採取月令)의 간행과, 의학 교육의 진흥과 그 지식의 보급을 위한 시책으로서의 향약집성

방(鄕藥集成方)의 간행이다.

세종은 세종 14년부터는 각 도(道)의 주와 군에서 생산되는 향약들을 미리 정한 일정한 분량씩을 중앙의 의료기관인 제생원에 납입시키는 제도를 마련했고, 또 향약의 폭넓은 연구와 개발을 목적으로 그때까지는 널리 알려져 있지 않던 함길도(咸吉道·咸鏡道), 경성(鏡城) 이북 지방의 것을 알기 위해서 최초로 의학교유(醫學敎諭) 1명을 그곳으로 파견했으며, 향약의 생산량 증대와 질적 향상을 목적으로 그것을 지도 감독하는 제도를 새로 마련했다. 즉 헌사(憲司)로 하여금 향약 생산에 관한 업무를 매월계(每月季)에 점검케 하고, 또 각 도의 감사에게는 향약의 채취와 관리를 규정대로 준수할 뿐 아니라 그것을 중앙의 제생원으로 납입할 때에는 그 책임을 확실히 하기 위해 채취관의 관명과 이름과 채취한 연월일을 명기하도록 명했다.

그리고 당약(唐藥) 대신에 향약의 사용을 권장하기 위해 당약과 향약의 효능을 비교해서 그것이 동일할 때에는 향약을 사용하도록 했고, 향약의 약성(藥性)을 감별하기 위해서는 그 방면의 지식이 있지 않고서는 아니되므로, 황자후(黃子厚)·김을해(金乙亥)·노중례(盧仲禮)·박연(朴堧) 등을 중국에 파견해서 연구케 했고, 세종 5년인 1423년부터는 명(明)에 사절을 파견할 때마다 늘 향약으로서는 없는 당약을 구입하도록 했거니와, 세종 11년인 1429년부터는 향약을 판매하는 국영(國營) 생약포(生藥舖)에서 직접 명(明)에 가서 당약을 구입해 오도록 그 제도를 변경했으며, 또 세종 12년인 1430년에는 향약과 당약의 비교에서 자세히 알 수 없는 것은 명(明)에 가서 자문을 얻도록 했다.

한편 세종은 세종 6년인 1424년에, 집현전의 대제학인 변계량(卞季良)에게 각도(各道) 각 읍의 실태를 자세히 알기 위해 그들 각처의 연혁·지세·풍속·호구·토산품 등등을 조사하여 세종지리지(世宗地理志)를 편찬케 하였는데, 거기에는 각 도에서 산출되어 중앙으로 공납하는 향약도 기재하고 아울러 그 도내의 목·부·군·현에서 각기 산출되는 향약도 기재케 하여, 일목요연하

게 국내의 모든 향약의 분포 실태도 알게 하였다. 그리하여 세종은 이것을 통해 향약의 연구 개발 시책의 기본 자료를 얻었고, 또 의료 관계자들은 이것을 참고하여 향약의 연구와 그에 관한 지식의 교환은 물론 지역 상호 간의 향약 교류에도 크게 참고가 되어 더욱 의학 부문이 발달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뿐만 아니라 세종은 또 세종 13년인 1431년에는 집현전의 유효통(兪孝通)·노중례(盧重禮)·박윤덕(朴允德)에 의해 편찬된 향약채취월령(鄕藥採取月令)을 간행하였다.

그런데 이 책의 원본은 현존하지 않고, 그 사본만이 있다. 현재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에 소장된 사본은 그 연대가 확실치 않으나, 일본인이 1722년에 원본 중의 필요한 부분만을 필사한 것이다.

사본에 따르면, 이 책은 향약 160종의 적합한 채취 시기를 1년 12개월 동안 달달이 구분하여 기록한 것이다. 각 향약명 밑에 그 산출지에서 통용되는 향명(鄕名)까지 참고로 기록하였고, 매우 중요하리라 보여지는 각 향약의 약미(藥味)·약성(藥性) 또는 채취한 후의 관리법에 관해서는 몇몇 종에 한해서 간단히 기록하였다. 해서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보면, 이 사본은 그 원본의 완전한 사본은 아닌 것이 확실시 된다.

왜냐하면, 본서의 윤준(尹准)의 발문에는, 세종이 명(明)에 사신들이 파견할 때에는 국의(國醫)들을 수행시켜 그곳의 예부(禮部)를 거쳐 대의원(大醫院)에 질의하여 자세히 알지 못하는 점은 확실히 알아 가지고서, 그 후에 전기한 편자들을 시켜서 향약 수백종을 선택하여 거기에는 향명(鄕名)을 부기하고, 이어 약미와 약성과 채취시기의 빠르고 늦은 것과, 채취 후의 관리법 등등을 여러 본초학 서적들을 참고해서 기록하고, 이 책은 간행하는 것이라 기록했기 때문이다.

세종은 이어 세종 15년인 1433년에 향약집성방(鄕藥集成方)을 간행하였다. 이 의서는 앞서 이태조가 명하여 정종(定宗) 원년인 1399년에 간행된 향약제생집성방(鄕藥濟生集成方)을 기본으로 삼아, 다시 거기에 수록되지 않았던 것들을 추가하며, 한편으로는 당시의 여러 의서들을 참고로 하여 편찬한 것으로 그 편찬에는 집현전의 유효통(兪孝通)·노중례(盧重禮)·박윤덕(朴允德)이 참여했다. 이들은 전기한 향약채취월령을 완성하고, 이어 이 책을 다시 또 편찬한 것이다. 해서 이것은 향약제생집성방보다도 그 내용이 더 충실한 것이며, 향약에 관해서는 이 책으로 일단은 그 모든 것이 정리된 것이라 볼 수 있다.

본서는 85권으로, 그 후 성종(成宗) 9년인 1478년에 복인본(複印本)이 나왔고, 또 인조(仁祖) 11년인 1633년에는 다시 이것이 작은 활자로 인쇄되어 중간(重刊)되었다. 이 점을 보더라도 본서는 향약에 관한 대전서(大全書)임을 능히 알 수 있다.

둘째, 세종은 당시까지 중국으로부터 전래된 모든 의학 지식을 다시 독자적으로 연구 발전시키기 위한 시책을 강구했다.

우리 의학을 발달시키기 위해서는 재래의 그것을 더 연구할 것은 물론이지만, 동시에 중국으로부터 전래된 당시까지의 모든 지식을 흡수 동화시켜 그것을 더욱 발달시키기 위해서는 당연히 중국의 모든 의서를 일단 종합 정리할 필요가 있었다.

해서 세종은 한(漢)과 당(唐)을 위시한 송(宋)·원(元)·명(明)의 153종의 의서를 총정리하여 세종 27년인 1445년에 365권의 의방류취(醫方類聚)를 편찬시켰다. 그후 이것은 다시 문종(文宗)·세조(世祖) 때에 더 검토했고, 성종(成宗) 8년인 1477년에 266권(264책)으로 되어 비로소 30절(帙)이 간행되었다.

의방류취는 그 책명 그대로 153종의 중국 의서를 분류 정리한 당시의 한방 의학적인 모든 지식을 집대성한 백과사전이다.

그 편집 내용은 우선 모든 질환을 91문(門)으로 분류했고 각 문에는 그 문에 해당되는 병론(病論)을 기재했으며, 이어 약방(藥方)을 그 인용 서적의 연대순으로 기록했으며, 또 자세한 주해를 달았다. 인용 의서의 원문을 질서있게 그대로 기재한 점은 놀랄만 하다.

다만 분류를 분과별로 하지 않고 병증(病症)을 중심으로 분류 기록한 곳과 신체 부위를 중심으로 분류 기록한 곳이 있어, 각 분과별인 계통적 시식을 밝히기는 힘들게 되어 있다.

본서는 처음에 30절 밖에는 간행되지 못했기에 우리 국내에서는 그 원본이 모두 망실되었다. 그런데 임진왜란 때에 일본으로 가있던 원본이 있어, 일본에서 1852년에 중간되었으며, 그 원본은 현재 일본 궁내청 서물부에 소장되어 있다.

그 원본은 그것이 일본으로 갈 때에, 이미 12책(冊)이 빠진 것이었으나, 그후 일본인이 결본이 된 12책의 부분을 보완하여 266권 264책으로 그 수(數)를 맞추어 놓았다.

일본에서 중간된 이 책은, 고종 13년인 1876년 조일수호조약(朝日修好條約) 당시에 고종이 예물로서, 일본측

에게 주었던 일이 있고, 현재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에 소장된 본서의 일부분(一部分)도, 역시 일본에서 중간된 것이다.

세제, 세종은 형벌 개혁의 일환으로서 법의학적(法醫學的)인 재판 제도를 실시하였다. 곧 이것이 기록상으로는 우리나라 형정(刑政)에 있어서의 최초가 된다.

검시(檢屍)에 있어서 법의학적인 조사가 시작된 때는 세종 원년 때부터이고, 과거(科擧) 응시 과목에 원(元)의 법의학 전문 서적인 무원록(無冤錄)이 포함된 때는 세종 12년(1430년)이며, 세종 14년(1432년)에 이르러서는 검사가 있을 경우는 반드시 중의 관이(中外官吏)가 임검하도록 하였거니와, 또 1438년에는 전기한 무원록에 음주(音註)를 가한 신주무원록(新註無冤錄)을 간행하였으며, 1439년에는 검시하는 서식(書式)을 정하여 판포하며, 또 사체의 검사 방법을 밝혀, 문제의 사체가 있을 경우는 그 검시 결과 기록을 검토한 뒤에 형의 판결을 내리도록 하였다.

그후 1442, 에는 검시하는 방법을 무원록에 기록된 그대로 하게 하였거니와, 또 1446년에는 일정한 사체검안서(屍體檢案書)를 정하였다. 이러한 세종의 시책은 우리나라 형사 법제상 획기적인 것이거니와, 법의학의 응용으로써 인명의 존중 사상을 앙양시킨 점은 높이 평가되어야 한다.

무원록(無冤錄)은 원나라 왕여(王與)가 1308년(고려 충렬왕 34년, 중국 무종 지대 원년)에 송대의 세원록(洗冤錄)과 평원록(平冤錄)과 결안정식(結案程式)을 참조해서 편저한 검시에 관한 전문서적으로서, 그 원본은 없다. 본서는 그 후 1384년에 중간(重刊)된 바 있다.

신주 무원록(新註無冤錄)은 상하 2권으로서 세종 22년 11월인 1438년에 간행되었다. 본서는 최치운(崔致雲)·이세형(李世衡)·변효문(卞孝文) 그리고 김황(金滉) 등이 무원록에 주해를 가하며 음과 훈을 붙였고, 그 서문은 유의손(柳義孫)이 썼다. 그리고 다시 1440 및 1447년에 중간되었다.

네제, 세종은 의사제도를 더욱 확충 정비하며 의학의 발달과 연구를 권장하는 여러 정책을 강구하였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의료혜택의 균등 시책을 추진하였다.

세종은 의사를 등용할 적에 방서(方書)의 공부만을 시험하는 이외에, 임상적인 기술까지 시험하게 하였을 뿐 아니라(세종 3년, 1421년), 궁정 내에서도 의서를 많이 읽게 하였고(1422년), 의생(醫生)의 연구를 권장시키기 위해 전의감(典醫監), 혜민국(惠民局), 제생원

(濟生院) 동서활인원(東西活人院)에는 의학제조(醫學提調)를 따로 두었고(1423년), 의녀(醫女) 중에서 우수한 자 3,4명을 선발하여 그들을 더 교육시켜서 다른 의녀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훈도관(訓導官)으로 양성하는 한편 지방 관비(官婢) 중의 동녀를 선발하여, 중앙에서 그들에게 침구술과 약의법(藥餌法)을 교육시켜 다시 지방으로 파송하였고 그들의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지방에서 선발하여 중앙으로 보내기 전에 우선 지방관서에서는 그들에게 천자문(千字文), 효경(孝經), 정속편(正俗篇) 등을 교육시키도록 하는 기초교육에까지 힘을 썼다(1423년).

그리고 다시 세종은 전의감 혜민국 제생원에 각각 의생방(醫生房·醫生研修室)을 설치하여 재약(劑藥)의 실습과 의서 공부를 시켜서 의술의 실력을 얻은 후에 과거에 응시케 하였으며(1425), 지방의 의학원(醫學院) 생도 중에서 우수한 자를 선발하여 중앙의 전의감과 혜민국에 배치시켰다(1427). 이러한 일련의 시책은 일찌기 볼 수 없던 충실한 의학 교육의 충실화라고 평가되어야 한다. 의녀에 대해서도 그 실력을 높이기 위해 매월 산서(産書·産婦人科學)까지 공부시킨 점도 일찌기 그 예가 없던 시책이다(1430년).

또한 세종은 의사들의 실력을 더 높이기 위해, 의학에 능통한 유의(儒醫)들을 혜민국과 제생원에서 교육시켜 더욱 그 기술을 연마하게 하였고(1434년), 또 의녀들의 증원을 위한 시책으로 의녀는 12~30세까지의 건국의 비자(婢子)와 여기(女妓)의 소생 그리고 비자의 소생 중에서 선발하도록 그 범위를 확대시켰다. 곧 여자 환자의 치료를 배려한 것으로서, 여성에 대한 그 사회적인 존중사상을 엿보이게 하는 것이기도 하다(1434년). 세종은 이러한 의녀에 대한 시책으로서, 제생원의 의녀들이 그 기술이 향상되어 진료를 잘하며 침구술도 잘하는 점을 알고, 1년에 두번씩 미곡(米穀)을 여기(女妓)의 경우와 같이 주도록 했다(1434년). 당시는 의녀의 신분이 여기보다 앞섰던 것이다.

다시 세종은 전기한 삼의사(三醫司), 즉 전의감과 혜민국과 제생원에 삼품관의원(三品官醫員) 외에도 유신(儒臣)의 교수관(教授官)을 배치하여 그 교육의 향상을 도모했으며(1440년), 또 관제(官制)를 개혁하여 내약방(內藥房)을 내의원(內醫院)이라 개칭하여 그 직무 내용도 확충시켰다(1443년).

그리고 계속 세종은, 삼의사(三醫司)에서의 의생 교육을 더욱 충실히 하기 위해, 그 교수진을 강화시켰다(1446년). 이러한 세종의 많은 시책은, 그때까지는 그 예를 찾기가 어려운 것으로, 매우 크게 평가되어야 할 점이다.

결론

세종의 자주적인 의약 진흥 정책은, 합리적이며 각 부문에 걸친 광범한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학문과 임상 의술을 함께 진흥시켰고, 중앙과 지방의 의술의 교류를 유의하였을 뿐더러, 인명의 존중 사상을 고취한 점과 의료 혜택의 균등 사상을 크게 진작시킨 점, 특별히 여성에의 의료 혜택까지도 깊이 유의한 사실, 그리고 향약의 전국적인 실행 조사를 실시하므로써 향약에 관한 국민의 이용과 지식을 넓힌 점 등은, 의서의 간행과 더불어 높이 평가될 점이다.

이러한 그의 시책은, 그후 의약 발달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고 사료된다.

참고 문헌

1. 金斗鍾：韓國醫學史(全)，探求社，1975年.
2. 世宗實錄(朝鮮王朝實錄 中에서)，國史編纂委員會，1955~1956年.
3. 李英澤：近世朝鮮의 法醫學의 裁判과 無冤錄에 關한 研究，서울大學校 自然科學 第4집，1956年.
4. 李瑄根 外 4名：國史概要，螢雪出版社，1978年.
5. 金斗鍾：世宗大王的 濟生偉業과 醫藥의 自主的 發展，서울大學校論文集，人文科學論 第5집，1957年.
6. 李丙藏：外 2名：韓國史，震壇學會，乙酉文化社，1978年.

朝鮮朝 太祖 및 太宗의 醫藥振興政策 考察

金正均*

서 문

근세 조선의 치과의학 발달사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초기의 의학 진흥 정책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저자는 이 방면에 관한 자료를 우선 정리하여 그 대요를 밝히기로 하였다.

본 문

조선조의 태조(1392~1398)와 태종(1401~1418)은 건국초기에 의학 진흥에 크게 힘썼다. 태조는 그 원년인 1392년 문·무의 관제를 정하였다. 의학 관계부분의 그것은 고려의 제도를 그대로 답습하였다. 그리고 같은 해에 입관보이법(入官補吏法)을 제정할 때에 문·무·역(譯)·이(吏) 각과와 함께 의과(醫科)를 포함시켰을 뿐만 아니라, 동서대비원(東西大悲院)을 설치하여 환자를 진료케 하였다.

이어 1393년 각도(道)에 의학교수 1명씩을 파송하고 의원을 1개소씩 설치시켜 거기서 의생을 선발하여 고려의 향약혜민경험방(鄉藥惠民經驗方)을 배우게 하였을 뿐 아니라, 의학교수에게는 채약정부(採藥丁夫)를 배속시켜, 향약을 적시(適時)에 채취하도록 지도케 하며, 또 그것으로 환자도 치료케 했다. 그리고 한편 예조(禮曹)에게 명하여 의업에 능통한 자는 선발해서 관직에 등용케 했다. 그리고 중앙에는 병(兵)·율(律)·자(字)·역(譯)·산(算) 등과 함께 의학도 육학(六學)의 하나로 그 연구기관을 설치시켰다.

태조 6년인 1397년에는 중앙에 제생원(濟生院)을 처음으로 설치하여, 향약제생집성방(鄉藥濟生集成方) 30권을 편찬케 하였고, 또 평양부사(平壤府司)의 직제를 개편하면서 의학원(醫學院)을 지방기관으로서 신설하게

도 했다.

다시 1398년에는 조준(趙浚)과 정도전(鄭道傳)에게 명하여 그들이 고시관(考試官)이 되어 명의(明醫) 8명을 선발해서 등용케도 하였다.

이상으로 본 바와 같이, 태조는 건국 초부터 의학 진흥을 위해 특별히 갖가지 시책을 강구하였음을 알 수가 있는데, 태종(太宗) 역시 많은 진흥 시책을 강구하였다.

태종은 태종 3년인 1403년 우정승(右政丞)인 성석린(成石麟)을 사신으로서 명(明)으로 파견할 때에, 명제 성조(成祖)에게 의사를 보내줄 것을 청했으며, 1405년에는 육조(六曹)의 산하 소속 기관으로서 의학 관제의 기관인 전의감(典醫監)·혜민국(惠民局)·동서대비원·제생원·의학·종약색(種藥色) 등을 두었고, 그 다음 해인 1406년에는 제생원에서 의녀(醫女)를 교육시켜게 하는 제도를 처음으로 정했다. 의녀는 사회적 계급이 낮은 노비 출신의 동녀(童女)들에게 간단한 맥경(脈經)과 침구법을 교수시켜 왕족 또는 고급 관리들의 부인들을 치료케 하는 것이 본래의 목적이었다. 그리고 같은 해에 유학(儒學)만을 제외한 의학 등 구학(九學)의 과거 시험은 사품(四品) 이하로 하는 제도를 마련하였다.

또 태종 7년인 1407년에는 제주(濟州)로 의술에 통달한 교수관(教授官)을 보내 채약(採藥)하여 진상하는 업무와 그곳의 의생 교육을 담당케 했으며, 그 다음해에는 태종 자신의 병의 치료가 여의치 않아, 당시에 왕실과 고관들의 진료를 주로 담당하던 전의감(典醫監) 소속 의사들을 증원시키기도 하였고, 또 1412년에는 서울의 춘추관(春秋館)에 소장되었던 고려 때부터 전해져 오는 의서들을 다를 서적과 함께 그것을 내약방(內藥房)으로 이장케 했고, 태종 15년인 1415년에는 의생들이 학습하는 의서를 조사하여 그 내용이 어떠한가를 연구하게 하였다. 또 명에 갔던 사신 윤오진(尹吳眞)이 가져온 침

* 大韓齒科醫史學會會長 · 서울 金正均齒科醫院

구 동인도(鍼灸銅人圖)를 인쇄하여 배포시키기도 하였다. 그리고 그 다음 해부터 과거시험에 있어서는 의학과 유학(儒學)과 자학(字學)·역학(譯學) 등은 예조(禮曹)로써 시취(試取)케 하였다.

뿐만 아니라 태종은 또 1417년, 더욱 의약의 진흥을 위해 명으로 파견하는 사신의 서장관(書狀官)으로서 유순도(庾順道)을 수행시켜서 의학과 복서(卜書)를 연구하게 하며, 또 그곳의 의서와 복서를 쉽게 풀이하여 가져오도록 했다. 특별히 1417년에 태종이 고려시대 때에 발행된 향약구급방(鄕藥救急方)을 경상도 의흥군에서 중간케 한 점은, 의약의 진흥을 위해 노력한 시책의 하나로서 주목된다. 고종은 1418년 자신이 창시한 의녀제도를 제생원의 건의로써 의녀의 수를 증가시키도록 했다. 즉, 의녀는 13세 이하인 자로서 10명을 더 양성해 두도록 하였다. 당시의 의녀 수는 7명이었으나 시험에 합격한 자는 5명으로서 그 수요가 부족하였던 관제로 증원시킨 것이다. 이 사실로 미루어 본다면, 의녀제도는 창시 당시에는 사회적 요구에 적합한 것이었고 일단은 성공한 제도이었음을 알 수가 있다.

저자는 이상 논급한 바와 같은 조선조 태조와 태종의 의약 진흥에 관한 중요 시책만을 살피더라도, 네요 다음과 같은 몇가지 사실을 알 수 있다고 본다.

1) 조선조는 그 건국 시초의 의약 부문 시책을 보더라도 보다 훌륭한 위민 정책(爲民政策)과, 민족의 전통성 및 영속성을 수호하려는 좋은 시책을 강구하였다.

2) 조선조의 초기(1392~1418)에는 의사의 수요가 증대하였다. 다시 말해서, 당시는 의사의 수가 매우 부족

한 사회적 여건 속에 있었던 것 같다.

3) 조선조 초기에는 의사의 질적(質的)향상이 시급히 요구된 사회적 여건 속에 놓였던 것 같다.

4) 국내 의서의 부족은 의학 교육과 의약 지식의 보급에 큰 지장을 준 것 같다.

5) 향약의 연구와 개발 그리고 생산 및 관리에 관한 문제는 아직도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었던 것 같다.

6) 국내 경제력은 매우 어려운 처지에 있었던 것 같다.

7) 국민의 질병 이환률은 상당히 높았던 것 같다.

해서 저자는 이상과 같은 국내적 의약 부문의 갖가지 시련은, 필연적으로 그 후부터 전개되는 조선조의 의약 발달을 촉진시키는 결과를 가져 왔다고 고찰한다.

결 문

저자는 근세 조선의 치과의학 발달사를 연구함에 있어, 기본적인 하나의 과제로서, 태조와 태종의 의약 진흥정책을 논구하고, 그것을 통하여 몇 가지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다.

참 고 문 헌

1. 朝鮮王朝實錄：國史編纂委員會，1955~1956年.
2. 金斗鍾：韓國醫學史(全)，探求社，1975年.
3. 李瑄根·申奭鎬·韓相俊·洪淳稔：國史概要，螢雪出版社，1978年.

近世朝鮮 齒科醫學의 背景 考察

金 官 興* · 金 · 正 均**

서 론

근세 조선의 치과 의학사를 연구함에 있어서, 그 발달의 큰 배경을 이룬 국내외의 전체적 여러 양상을 먼저 고찰함은 필수적인 과제이기에, 저자들은 이에 관한 연구를 시도하였다.

언급할 바도 없이, 의학사의 연구는 보다 넓은 의미의 문화적 배경의 인식 없이는 무의미할 터이다.

본 론

조선은 지방에서 성장한 중간층 출신의 사대부와 무인이 농민들의 지지를 얻어 성립된 나라다. 해서 조선은 보다 부국 강병과 민생의 안정을 꾀하였다.

선조의 역대 왕들은 안으로는 평민들의 사회·정치·경제적인 지위를 개선하려는 제도의 개편과, 밖으로는 국토의 개척과 자주적 외교로써 국가를 발전시켰다.

조선은 평민의 지위를 높이려는 정치적 개혁 과정에서, 판료 제도의 발전이 있었고, 또 중앙(의정부 6조·3사) 거구와 군사(부병제) 제도와 토지(과전법·직전법) 제도의 발달이 있었으며, 선조에는 양·천 2원제였으나 16세기 이후는 양반 문벌의 제국이 형성되었다.

조선은 부국 강병과 민생 안정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실용성을 지닌 문화의 기반이 확대되고, 민족 문화의 건설 의욕이 고조되었으며, 새로운 정치 철학으로서 주자학이 국가의 방향을 제시하였고, 관학파와 사학파의 대립이 전개되었다.

전통 문화의 계승과 그 발전을 위해, 의학을 비롯한 역사·지리·법전·농학 등의 문화를 정리하였으며, 민족 문화의 집대성으로 훈민정음이 창제되었다.

또 무기와 측우기 등 과학 기술에도 많은 발달이 있었으며, 그 문화와 예술도 진취적이며 실용적인 면으로 점차로 발달되었다.

16세기에는 새로운 정치 세력으로 사림이 등장하여 중앙의 훈적 세력과 갈등을 이트켜 몇 차례의 사화(士禍)도 있었으나, 그 세력은 점차 커져 16세기 중엽에는 사림 정권이 성립하였고, 그후 사림 간의 당쟁이 있게 되었다.

사림의 대두는 유교 문화의 성장을 가져왔으며, 더우기 직전제의 소멸에 따른 병작제(並作制)의 유행은 사회와 경제 체제의 파탄을 초래했고, 그것은 국력을 약화시키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즉, 사화와 당쟁으로 국방력이 약화되었을 때에 일본과 여진족이 각각 우리나라를 침범하게 되었다.

왜란과 호란은 도덕과 명문만을 내세우며 공리 공론만을 일삼던 사림 정치가 자초한 것이나, 그러나 양난 이후는 복벌 계획의 추진이나 현실 반성의 기운이 있게 되어, 그것은 곧 17-18세기 문화의 새 기운으로 나타났다.

조선 후기의 산업 경제 구조의 변화는, 제층 분화를 촉진시키는 동시에 신분 이동도 활발하게 하였으며, 그것은 또한 새로운 문화 변동을 가져왔고, 실학은 개화 사상의 바탕으로 되었다. 실학은 치과 의학의 발달은 물론 문화 전반에 걸쳐 매우 커다란 공헌을 하였다.

여기서 근세 조선이라 함은, 1392년 태조의 즉위로부터 철종 14년인 1863년까지의 약 470년 간을 말한다.

근세 조선은 그 건국 초기에는 고려의 의료제도를 많이 답습하였다. 그러나 국정이 점차 안정됨에 따라 새로운 의료 제도의 정비와 의학 진흥 방안의 강구와, 세 의서의 간행 등이 있었다.

* 大韓齒科醫史學會會員 · 光州 第一齒科醫院

** 大韓齒科醫史學會會長 · 서울 金正均齒科醫院

특별히 세종(1419~1450)은, 자주적 민족 문화 건설의 일환으로 향약의 연구를 집대성하였으며, 또 그때까지 전래된 중국 의학 지식을 정리하여 모든 지식을 자주적인 방향으로 발전시키도록 하였다.

그후 선조(宣祖·1568~1607)는, 임진왜란 직후인 1596년 왕명으로 그때까지의 국내의 모든 의서들을 총 정리하여 우리나라 풍토에 적응될 의서 동의보감(東醫寶鑑)을 편찬케 하였다.

이 책은 한의학 고금(古今)의 정수를 정리한 25권에 달하는 당시의 백과 전서로서, 이것이 발간된 후에는 곧 이어 청(淸)과 일본에서도 번역한 근세 조선 의학의 독자적 발달을 보여준 명서(名書)이다.

한편 이미 기원 전부터 발견되었던 남방 해양을 통한 동서 간의 항로가, 특히 Marco Polo(1254~1323)와 Ibn Batuta(1304~1377) 등에 의해 다시 새 항로로서 인식된 이후, 조선은 점차 서구의 새 문물에 접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그들의 새 기술과 사상의 자극과 영향을 받게 되었다.

문헌상 최초의 서구인과의 접촉은, 선조(宣祖) 15년인 1582년에 표착(漂着)한 마리아(馬里伊)가 이었다. 그후 1592년 임진 왜란 때에는 일본군과 함께 종군한 선교사 Cespedes가 있었으나 그러나 조선인과의 접촉은 별로 없었으며, 인조(仁祖) 6년인 1628년 표착한 홀렌드의 Weltevree 외 3명이 있는바, 이들은 당시의 훈련도감(訓練都監)에 속하면서 직접 대포(大砲) 제조 기술을 전수하였기에 실제적인 접촉에 의한 기술의 전래는 이것이 최초가 된다. 그 뒤 효종(孝宗) 4년 1653년에는 역시 홀렌드의 Hamel 일행이 표착하였는데, 이들은 10여년 억류되었다가 탈출하여 자국으로 귀국한 다음, 자신들의 표류기를 써서 조선을 처음으로 서구인에게 소개했다.

이상은 문헌상으로 조사된 비정상적인 상호 접촉이다. 하지만 조선은 그들을 통하여 간접으로나마 발달한 서구 문화를 알게 되었고, 그것을 통한 세계에 대한 그들의 인식의 확대는 곧 세계관의 변화를 갖게 하였다.

조선은 17세기 초, 명에 갔던 사신이 가져온 유럽 지도와 이탈리아인 신부 Mathieu Ricci(利瑪竇·1552~1610)의 천주교와 불교의 차이점을 해설한 천주실의(天主實義)에 의해, 정상적으로는 최초로 서구 문화와 접촉하였다.

그후 인조(仁祖) 때, 명(明)에 갔던 정두원(鄭斗源)은 이탈리아 신부 Johannes Rodriguez(陸若漢)으로부터 천문·역산·지리·천주교 등에 관한 한역서(漢譯書)와 망원경·시계·화포(火砲) 등 서구 문물을 받아 귀국하였다. 또 불모로 청(淸)에 갔던 소현세자(昭顯世子)

는 당시 연경(燕京·北京)에 와있던 Jeam Adam Schall von Bell(湯若望)으로부터 천문·수학 등의 과학서적과 성교정도(聖敎正道) 등 천주교 서적 그리고 지구(地球)·천주상(天主像) 등을 받아 가지고 왔다.

또 이 밖에도 이신명(李頤命)은 중국에서 천주교 서적과 과학 서적을 읽어 서구의 종교와 새로운 과학에 대한 관심을 품게 되었고, 사신의 왕래를 통해서도 많은 서구의 문물들이 전래되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조사 연구로서는, 치과의학이 그러한 문물의 전래를 통해서 직접적 영향을 받은 흔적은 아직 찾을 수가 없다.

저자의 소견으로서는, 어쩌면 이러한 사실은 당시의 의사의 사회적 지위는 알았기에 직접 그러한 서구 문물에 대할 수 있는 기회가 허락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것은 흔히 숭고적이며 수구적인 경향의 일면도 농후하게 간직했던 당시의 의사들의 태도에도 기인되는 것이 아닐까 한다.

또 명(明)의 말기부터 청의 초기에 걸쳐 양국간을 왕래하던 천주 교인들에 의해 소개된, 서구 서적의 한역서(漢譯書) 중에 기록되었던 서양 의설(西洋醫說)과, 역시 한역되었던 우두종법(牛痘種法)은 당시 국내 실학과 인사들에게 점차 소개되었고, 또 철종(哲宗 1850~1863) 때에는 상해와 광둥에서 간행된 서양 의학의 한역서들이 전래되어 큰 주목을 끌었다. 하지만 전술한 바와 같이 그 새로운 지견이 실제적으로 근세 조선 치과의학에는 도입된 흔적이 없다.

서구의 16세기 치과의학은, Leonardo da Vinci(1452~1518)에 의해 치과 해부학이 거의 완벽할만큼 정확히 연구되었고, 치과의학 서적으로서는 이미 그 저자를 알 수 없는 것이긴 하나, 1490년 스위스에서 출판된 것이 있어 그것이 다시 1530년에 독일에서 제 6판으로 나왔고, 순수한 치과의학 전문 의서로서 그 저자명이 명확한 것은 1544년 독일에서 발행되었다. 즉 그것은 Walter Hermann Ryff(1570 사망)의 Zahnarzneybuchlein이다. 그리고 또 치아 해부학도 단행본으로서 이탈리아인 Bartholomeus Eustachius(1575 사망)에 의해 1563년에 출판되었다.

당시 서구에서는 이미 치수강의 존재와 그 생리학적인 의의를 인식했고, 상아(象牙)로 제조한 인공치아를 금선(金線)으로서 결합시켰을 경우에, 그것이 치은에 미치는 그 부작용에 관해서도 연구되고 있었고, 치루(齒癰) 치료는 해당 치아의 발치를 필요로 함을 인식하였으며, 금박(金箔) 충전도 하였다.

그리고 프랑스의 Jacques Haullier(1498~1562)는 최

초로 충치의 원인이 벌레가 아니라는 의심을 표명했다.

보철에 있어서는 전치의 부위만을 상아·수골(獸骨)·하마(河馬) 등으로 조각한 인공치아를, 금선이나 은선으로 인접 치아에 결합하여 장착할 줄 알았다. 그런데 1593년 신성로마제국과 폴란드왕국 접경지에서, 소아의 하악 좌측 제1대구치에 금관을 장착시키고, 그것을 선천적 금니(金齒)의 맹출(萌出)이라 주장한 일도 있는 사실로 보아, 대체적인 당시의 기술은 짐작할 수 있을 까 한다.

청의 의약은 명의 그것을 계승한 것에 지나지 못하며 숭고적 사상과 형식주의로써 그 외관을 미화한 것에 지나지 않았다고 지적할 수 있다. 유교에서는 청대에 이르러 고증학(考證學)이 대두해서 문헌학적 연구 방법이 성행하였다. 해서 의약 분야도 그 영향을 받아 고증파가 나오고, 고전의 비교와 검토가 성행되었다. 하지만 그것은 자구(字句)의 이동(異同)이나 문헌의 양부(良否)를 논한 것에 불과하였고, 실제적 의료에는 별 상관이 없는 주장들이었다.

그렇지만 그러했던 청대의 의사들 사이에도 혁신적인 사상을 지닌 사람이 없지는 않았다. 서양 의약에 착안하여 그것과 중국 의약과의 절충을 시도한 사람도 있었으나, 실증으로써 고전의 오류를 지적한 왕훈신(王勳臣 1768~1831)은 주목되어야 한다.

그는 직접 인체의 내장을 관찰하고, 고전의 기록에 대해 의문을 품었다. 그리고 의림개착(醫林改錯)을 저술하여 고전의 착오를 설명했다. 그러나 그는 실제 치료에 있어서는 혈액을 병원(病源)으로 지적하고 거기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치료는 곧 악혈(惡血)을 구축하는 데에 있다고 역설하며 재래의 약방을 그대로 계승하는 태도로 멈추어, 중국 의학의 전통을 새로운 방향으로 개척하지는 못하였다.

청의 역대 왕조는 왕명으로 각 부문의 책과 전서적인 큰 서적의 편찬을 몇 번이고 했다. 대표적인 의서로서는 어찬의종금감(御纂醫宗金鑑)과 고금도서집성의부전록(古今圖書集成醫部全錄)이 있다.

특히 전자는 청의 의학 전부를 요약한 것으로 90권에 달하며, 1749년에 편찬한 의학 전서이다. 이것은 고종 건륭제(高宗乾隆帝 1736~1795) 이후, 청의 의사들의 필독서(心讀書)이었고, 현재도 그 축소판은 인쇄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책은 사실은 오겸(吳謙)이 여러 의

를 조사하여 그 초록들을 모아 집대성한 것이었다.

청은 그 말기에 예수교 선교사에 의한 영·미·일의 새로운 의약을 받아들여, 영·미 의학의 한역서가 수십(數十) 종에 달하였고, 또 일본의 그것도 한역한 것이 많았다. 해서 그것으로 청의 의약은 양화(洋化)하기 시작했다.

청대의 의약이야말로 변천이 매우 심한 시기이었다. 그것은 주로 기독교 선교사들에 의한 계몽과 과학화(科學化)에의 공헌이기도 하였다.

청대(淸代)에는 그 초기에 의학이 11분과(分科)로 분과되어 구치과(口齒科)가 독립되었다. 그러나 그후 9분과로 분립됨에 따라 인후구치과(咽喉口齒科)가 1분과로 되었다.

1723년부터 12년간 편집된 고금도서집성(古今圖書集成) 중의 의부회고(醫部彙考)는 중국의 의학 문헌을 총괄적으로 기술한 서적이다. 여기에는 구·설·치(口舌齒)에 관한 부문을 색인(索引)으로 해놓았기에, 과거의 문헌을 조사함에 편리하다.

1742년에 오겸(吳謙) 등이 편집한 어찬의종금감(御纂醫宗金鑑)에는 치과질환에의 처방이 상당히 수록되어 있으나, 별로 새로운 내용은 없다.

결 문

저자들은 근세 조선 치과의학 발달에 직접 간접으로 영향을 끼친 것으로 사료되는, 당시 국내의 여러 양상과, 해외 치과의학 발달의 양상을 연구하여, 그 대요를 여기 보고하고, 근세 조선에 있어서의 치과의학 발달을 역사적 사회적 및 의학적으로 논구하는 기초로 삼고자 하였다.

참 고 문 헌

1. 李瑄根：國史概要，螢雪出版社，1978年.
2. 旗田 巍：朝鮮史入門，太平出版社，1975年.
3. 石原 明：醫史學概說，醫學書院，1955年.
4. 金斗鎭：韓國醫學史(全)，探求社，1975年.
5. 川上爲次郎：齒科醫學史，金原商店，1931年.
6. 長尾榮一：醫學史，醫齒藥出版株式會社，1969年.
7. 朝鮮王朝實錄，國史編纂委員會，1955~1956年.

高麗時代 齒科醫學史 研究

李 漢 水*

목 차

I. 서 론

II. 본 론

고려시대 치과의학 개설

1. 고려시대 의설의 개요
2. 불전과 치과의학
3. 불전과 주술료법

A. 고려시대 초기 치과의학

B. 고려시대 중기 치과의학

1. 송(宋) 치과의학의 영향과 중국 의서의 수입
2. 의서의 간행
3. 인도 및 아라비아 치과 의학과 의 접촉
4. 거란과 여진 및 일본과의 치과의학적 관계
5. 의약품의 국제 교류
6. 의료 제도 및 의과 과거(醫科科擧)제도의 확충
7. 치과의학의 독자적 발달
8. 향약구급방(鄕藥救急方)과 치과의학
 - a. 향약구급방의 성립
 - b. 향약구급방의 전체적 내용
 - c. 향약구급방의 치과 관계 기록의 구체적 내용
 - d. 향약구급방의 치과 관계 기록의 요약 및 특기할 사항
 - e. 향약구급방 간행의 배경과 그 의의

C. 고려시대 말기 치과의학

1. 원(元) 치과의학과 의 교류
2. 남방 및 아라비아 의약품의 전래
3. 명(明)과의 의학적 관계
4. 일본과의 치과의학적 관계
5. 의료 제도의 변혁
6. 충주 사고(史庫)의 의서의 내용
7. 독자적 의서의 간행

D. 고려시대 치과의학의 발달 요약

III. 결 론

참고 문헌

I. 서 론

고려시대(918~1392) 치과의학에 관한 연구는 1984년 현재 조사한 범위로서는 거의 없다. 하여 저자는 현재 까지 수집된 자료들을 연구하면서 몇몇 저자로서의 고찰을 가하여 그 전체적 양상을 논구코자 한다.

II. 본 론

고려시대 치과의학 개설

고려시대의 치과의학을 비롯한 모든 문화는, 골품(骨品)제도의 기반 위에서 성장했던 신라의 귀족 대신에 지방의 호족들이 중앙 집권 체제의 관리가 됨으로써, 그들이 문화의 주인공으로 등장하였다.

그들 고려 전기의 호족들은 통일신라 때의 호화로운 중앙 귀족과는 달리 소박성을 지니고 있었다. 이것이 곧 당시의 지방 사회의 생명력이었다.

고려 성종(成宗)이 학자이며 정치가이던 유신(儒臣) 최승로(崔承老)의 시무책(時務策)을 채택하여 유교가 정치적 이념으로 등장하자, 신라의 불교문화와 유교문화가 융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고려시대에는 사회적 문화 활동이 내대의 혈족 관념과 종교적 태두리에서 어느 정도 벗어남으로써 그 문화의 폭은 넓어져 중세적인 지성이 성립되었다. 따라서 유학과 한문학의 발달은 물론, 치과의학이 문헌의 일부로서 취급 기록된 의서(醫書)를 비롯하여 대장경의 간행과 실록의 편찬 그리고 개인의 문집 편찬 등등, 기록에 의한 문화 활동이 확대되었다.

고려 사회는 고려사회의 제반 모순점을 점차 해결하면서 중세사회를 건설한 것으로, 그 문화 기반인 전통적 유제(遺制)는 곧 신구(新舊) 문화의 갈등을 초래하여, 새로운 유교적 정치이념과 전통적인 지방 문화와의

* 大韓齒科醫史學會 會員

마찰을 초래하였다.

즉, 바로 그 당시의 문화 기반에서 성장된 귀족 문화 안에서도, 중세적 성격과 고대적인 성격이 병존하는 현상을 보였다.

불교치과의학이나 유교나 불교 철학의 발달은 지식 계층에서나 가능한 것이었고, 일반 국민의 신앙은 미신적 세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전통 문화 속에서 전승된 민간 신앙은 재난을 피하고 복을 기구하는 기복 불교(祈福佛敎)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고, 도교도 역시 그러하였다.

고대부터의 샤야마니즘은, 고려에 이르러서도 불교와 도교를 가미하면서 그대로 일반 민간에 성행되었다.

근래에 이르러서는 고려야말로 한반도를 처음 통일한 왕조라 보는 견해가 점차로 정설이 되어가는 감마저 없지는 않다.

고려의 태조인 왕건(918~943)은 943년 그의 십훈요(十訓要 第四)에서, 고려의 모든 문물례악(文物禮樂)의 제도는 당에 준한다고 하였다.

고려치과의학은 초기에 있어서는 당의 영향을 받은 신라치과의학을 그대로 수용하고, 불교가 점차로 융성됨에 따라, 인도와 중국 치과의학의 영향을 더욱 받았으며, 또 송과의 접촉이 있게 됨에 따라 그들의 치과의학도 수용하게 되었고, 다시 송과 아라비아 상인들과의 무역을 통해서 서역 및 남방의 의약품을 수입할 수 있게 되어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지식을 더 수용하게 되어, 고려치과의학은 점차로 독자적 발달의 기반을 얻게 되었다.

그리고 원대에 이르러서는 원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는 있었으나, 큰 영향을 받지는 않아, 고려의 치과의학은 그 후기에 이르러서는 도리어 더욱 독자적 발달을 보게 되었다. 즉, 고려는 그 후기에 정치적 혼란은 심화되었지만, 치과의학은 그와 반대로 도리어 발달되어 드디어는 뚜렷한 자립을 보게 되었다.

1. 고려시대 의설의 개요

고려시대 치과의학의 기반이 된 의설(醫說)로는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곧, 음양설·오행설·천인합일설·성리설·오운륙기설이다. 그 개요는 이러하다.

음양설과 오행설은 한(漢) 시대부터 수·당시대까지의 통설로서, 이것은 인체를 소우소(小宇宙)로 보고 천지간의 자연현상, 즉 대우주(大宇宙)와 인체와를 대비(對比)시켜 고찰하는 천인합일(天人合一)의 사상을 이

론화(理論化)시킨 사상 체계이다.

천인합일설(天人合一說)은, 천(天)에 음양이 있는 것과 같이 사람에게도 부부가 있다. 1년은 365일이니 사람에게 이와 대응하는 365개의 관절이 있고, 땅(地)에 고산 심곡이 있는 것같이 사람에게도 견(肩)·슬(膝)·액(腋)·땃(臑)이 있다. 또 땅(地)에 12종의 물의 흐름이 있는 것같이 사람에게도 12의 맥(脈)의 흐름이 있다. 땅에 샘이 솟고 풀이 있는 것같이 사람에게 털(毛)이 있다……, 이렇게 인체는 천지와 상응(相應)하고 있다.

인체의 요(腰)의 윗쪽은 천(天)으로 보며, 요 이하는 지(地)이다. 천은 양(陽)이며, 지는 음이다. 이것을 더욱 세분하면 배복(背腹)의 상하(上下), 내장의 내외(內外), 오장의 자웅(雌雄), 수족의 좌우에도 각기 음양이 있다.

인체에는 12종의 생명 현상의 흐름의 계통이 있는데, 이것은 중국의 12개 하천의 출구에 필적된다. 이러한 줄기가 모이는 곳을 4개의 바다로 비유해서 볼 수 있다. 인체의 이러한 점은 그것이 곧 천체의 자연현상이나 기상과 꼭 같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음양설(陰陽說)은 자연현상에 있어서의 최대의 상대적 존재를 천지음양으로 보고, 음과 양의 상대관계를 논하는 것이다.

곧, 인간은 천지간에서 생활을 영위하므로 그 생명현상은 음양 2요소의 양적 관계로써 풀이할 수 있다. 음양이 평형관계를 보유했 때에 인간은 건강하며, 그 실조를 초래하면 병적 상태라 하는 것이 음양설의 주장이다.

오행설(五行說)은 음양설을 기반으로 삼아 발전된 사상으로서, 5요소의 연쇄적 상대(連鎖的相對)에 따른 질적 평형(質的平衡)을 논하는 견해이다.

내경(內經)에서는 인체를 목(木)·화(火)·토(土)·금(金)·수(水)의 5요소의 집합체로 보고, 이들 요소가 그들 각자의 서로 다른 작용에 서로 대응하면서 생명현상의 통합을 이룬다고 하였다. 이들 5요소 사이에는 생(生)과 극(尅)이라는 2종의 상이된 에너지의 이행(移行)을 가정하고, 그 전체로서는 순환성 상대관계를 지닌 것이라 주장한다.

생(生)이란 각 요소간의 친화 협조의 관계를 뜻하며 극(尅)이란 길항(拮抗) 상쇄(相殺)의 관계를 뜻하는 말이다. 생과 극에는 또 각기 능동적인 면과 피동적인 면이 있고, 사계(四季)의 기후 변화에 따라서 그 상대관계는 소장(消長)한다고 주장한다.

다시 말하면, 무한하며 또 부단(不斷)한 에너지의 흐름이 곧 대우주인 천지간의 자연현상이고, 소우주인 인

체의 생명현상이란 이러한 자연현상의 시계열적(時系列)인 하나의 발로로서 인식해야만 된다는 것이 음양오행설에 따른 중국 의학사상의 근본이다.

성리설(性理說)은 송의 유가(儒家)들이 제창한 것이다. 이 설은 인성(人性)과 천성(天性), 곧 성명(性命)과 이기(理氣)를 논하는 것으로, 송의 치과의학에도 영향을 끼쳤다. 고대 중국의 자연 철학적 사상인 음양설과 오행설은, 본시는 별개의 것이었으나, 송의 유학(儒學)에서는 이것들을 융합시켜서 우주의 생성(生成) 이치를 설명했다.

다시 말해서, 고대로부터 전해진 천인합일설과 음양설과 오행설은 송대에 이르러 서로가 융합되어 태극(太極)의 본체를 논하는 성리설로 발전되고, 이어 다시 운기설로 발전했다.

오운육기설(五運六氣說)은 통기설(通氣說)이라고도 한다. 오운이란 오행운행(五行運行)의 기(氣)이고, 육기란 초(初)·二·三·四·五·종(終)의 육절차서(六節次序)의 기(氣)이다.

이것은 천지·음양의 운행·승강(升降)의 상도(常道)로서 오운의 유행(流行)에 태과불급(太過不及)의 이(異)가 있으며, 육기의 승강에 역종승복(逆從勝復)의 차(差)가 있다. 해서 거기에는 늘 변화가 생기고 자연의 현상은 인신(人身)에도 그대로 영향을 준다는 주장이다.

십이지(十二支)와 삼음삼양(三陰三陽)이 거기에 적처어져, 갑사(甲巳)는 토운(土運), 을경(乙庚)은 금운(金運), 병신(丙辛)은 수운(水運), 정임(丁壬)은 목운(木運), 무계(戊癸)는 화운(火運)이라 하며, 다시 소음(少陰)을 군화(君火), 소양을 상화(相火), 태음(太陰)을 습토(濕土), 양명을 조금(燥金), 태양(太陽)을 한수(寒水), 궤음(厥陰)은 풍목(風木)이라 하는 오운과 육기가 있다고 한다.

사람은 본시 오행(五行)을 지니고 탄생해서, 음양을 체내에 지니고 있으니, 천지의 기의 운행은 오운육기에 대응해서 체내의 맥과 경락(經絡)에 나타난다. 천지의 기가 화합되고 기후가 순환 때에는 인체도 건강하나, 천지의 기에 과불급(過不及)이 생기면, 즉 태과(太過)의 운(運)일 때에는, 승(勝)하지 못한 것이 사(邪)를 일으키며, 또 불급의 운일 때에는 승한 것이 침범된다고 한다.

기(氣)에는 풍·열·조·습·한(寒)의 성질이 있으며, 또 때로는 생(生)·장(長)·화(化)·수(收)·장(藏)의 차서(次序)가 있다. 이것들이 순(順)에 의해 상승(相承)되어 역(逆)을 갖고 상승(相勝)하기에 역종승복(逆從勝復)의 도(道)가 행해진다고 한다. 이러한 내용이 곧 오운

육기설의 대요이다.

이상은 고려시대 치과의학의 기반 내지는 배경이 된 주요 의설인데, 이것들이 실제 임상면에선 과연 어떻게 영향 내지는 활용되었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치가 않다.

일본의 이시하라·아끼라(石原 明)는 이러한 중국의 자연철학적인 영향을 받은 의설은, 실제의 임상 진료면에 있어서는 그것이 관념적(觀念的)인 것이라,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았으리라 하였으나, 그러나 저자는 그렇게 간단히 볼 문제는 아니라 보며, 급후 더욱 깊이 연구할 점이라 본다. 적어도 처방(處方)과 복약법(服藥法)에 있어서는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2. 불전(佛典)과 치과의학

고려는 태조의 건국십훈요(建國十訓要)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불교를 국교로 삼았기에, 불교가 서민의 생활 깊숙히 파고들었을 뿐 아니라, 그 경전을 통해서 많은 불교 치과의학이 고려에 전래되었다.

불교는 기독교의 경우와는 달리, 해부학자를 처형한 일이 없었다. 불교도 다른 종교와 같이, 생물의 해부를 반대한 점은 물론이지만 그와는 반대로, 도사(屠師·白丁)가 소를 해부하는 과정의 정경을 묘사한 경전도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해부를 엄금만 하지는 않은 것 같다. 전자의 예는 대방변불보은경(大方便佛報恩經) 권 7, 행원품소초(行願品疎鈔) 권 5에서 볼 수 있고, 후자의 예는 대반야경(大般若經) 권 53에서 볼 수 있다.

불교는 일찍부터 외과학이 발달되었던 고대 인도의 학을 그대로 경전에 수용하였기 때문에, 고려는 그것을 통해서도 발달된 인도의 해부학적 지식을 얻을 수 있었다.

불교 치과의학에서는 치아를 골과 동일한 조직으로 인식하였다. 대비파사론(大毘婆沙論) 권 17과 수행도지경(修行道地經) 권 1에 의하면, 치골(齒骨·齒牙)은 32개이고, 이것을 포함한 전신의 모든 골의 수는 103개이라 하였다. 그리고 다시 내신관장포경(內身觀章包經)에서는 치아와 치근골(齒根骨·齒槽骨)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정법념경(正法念經) 권 64 에서는, 전신의 13개의 맥관(脈管) 중, 악(顎)에서는 수류맥(水流脈)이 발(發)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대비파사론(大毘婆沙論) 권 73 및 구사론(俱舍論) 권 3에 따르면, 인체의

감각기관으로서의 오근(五根)이 있다고 하고, 그 중의 설(舌)은 미각(味覺)을 관장한다고 하였다. 오근은 안(眼)·이(耳)·비(鼻)·설(舌)·신(身·皮膚)이다.

치아발생학(齒牙發生學)에 있어서는, 치아 발생의 원동력은 업풍(業風)의 작용에 의한 것이라 했다. 업풍은 견고(堅固) 또는 양항(鞏韌)이라고도 호칭되었다.

그리고 치아 발생의 시기는 전신의 다른 골의 발생시기와 동일하다 하고, 그것은 임신후 10주부터라고도 하고, 혹은 임신후 20주부터 또는 21주부터라고도 하는 등 다소 다른 기록도 있다. 10주 설은 해탈도론(解脫道論) 권 7, 20주 설은 보적경(寶積經) 권 56과 포태경(胞胎經)에서, 21주 설은 수행도지경(修行道地經) 권 1 및 대집경(大集經) 권 24에서 각각 볼 수 있다.

치아의 기형(奇形)으로는 무치(無齒), 거치(擧齒·反齒)·상치(象齒)·마치(馬齒)·우치(牛齒)·어치(魚齒)·구치(狗齒)·거치(鋸齒) 등이 있다고 했다. 이것은 십송율(十誦律) 권 21, 승지율(僧祇律) 권 19, 비나야잡사(毘奈耶雜事) 권 25 등에서 볼 수 있다. 그리고 치아 기형의 발생 원인은, 자신의 전생(前生·先世)의 악업(惡業)에 기인된다고 하였다.

치아 질환은 충(虫)으로 발생된다 하고, 치아 치관부와 치근부 그리고 치은에는 각기 다른 충이 있다고 하였다. 뿐 아니라 상악과 하악에 있는 충은 서로 다르다고도 한 경전도 있다.

그리고 이 충들은 사람이 죽기 직전에 체내에 부는 풍(風)으로 사멸된다고 했다. 이를테면 치근의 충은 체내에 비골풍(髀骨風)이 임종 직전에 체내에 불면 죽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치아 및 치은에 상주(常住)하는 충의 이름을 들면 다음과 같다.

- 1) 치관부에 상주하는 충: 1~2종류가 있다. 그 이름은 악폐(惡幣)와 치폭(齒暴)이다. 혹은 밀열(蜜葉·密葉), 구바, 고사라고도 한다.
- 2) 치근부에 상주하는 충: 1~3 종류가 있다. 즉, 이름은 천식(喘息)·휴지(休止)·졸멸(猝滅) 등 3종이라고도 하고, 혹은 목구(木口), 아근충(牙根虫), 식치근충(食齒根虫)이라고도 하는 1종이 있다고도 하였다.
- 3) 치은에 상주하는 충: 1종이 있다. 래왕(來往) 또는 수원(手圓)이라 한다.

상악과 하악에 있는 충이 서로 다르다는 기록에서는 상악의 치아에는 샤즈샤야, 하악 치아에는 아누나마, 바바다, 우야다 등으로 불리우는 충이 있다고 했다.

이러한 기록은, 이미 위에 기재한 경전 등에서 볼 수

가 있다.

치아 질환의 요법은 주로 주술요법에 의존하였다. 불경 중의 주치경(呪齒經)은 주문(呪文)으로서 대표적인 것이다. 그 내용은 이러하다. (원문은 본지 4권 1호에 발표)

듣자하니, 북쪽 땅끝에는 건타마가연산(山)이 있고, 거기에는 벌레가 있는데 치후무라 부른다. (그것이) 지금(환자인 누구 누구)의 치아 속에 와있다. 그래서 지금 곧 사자(使者)를 보내서 감히 그 치아와 치아 속과 치근 속을 파먹지 못하게 하니, 치아 주위의 벌레는 숨지를 말고, 그 머리는 깨어져 칠분(七分)쯤 되기를, 마치 저 구라근개미(蟻·蟻)와 같이 되여라. 범천(梵天)이 이 주문(呪文) 외우기를 권한다. 남무불(南無佛)이여, 나로 하여금 주하는 것 같이, 그 모두가 원대로 되게 하소서.

이러한 주문은 특히 밀교(密敎) 경전에 많아, 20여개가 있다고 한다. 타라이경(陀羅尼經) 권 2에는 불아인주(佛牙印呪)를 주하고, 이어 목과 팔에 주색(呪索)을 걸면 된다는 기록이 있다.

뿐 아니라, 불공전색신변진언경(不空羅索神變眞言經) 권 11에는 주문과 함께 약물요법을 병행하는 것을 기록하고도 있다. 즉, 최승왕진언분노왕진언(最勝王眞言奮怒王眞言)과 실지왕진언(悉地王眞言)으로 조제한 우황(牛黃)을 입에 물면 곧 치통이 멈춘다고 하였다.

구강 보건은 불교 의식(儀式)과 더불어 발달되었다. 일찍부터 불교도는 조석으로 1일 2회씩 치아를 닦았다. 먼저 조두(澡豆)와 토설(土屑)로 손을 씻은 다음, 양지(楊枝) 끝을 치아로 깨물든가 혹은 돌로 치서 부드럽게 다시 말해서 그것이 부더슈(Brush)같이 되게 만들어서 그것으로 닦았다.

그리고 끝나면 다시 그 양지를 쪼개서 그것으로 혀의 표면을 닦았다. 또 이와는 달리, 혀를 굽어서 청소하는 주걱이 따로 있어 그것을 사용하기도 했다. 혀의 청소용 주걱은 금속, 뼈, 나무, 대나무, 위(葦) 등으로 만든 것으로 그것을 팔설도(刮舌刀), 팔설비(刮舌篋) 혹은 팔설비(刮舌篋)라 했다.

양지의 길이는 보통 4지장(四指長) 내지는 12지장(十二指長)이었다. 다시 말해, 약 7cm부터 22cm 정도의 것이었다. 그리고 그 굵기는 소지대(小指大)이었다. 즉, 약 1.5cm이었다. 이것은 양지의 끝 부분의 길이와 굵기를 말한다.

양지를 사용한 다음은 물이나 모래로 청소하여 그것을

버린다.

양지로 사용하는 나무는 님부(Nimb)라는 나무가 가장 좋은데, 양지는 우선 체질에 맞는 것을 선택해야 하는 줄 알았다. 나무의 맛은 고삽신랄(苦澁辛辣)한 것이 좋으며, 벌레가 먹지 않고, 그 해에 새로 나온 가지가 좋다고 했다. 물론 꽃과 과일나무 혹은 독성(毒性)이 있는 나무나 보제수(菩提樹)와 같이 귀히 여기는 나무는 쓰지 않았다.

잇썬시게는 범어(梵語)로 Dantakastha 라고 했다. 본시 이것은 고대 인도에서는 잇솔의 역할을 했던 것이다. 이것이 치목(齒木)이라 한역(漢譯)되었다.

양지 사용의 공덕(功德)으로서는, 경전에 각기 5~10가지가 열거되어 있다. 예컨대 그 십공덕(十功德)은, 숙식(宿食)을 소화시키며 담을 제거하고 중덕(衆德)을 해(解)하고 치구(齒垢)를 제거하며 구향(口香)을 발(發)하고 눈을 밝게 하며 인후(咽喉)를 윤택케 하고 구순(口脣)에 구열이 생기지 않게 하고 성기(聲氣)를 증익(增益)시키며 식미(食味)를 잃지 않게 하는 것이라고, 사십화엄경(四十華嚴經) 권 11에는 기재되어 있다.

3. 불전(佛典)과 주술료법(呪術療法)

고대 인도에서는 성인(聖人)이나 선인(仙人)으로 불리우는 사람은 주술료법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기도 했다.

불전을 보면 불교에서는 주술료법에 대한 일관된 어떤 주장을 찾을 수가 없다. 즉, 경전에서는 찬성도 반대도 뚜렷이 하고 있지 않다. 석가는 그러한 요법을 크게 반대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석가가 반대한 기록은 장야합경(長阿含經) 권 13, 권 14, 권 16, 대장엄론(大莊嚴論) 권 1, 남전(南傳)의 범동경(梵動經)과 사문과경(沙門果經), 대품(大品) 권 5 등에서 그는 그것을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또 일부 경전에서는, 주술료법을 시인한 기록도 있다. 이를테면, 질병 치료에 약과 신주(神呪)에 의한 2가지 방법이 있다고 기록한 것이 있다. 수행도지경(修行道地經) 권 6, 복개정행집경(福蓋正行集經), 아타나티야 경(經), 미린다 왕문경(王問經), 청정도론(淸淨道論) 권 13, 이부종륜설술기(異部宗輪說述記) 등등에서는 그것을 긍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불전에 2가지 견해가 있는 이유는, 아마도 그 첫째는 승려의 경우, 직업적으로 주술을 하는 것은 금하지만, 그러나 자기 자신의 질병 치료의 경우는 허용하고 있었던 점과, 둘째로 불교에서는 그것을 반대하

지만 밀교(密敎)가 유행됨에 따라, 불교 이외의 요소가 불교로 들어와, 마치 주술료법을 불교는 시인하는 것 같이 된 것이 아닌가 싶다.

경전에 따르면, 주술료법의 효과는 그것을 시행하는 사람과 환자에 따라 다르다고 하였다. 즉, 시술하는 사람의 수양의 깊이에 따라 각기 다른 결과가 나오며, 환자의 믿음에 따라서도 그 효과는 다르다는 것이다.

밀교(密敎) 경전에서 주술료법으로 자주 나오는 예는, 두통과 복통 그리고 치통이다. 대정장(大正藏)에서는 치통의 경우 진언(眞言)을 주(呪)하고, 주수(呪水)를 끼얹든가 인(印)을 잡아맨 손을 흔들든가 유지(柳枝)로 때리면 진통된다 하였다.

고려사를 보면 자주 역대 조정에서도 주술료법으로 치료한 기록이 나온다. 따라서 실제로는 불타 석가의 가르침과는 달리, 고려시대 사회에서는 주술료법이 상당히 성행되었던 점에 틀림이 없다고 고찰된다.

고려시대 치과의학은 그 학문적 지식의 변천을 살펴볼 때 편리하게 하기 위해, 당시의 정치적 구분과는 관계없이 이것을 3기로 나누어 취급한다. 즉, 그 초기는 태조(太祖)로부터 목종(穆宗)까지의 약 100년이고, 중기는 현종(顯宗)부터 고종(高宗)까지의 약 250년이며, 그리고 말기는 원종(元宗)부터 공양왕(恭讓王)까지의 약 130년으로 한다.

A. 고려시대 초기 치과의학

고려시대 초기 치과의학은, 그 태조로부터 목종(穆宗) 말년까지의(918~1009) 92년간을 말한다.

이 시기에서는 고려가 신라의 치과의학을 대체로 그대로 답습한 시기로, 태조의 의학 교육 기관 설치와, 광종(光宗 949~975)의 의업의 과거법 시행 그리고 성종(成宗 981~997)과 목종(穆宗 997~1009)의 의료 제도의 정비 등을 주목하게 된다.

태조는 930년 12월 서경(西京·平壤)에 의학교육을 위한 학교를 설립하였다. 뿐 아니라 따로 학원도 설치하여 의학을 진흥시켰다. 그후 태조는 교육이 진흥됨을 알고 학원에는 의·복(醫卜)의 2과를 증설시켰고, 한편으로는 학보(學寶)를 설립하여 그들의 교육을 뒷받침 시켰다.

그후 성종(成宗) 초에 이르러서는 전국에서 생도를 모아 의학을 교육시켰는데, 교수가 부족하므로 987년에는 전국 각처에 있던 십이목(十二牧)에도 의학박사 1명씩을 배치하여 지방생도들에게도 의학을 교수케 하였고

또 우수한 생도들은 중앙으로 추천케도 하였다.

그리고 목종(穆宗)은 1003년 전국의 박사와 사장(師長)에게 의·복(醫·卜)을 학습받고 있는 생도들의 이름을 보고케도 하여 그중 학업이 우수한 생도는 매년 추천하도록 하였다.

의업의 과거법(科擧法)은 광종(光宗)9년, 958년에 창시되었다. 이 법은 후주(後周)의 귀화인 한림학사(翰林學士), 쌍기(雙冀)의 진의로 된 것이다. 의업 과거에는 961년의 경우 3명이 합격하였다. 그러나 그 당시의 과거 고시과목은 아직 확실치가 않다. 과거법은 목종 7년인 1004년에 개정된 일이 있는데, 그 정확한 내용은 아직은 모른다.

고려시대 초기의 의료제도는 대체로 신라의 제도를 답습한 것인데, 그것이 대략 정비된 때는 성종(成宗)때이다. 성종은 989년, 내외 문관 오품(內外文官五品)과 무관 사품(武官四品) 이상자의 질병은 보고케 하여, 시어의(侍御醫), 상약직장(尙藥直長), 태의(太醫), 의정(醫正) 등으로 하여금 그들을 치료케 하는 명을 내렸다. 이것은 곧 의료제도의 정비를 뜻하는 것이라 보아 틀림이 없을 것이다.

목종은 의료행정 기관으로서 대의감(大醫監)을 설치하였다. 여기에는 대의감(大醫監), 감(監), 소감(小監) 승(丞), 박사(博士), 의정(醫正) 등의 직제가 있었다.

그리고 당시에는 어약(御藥)을 전담하는 상약국(尙藥局)과 공찬(供饌)을 전담하는 상식국(尙食局)도 설치되어 있었다.

상약국에는 봉어(奉御), 시어의(侍御醫), 직장(直長) 의좌(醫佐)의 직제가 있었고, 또 상식국에는 식의(食醫)의 직제가 있었다.

서민들의 구급기관(救急機關)인 제위보(濟危寶)는 광종(光宗) 때인 963년에 창설되었다. 그후 재위보는 문종(文宗) 때에 확충되어, 그 사업을 더 실천하는 기관으로서 개경(開京)의 동서 2곳에 대비원(大悲院)을 개설할 때에는 의이(醫吏) 2명을 배치하여 빈민환자를 치료해 주도록 하였다. 대비원은 어쩌면 아마도 한국 최초의 의료구호 기관이 아니었던가 싶다. 물론 이것은 전적으로 의료만을 담당한 기관은 아니었다.

고려는 그 초기에 적극적인 의학교육과 의료제도의 발전적 정비와 서민을 위한 의료기관의 창설 등으로 많은 의학의 보급을 도모한 점은 높이 평가되어야 할 점이다.

의약품의 해외와의 교류 및 국내에서의 수요는 대체로 신라시대의 의약품의 그것과 다름이 없다.

그런데 여기서 저자는, 특별히 치과의학과도 관련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유향(乳香)이 국내 수요품으로 문헌에 기재된 사실을 주목한다.

즉, 고려사 권 93, 열전 최승로(列傳 崔承老)에 따르면, 그가 사망하였을 때에 성종(成宗)이 보낸 부품(賻品) 중에는 유향 200량이 들어 있다. 곧 989년의 일이다.

유향은 바비로니아와 고대 애굽에서 이미 치통의 치료제로 사용된 것이다. 주로 홍해(紅海) 연안에서 생산되는 이것이 고려시대의 초기에는 수입된 것으로 보아, 치과의학적으로 우선 주목된다. 바비로니아의 경우는 우와(鰐窩)에 유향과 Hyos 나무의 씨앗 가루를 혼합시킨 것을 넣어 그 진정을 꾀하였고, 또 고대에굽의 경우는 우와에 유향을 태운 회(灰)를 넣어 진정시켰었다. 뿐 아니라 아라비아의 경우도 유향을 치과에서 사용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고려시대 초기에 유향이 고려에서 수요되었다면, 그러던 그 수입과 더불어 그 약효 내지는 사용법까지도 알려졌을 것으로 능히 짐작된다. 고려사 권 93, 열전 최승로 편에 기록된 부품의 내용으로는 유향 2백량에 뇌원다(腦原茶) 2백각(角)과 대다(大茶) 2십근 등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 해서 일단은 주목할 사실이라 본다.

그리고 또 저자는 여기서, 그 자세한 점은 고려시대 중기의 의서의 간행에서 기술하지만, 중국 의서는 의업의 과거법 시행 이전인 고려시대의 초기 내지는 통일신라 말에 이미 다수 수입되어 있지 않았는가 주목한다.

물론 이 점에 관해서는 아무 기록도 아직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일단은 주목할 점이라 본다.

전술한 바와 같이, 활발한 의학 교육과 의업의 과거제도가 고려시대 초에 있게 되었던 점도 곧 그것을 간접적으로 추찰케 하는 것이지만, 또 후술하지만 고려시대 중기인 문종(文宗) 때에 다수의 중국 의서를 신조(新雕)하였다는 기록은 더욱 저자로서의 이러한 추찰을 뒷받침하는 것이기도 하다. 뿐 아니라, 역시 후술하게 되지만 고려시대 중기인 철종(哲宗) 때에는 중국에서 도리어 고려에게 자기 나라의 의서를 보내줄 것을 청한 사실이 있는 점들로 미루어, 저자는 그러한 추정이 능히 가능하거니와, 동시에 그것은 거의 그릇됨이 없는 것이라 주장한다.

B. 고려시대 중기 치과의학

고려시대 중기 치과의학은, 현종(顯宗) 때부터 교종

(高宗) 말년까지의(1009~1259) 251년간을 말한다.

이 시기는 해외와의 교류가 빈번해짐에 따라, 송(宋)과는 의사들과 상인들이 자주 내왕했으므로, 송의 치과 의학은 물론 고대 중국 치과 의학 서적과도 많이 접촉할 수 있었고, 또 아라비아 상선의 왕래로써 아라비아와 인도와 서역(西域) 및 남방의 의학품 전래도 있고, 거란 및 여진(女眞)과는 물론 일본과의 교역도 있게 되어, 비록 기록에는 없지만 의학적 지식의 교류가 많았을 터임은 능히 짐작되는 일이다.

한편 국내적으로는 현종(顯宗) 때부터 그 조판이 시작되어 문종(文宗) 때에 이르러 그 제 1차 간행을 본 대장경과, 고종 때인 1251년 완성된 팔만 대장경에 의해서 고대 인도 치과 의학도 알려졌다. 해서 그 중기 후반인 의종(毅宗)과 고종(高宗) 때에 이르러서는 그때까지 계승되어 온 고유의 치과 의학에, 다시 송의 치과 의학과 인도와 서역과 아라비아와 남방 또는 거란과 여진과 일본의 의학적 지식도 흡수하며, 한편으로는 의사 제도와 의업 과거 제도의 정비로써 고려의 치과 의학은 자주적 발전의 기운을 보이기 시작했다. 즉, 한반도의 자연과 풍토 그리고 생활에 맞을 독자적 영역으로 그것을 발전시킨 것이다.

하여 고려시대 10세기 후반 경에는, 당시의 모든 사적(史的) 사실과 사료(史料)들을 종합 고찰할 때에, 그 치과 의학은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었다고 본다.

1. 송(宋) 치과 의학의 영향과 중국 의서의 수입

송의 치과 의학은 대체로 수·당(隨·唐)의 그것을 답습한 것이긴 하나, 그러나 그 의설(醫說)은 당시의 성행된 성리설(性理說)을 도입한 것이어서, 수·당의 그것과는 다소 전개를 달리하는 것이었다.

송과 고려 간의 사절의 왕래는, 광종(光宗) 때인 962년부터이나, 송의 치과 의학이 고려로 전래되기는 현종(顯宗) 7년인 1016년부터이다.

송으로부터 처음으로 전래된 의서는, 왕회은(王懷隱) 등이 편저한 100권에 달하는 태평성혜방(太平聖惠方)이다. 이것은 1016년과 1022년에 두번 전래되었다. 고황중(賈黃中)의 편저로 된 1,010권의 신의보구방(神醫補救方)은 1101년에 전래되었다.

전자는 송의 태종 때인 980년, 그리고 후자는 역시 송의 태종 때인 986년에 간행된 의서이다.

태평성혜방은 왕회은이 왕명에 따라 많은 의사들과 함께 편찬한 것으로, 질병을 1,670문(門)으로 분류하고 각 질병에 대한 처방 16,834종을 수록하였다. 제34권에서는 구치(口齒) 관계를 전문적으로 다루었고, 또 제36

권에서는 구설순이(口舌唇耳)를 다루고 있어 그 내용은 풍부하다.

여기서 특기할 점은, 치아재이식술(齒牙再移植術)에 관한 기록이 여기에 있는 사실이다.

즉, 불의의 사고로써 치아가 탈락되었을 경우, 그 치아를 다시 이식하는 약과 방법이라 하여, 이 약과 방법을 쓰면 그 후 3~5일만에 치아는 고정되며, 1개월간 딱딱한 음식을 씹지 아니하면, 재이식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治齒牙非時脫落令牢定銅末散. (불의에 탈락된 치아를 고정시키는 동말산).

銅末一兩, 當歸, 地骨皮, 細辛, 防風去蘆頭各一分, 右件持羅爲末, 和同末同研如粉, 以封齒日夜三度, 三五日後牢定, 一月內不得咬硬物.

다시 말해서, 동말 한량과 당귀와 지골피와 세신과 방풍의 잎새끝의 씨앗달린 곳을 제거한 것들을 각각 1푼씩 잘 채로 쳐서 분말로 하고, 다시 곱게 빠고 서로 혼합해서, 그것을 가지고 밤낮으로 3번씩 탈락된 치아에 덮기를 15일 계속하면 그 치아는 고정되며, 1개월간 딱딱한 음식을 씹으면 안된다고 했다.

북송의 중기에는 임억(林億) 등에 의해 소문(素問)·상한론(傷寒論)·천금방(千金方) 등의 교간(校刊)도 간행되었는데, 이것도 당시의 사적(史的) 사실로 미루어 고려에 수입되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뿐만 아니라 송의 태조(太祖) 973년에 간행된 신약국방서(新藥局方書)인 개보신상정본초(開寶新詳定本草), 그리고 송의徽宗(徽宗) 때인 대관(大觀) 연간(年間), 1107~1110에 진사문(陳師文) 배송원(裴宋元) 등에 의해서 간행된 5권의 화제국방(和劑局方), 또 송대의 의서로서 주목받는 전씨소아직결(錢氏小兒直訣), 증류본초(證類本草), 부인량방(婦人良方) 그리고 후술할 성제총록(聖濟總錄) 등도 고려에는 수입되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 송대의 직찬인 가우본초도경(嘉祐本草圖經)도 그러하다. 그런데 이상의 의약서에는 치과 의학 관계로 어떠한 것이 기재되었는지 자세한 점은 아직 알 길이 없다.

그러나 전기한 소문(素問)에는, 치아는 골의 나머지(餘)로서 골은 신(腎)이 주관한다고 하고, 함(鹹)은 신을 생성한다 하면서, 다시 함은 혈(血)에 흐른다고 하여, 소금이 치아 질환에 이용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즉 소금은 신경(腎經)의 영기(榮氣)를 돕는 것으로서, 신경이 왕성해지면 골이 튼튼히 된다. 따라서 치아도 역시 튼튼해진다는 주장이다.

또 전기한 천금방(千金方)에는, 치은선로(齒齦宣露·

齒根露出)의 치료로서는 매일 아침에 한줌의 소금을 입에 넣고 따스한 물을 물으면서 치아를 문지른다. 또 치아를 백번 때린다(叩齒). 이렇게 매일하면 5일 이내에 치아가 견고해진다. 무릇 사람이 잇몸병 때문에 과채(果菜)를 먹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은 모두가 치근이 노출하는 탓이다. 이렇게 소금물을 물고 치아를 문지르며 치아를 때리는(叩) 방법을 행하면 반드시 낫는다고 하였다. 이러한 내용은 후일 동의보감(東醫寶鑑)에 그대로 수록된 내용이기도 하다.

또한 전기한 개보신상정본초(開寶新詳定本草)는 당의 고종(高宗)이 소경(蘇敬) 등에 명하여 편찬한 659년에 완성된 신수본초(新修本草) 21권을 정리 개정한 것으로서, 치과 관계로는 그 서문에, 食鹽附於光鹽이라 하였다. 즉, 식염을 광염에 붙인다는 말로서, 염(鹽)이라는 말은 이때부터 식염(食鹽)이라 부르게 된듯 하거니와, 이것을 귀중한 의약품의 하나로 취급하게 된듯 싶다. 그 전까지는 소금을 약으로서 보다는 식품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 예로서 소금은 신농본경(神農本草經)에는 수록되어 있지 않다.

개보신상정본초는 974년에 다시 개보증정본초(開寶重訂本草)라 개정된 것이기도 하다.

그리고 증류본초(證類本草)는 일명 경사증류비급본초(經史證類備急本草)라고도 불리며, 이것은 태조 송대 신종(神宗) 말 경에, 당신미(唐愼微) 등이 왕명으로 편찬한 31권의 의서이다. 동서에는 치과 질환의 치료로서 소금(鹽)이 사용되며, 그 소금은 식염과 광명염(光明鹽) 대염(大鹽), 용염(戎鹽) 등 3종이라 기록하였다.

후세에 이르러 증류본초(證類本草)라 불리우는 책은, 경사증류비급본초(經史證類備急本草)와 경사증류대관본초(經史證類大觀本草)와 그리고 정화신수경사증류비급본초(政和新修經史證類備用本草)라는 3가지 본초 관계의 책을 모두 일컫는 말이 되었다. 왜냐하면 이 3권의 책은 그 내용이 대체로 일치하고 있는 까닭이다. 본서에는 집주본초(集注本草) 이후의 역대 본초서가 전부 수록되어 있다.

또 전기한 성제총록에서는 치아재이식술을 복안(復安)이라 하며, 탈락된 치아를 치조에 다시 삽입하고, 이미 앞에서 언급한 태평성해방에 기재된 처방과 동일한 약을 동일한 방법으로 쓰면 된다고 하였다.

또 하나, 역시 전기한 가우본초도경(嘉祐本草圖經)은 1,057년인 인종(仁宗 嘉祐 2年) 왕명으로 장우석(掌禹錫) 소송(蘇頌) 등이 가우보주본초(嘉祐補注本草)와 함께 편찬된 21권으로서 여기에는 의약품 1,082종이 수록되었다. 그런데 본서에는 치과용의 소금인 청염(靑鹽)

은 용염(戎鹽)이라 하였다. 또 청염은 북해(北海)의 산출품(產出品)이라 하였다.

의종(毅宗 1146~1170) 때의 김영석(金永錫 1079~1167)의 편저인 제중립효방(濟衆立效方)에 따르면, 그것은 일찍 송과 신라의 의서를 조사하여 수찬(手撰)했다고 하였으므로, 이것으로 미루어 보더라도 역시 고려 중기에는 송대의 각종 의약서가 다수 전래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다.

이것은 송의 철종(哲宗 1085~1100)이 고려로부터 다시 중국으로 보내주기를 요청한 중국의서가 11종이나 있었던 사실을 보아도 더욱 그러하다.

고려와 중국이 국교를 재개한 때는 962년이요, 중국의 철종(1085~1100) 때까지는 이미 많은 중국 의약인들이 왕래하였으므로 (후술), 고려에는 당시 많은 중국 의서가 수입되어 있음을 잘 알고 나서, 철종도 그러한 요청을 하였을 것이 틀림 없다.

송의 철종이 다시 중국으로 보내주길 희망한, 중국의 서의 서목은 다음과 같다.

왕방경원정초목경(王方慶園亭草木經) 27권
장중경방(張仲景方) 15권
황제칠경(黃帝鍼經) 9권
소품방(小品方) 12권
동군약록(桐君藥錄) 2권
명의별록(名醫別錄) 3권
고금경험방(古今經驗方) 50권
심사방(深師方)
도은거효험방(陶隱居效驗方) 6권
황제대소(黃帝大素) 30권

철종(哲宗, 1085~1100)이 고려의 선종(宣宗 1083~1094)에게, 중국의 의서로서 이미 자국에서는 망실된 의서의 서목(書目)을 적어보내며 그것을 돌려주기를 청한 점을 보면, 고려시대의 11세기 경에는 벌써 중국의서가 풍부히 고려에는 수입되어 있었던 사실을 미루어 알 수가 있다.

치과의학 관계로 여기서 주목되는 점은, 장중경방(張仲景方)이 철종이 요청한 몇몇 서적들 중에 포함되어 있는 점이다. 장중경은 치과의학 관계로는 주목할 사람으로 후한(後漢·東漢)의 2세기 때의 의사이다.

장중경은 중국 최초의 치과의학 전문의서인 구치론(口齒論) 1권을 저술하였을 뿐 아니라, 또 그가 이와는 별도로 저술한 의서 금궤요략(金匱要略, 권수 미상)에는 비소(砒素)로 치수를 실패시키는 요법이 기재되어 있다.

小兒疳虫食法.

雄黃, 葶歷, 右二味取臘日猪脂溶, 以槐枝裏頭, 四五枚, 点藥烙之.

즉, 우황과 정력 두 가지를 분말로 하여 이것을 동지(冬至) 후의 제3 무일(戊日)에 돼지기름에 끓여 녹여서 피화나무 가지로 20회, 해당되는 치아에 이 약을 놓고서 지진다고 하였다. 우황은 이산화비소(二硫化砒素)이다.

이러한 사실은 이 금궤요약의 원본은 이미 망실되었지만, 그러나 송대의 신종(神宗 1067~1085) 때인 1068년에 임역(林億) 등이 다시 장중경의 금궤요약을 정리 편찬하여 3권으로 간행하므로 그 내용이 알려졌다.

새로 간행된 이 의서는 신편금궤요약방론(新編金匱要略方論)이라 하며, 그 내용은 25편으로 되었다. 후세에 이르러 일반적으로는 이 책명을 약하여 금궤요약이라 하게 되었다.

또한 전기한 명의별록(名醫別錄)에는 치과 관계로서 식염(食鹽)을 의료의 목적으로 치주병 치료와 설출혈(舌出血)에 이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당시에 이용된 소금은 용염(戎鹽)이다.

따라서 저자는 여기서 고려의 선종(宣宗) 때인 1093년 그 당시에는 이미 중국의 많은 의서가 고려에 수입 보존되었던 것으로 능히 짐작할 수 있다고 보며, 확실한 논증은 아직 없지만, 치과의학 관계 의서로서 주목되는 다음의 몇몇 중국의 의서도 역시 고려에는 수입되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가 있으리라 본다.

1) 양생론(養生論)

본서는 한말(漢末)인 위(魏 220~265)의 혜강(嵇康)의 저서로서 「齒居晉而黃」이라는 기록을 여기서 하였다. 곧 산서성(山西省)에 거주하던 그 치아가 어떻게 된다는 말로서, 이것은 지방병성 반상치(斑狀齒)에 관한 최초의 기록이다. 물론 음료수에 함유된 불화물(弗化物)에 의한 것이라고 까지는 기록하지 않았지만, 생활 환경과 치과관계의 지방성병(地方性病)을 인식하였던 점을 알 수 있다.

2) 소씨 제병원후 총론(巢氏諸病源候總論)

본서는 수(隋 581~618)의 양제(楊帝) 때인 610년 소원방(巢元方)의 저술로서 50권이다. 여기에는 치과질환을 18론(十八論) 기재하였고, 그중의 「拔齒損候」에서는 발치후 출혈에 관해 기재한 것이 있어, 이것은 발치 수술에 관한 중국 의서 중의 최초의 것이 된다.

3) 신수본초(新修本草)

본서는 당(唐 618~907) 고종(高宗) 때인 659년, 소경

(蘇敬)이 도홍경(陶弘景 456~536)의 본초서(本草書)들을 개정할 것을 청원하여, 국가에서 23명의 개정의원을 임명하고 3년을 소요하여 편찬한 54권의 것이다. 치과 의학 관계로는 여기에 은고(銀膏)라 하여 은박(銀箔), 백석(白錫), 수은(水銀) 등으로 처방된 합금으로, 치아 충전술을 하는 중국 최초의 기록이 있다. 은고란 아말감이다. 그리고 또 본서에서는, 치과용 소금은 광명염(光明鹽)이라 하였다. 본서는 일반적으로는 당본초(唐本草)라고 한다.

본서의 원본은 10권 정도가 전해지고 있다. 본서는 예부터 전해지는 본초(本草)가, 신선계 의학(神仙系醫學)이 아닌 약물학서(藥物學書)로서 비로소 체계화된 것 중에서는 최초의 것이 된다.

4) 성제총록(聖濟總錄)

본서는 송의 휘종(徽宗 1,100~1,125) 말경에 왕명으로 조고충(曹考忠) 등이 편찬한 것으로 200권에 달한다. 치과 관계로는 그 중의 5권이 구치병(口齒病)을 다루고 있다. 본서는 송대 최대의 의서로서 당시까지의 다른 의학 전서와는 그 성격이 전혀 다른 특징을 지녔다.

그 내용으로는 우수한 처방과 논설이 많아, 특색있는 송의 치과의학 내용을 잘 나타낸다.

그 치과관계 기록은 당시까지의 각종 치과질환의 요법을 총괄한 것으로, 치아복안(齒牙復安·齒牙再移植術)에 관한 것까지도 기록된 상당히 내용이 풍부한 것이다. 치아제이식술에 관한 기록 내용은 이미 앞에 기록한 바와 같다.

5) 황제내경(黃帝內經)

본서는 중국 최고(最古)의 의서로서 비록 단편적이기는 하지만 치과 관계의 기록이 있다. 그런데 그 저자는 확실치 않고, 전해지기는 전설상의 황제(黃帝)라 되어 있다. 본서는 중국 의학의 근본(根本)을 이루는 것이다.

본서의 소문(素問) 상고천진론편(上古天真論編) 제1에 여자는 7세가 되면 신기(腎氣)가 성(盛)하게 되어 그 표현으로서 영구치가 나오고, 21세에 심기는 전신을 돌게 되어 지치(智齒·眞牙)가 고루 나오게 된다고 하고, 또 남자는 8세가 되면 심기가 실(實)하게 되어 영구치가 나오게 되며, 24세가 되면 심기가 고루 전신을 돌아 그 근육과 골이 강하게 되며 지치가 나오고, 40세가 되면 심기가 쇠퇴하기 시작하여 머리털이 빠지기 시작하며, 치아는 노화하기 시작하고, 64세에 이르면 치아와 머리털은 빠진다고 하였다.

그리고 지치가 나오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表牙齒爲骨之餘也라 하였다. 즉, 치아는 골의 나머지가 만든다고 했다.

본서 오미론편(五味論編) 제63에는, 齒者骨之所終也라고도 하였다. 곧, 치아는 골이 끝나는 곳이라 했다.

치과해부학 관계로서는 본서의 영추(靈樞) 장위편(腸胃篇) 제31에서, 인체 신장(身長)의 표준 수치를 7척 5치로 삼을 때에,

구순으로부터 치아까지의 거리는 9푼(分)

입의 넓이는 2치(寸) 반(半)

치아로부터 후두개(喉頭蓋)까지는 3치반

입의 용적은 약 5홉(合)

혀의 무게는 10양(兩)

혀의 길이는 7치

혀의 넓이는 2치반

이라 하였다. 이 수치는 사기(史記) 권 105의 기록과도 완전히 일치되는 것이다. 여기 말한 1치는 약 2.2cm 1양은 약 10g, 1홉은 20ml이라 사료된다.

치아우식증의 진단법은, 본서의 영추 논질진척편(論疾診尺篇) 제74에,

① 촉진(觸診)으로 양명맥(陽明脈)을 조사하면 그 경맥 상에만 열이 있다. 우측이 좌측에 있을 경우는 반대측인 우측 경맥상에 있고, 우측에 있을 때에는 좌측 경맥 상에 있다.

② 또 상악에 있을 경우는 족양명 위경(足陽明胃經)에, 하악에 있을 때에는 수양명대장경(手陽明大腸經)에 열이 있는 부위가 촉진된다 라고 하였다.

그리고 침료법(鍼療法)은 본서의 영추 장위편 제31에서 설명하기를 다음과 같이 하였다.

① 찬 것에 통증을 느끼지 않을 경우는 족양명위경(足陽明胃經) 상(上)에 취혈(取穴)하고,

② 찬 것에 대해 시리면 그때는 수양명대장경(手陽明大腸經)에 취혈한다.

또 치통의 진통법을 본서의 영구 한열병편(寒熱病篇) 제21에서는,

① 상악 치아의 경우는 족태양방광경(足太陽膀胱經)이 곽골(頰骨) 상방에서 치아로 들어가는 곳인, 각손(角孫)을 취혈하고, 이어서 다시 또 거교(巨膠)와 영향(迎香)을 취혈하며, 그 맥기(脈氣)가 실(實)하면 사(瀉)하고, 허(虛)하면 보(補)한다.

② 하악 치아의 경우는 대장경(大腸經)을 취혈하며, 오한이 있을 때에는 보하며, 오한이 없을 적에는 사한다 라고 하였다.

또 하나, 치과 관계로서는 구갈(口渴)의 경우의 침료법을 본서의 영추 잡병편(雜病篇) 제26에는 기록하고도

있다.

구갈(口渴)은 입안에 열이 있고 목이 마르며 그 입안이 아교(阿膠)처럼 끈적거릴 때를 말하는데, 이러한 때에는 족소음신경(足少陰腎經)의 태계(太谿)에 취혈한다고 했다.

이상을 보면, 본서는 우선 치아와 신장과의 밀접한 관계를 강조하고 있다. 본서의 소문 상고천진론편(上古天真論編) 제1에서는 설명하기를, 신장은 체액을 주관하는 기관으로서 오장육부의 활동의 근원이 되는 정기(精氣)를 저장하는 곳이라 하였다.

그런데 기(氣)는 음식으로 얻으며, 폐(肺)에서 신체 각 부위로 공급된다고 했다.

6) 동파양생론(東坡養生論)

본서는 송의 소동파(蘇東坡)의 문집으로서 물론 의서는 아니나, 여기에는 차(茶)로써 충치를 예방하는 방법이 기재되었다. 현재는 차에도 불소가 함유되어 있는 사실이 규명되었으니 매우 흥미롭다고 하겠다.

즉, 그는 그의 문집 중에서 1083년 8월 23일이라 기재하고 이렇게 말하였다.

내게 치아를 튼튼히 하는 한 방법이 있으니, 나는 항상 이것을 귀히 여긴다. 매번 음식을 든 다음에는 입안을 차로 씻는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기분이 개운하지 않다. 고기가 잇새에 끼어도 나는 대체로 차로 입을 씻어 그것을 제거한다. 차로 늘 입안을 씻으니 치아가 튼튼해졌다. 충치도 저절로 났다. 내게는 좋은 차가 늘 없어 보통 차로 하는데 며칠씩 걸려서 한 번씩 하기도 하지만 역시 그래도 좋다.

이 방법은 큰 이치가 여기 있으나 이것을 아는 이는 적다. 그래서 이것을 자세히 적는다 라고 하였다.

원문은 다음과 같다.

吾有一法，常自珍之，每食已，輒以沈茶漱口，煩膩既去，而脾胃不知，凡肉之在齒間，有得茶浸嗽之，不消縮不覺脫去，不煩挑剔也。而齒便漱濯，緣此堅密，羸病自已，然皆用中下茶，其上者自不常有，間數日一啜，亦不爲害也。此大是有理，而人罕知者，故詳述之。元豐六年八月廿三日。

7) 공괴집(攻媿集)

본서도 역시 의서는 아니나, 송대의 석학이며 고관직을 역임한 누약(樓鑰 1137~1213)의 문집으로, 여기에는 의치를 만들어준 진안상(陳安上)에게 드림이라는 글이 있다.

진생(陳生)의 기술은 천하에 오묘하여, 치과 질환이 있는 자들에게 세 이를 만들어 준다. 단지 손 한번만을 쓸 뿐이지만, 그는 환자로 하여금 평생을 조개로 엮은

것처럼 고르고 고운 이를 갖게 해준다고 칭송한 글이다. 그 원문은 다음과 같은데, 이것은 중국 최초의 치과 보철, 즉 의치 제작에 관한 문헌 자료로서 주목되어야 한다.

贈種牙陳安上.

陳生術妙天下, 凡齒之有疾者, 易之以新, 纔一舉手, 使人終身保編貝之美.

8) 검남시고(劍南詩稿)

본서도 또한 의서는 아니나, 송대의 시단(詩壇) 제일 인자로서 소태백(小太白)이라고까지 불리우는 육유(陸游 1125~1209)의 85권에 달하는 시집으로, 이것은 1187년에 간행된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도 시귀(詩句)로서 의치 제작에 관한 것이 있다. 의치를 종치(種齒)라고 하였다. 이것 역시 전기한 누약의 글과 함께 주목되는 중국의 의치 제작에 관한 귀중한 자료이다.

육유는 그 당시에 이미 의치 제작을 업으로 삼는 자가 있다고 들었다는 것이다. 그 시귀와 자주(自註)라고 한 원문을 보면 이러하다.

卜塚治棺輸我快, 染髮種齒笑人痴.

이렇게 말하고 나서, 그는 이어 설명하기를, 다음과 같이 하였다.

近聞有醫以補隋齒爲業.

9) 양생잡찬(養生雜纂)

송대의 주수충(周守忠)이 편찬한 것으로, 여기에는 아침에 일어나 잇솔을 써서는 안된다. 잇뿌리가 솟아 잇 사이가 뜨고 쉬 흔들리게 되며, 오래되면 치아가 아플 것이다 라고 하였다. 아마도 이 말은 잇솔의 사용이 적절하지 못해서 그러하였으리라 추정되나, 이 기록은 송대에도 잇솔을 사용하고 있었던 사실을 전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관습은 고려에도 전하여 졌으리라 능히 짐작되기도 한다. 그 원문은 이러하다.

早起不可用刷牙子, 恐根浮兼牙疎易搖, 久之患牙痛.

참고로 여기에 추가하면, 중국에서 잇솔을 사용한 때는 송대 이전인 요(遼 907~) 시대 부터이다. 현재까지 확실히 된 것은, 1953년에 열하성(熱河省)의 대관자촌(大管子村)에서 발굴된 잇솔이다. 두개의 잇솔은 959년(遼 應歷 9年)에 매장된 묘에서 나온 것으로, 상아제(象牙製)의 손잡이에 식모(植毛)한 것이다. 그 형태는 현재 사용되는 그것과 거의 조금도 다름이 없다. 식모한 상태는 2열이며, 그 모속(毛束)은 좌우에 각각 4개가 식립(植立)된 것이다. 그 크기는 길이 약 17cm 정도이다.

한편, 문종 12년부터 인종 원년까지(1059~1123), 송

으로부터 고려에 왔던 의사는 기록 상으로는 21명이다.

그 이름은 강조동(江朝東)·왕유(王瑜)·서선(徐先)·마세안(馬世安)·형조(邢詵)·주도능(朱道能)·심신(沈紳)·소화급(邵化及)·신수(愼脩)·모개(牟介)·여병(呂炳)·진이유(陳爾猷)·범지재(范之才)·양종립(楊宗立)·도순권(杜舜權)·성상적(成湘迪)·진종인(陳宗仁)·남줄(藍蓀)·양인(楊寅)·이안인(李安仁)·학수(郝洙) 등이다. 모두가 개인적으로 왕래한 것은 아니고, 두 나라 조정 간의 외교적 친선의 임무까지를 함께 지니고 온 의사들로서, 고려의 의생(醫生)들을 교육하기도 했다

수·당대까지는 아직 의학의 분과가 뚜렷이 확립되지는 않았었는데, 송대에 이르러 9과로 분과되었다. 즉, 대방맥과(大方脈科·內科)·풍과(風科·腦溢血), 소방맥과(小方脈科·小兒科)·안과·창종절양과(瘡腫折瘍科·外科)·침구과·산과·금측서금과(金鍼書禁科·物理療法系統) 그리고 구치인후과(口齒咽喉科)이다.

2. 의서의 간행

문종(1047~1082)은 고려의 문화를 크게 발전시켰다. 그는 다수의 의서를 간행하므로써 그 진흥을 크게 꾀하였다. 그 이전까지는 중국 의서가 전래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거의가 사본(寫本)으로 극히 제한된 사람들에게만 알려진 것이었다.

문종은 문종 12년인 1058년에 충주목(忠州牧)에서 신조(新雕)한, 황제팔십일난경(黃帝八十一難經)·천옥집(川玉集)·상한론(傷寒論)·본초팔요(本草括要)·소아소씨병원(小兒巢氏病源)·소아약증병원심판론(小兒藥證症源十八論)·장중경오장론(張仲卿五臟論) 구십구판(九十九板)을 올리니, 그것을 비각(秘閣)에 소장시켰고, 그 다음 해인 1059년에는 안서도호부(安西都護府·海州)의 사도관원외랑(使都官員外郎) 이선정(異善貞) 등이 신조(新雕)한 주후방 칠십삼판(周後方七十三板)·의옥집 십일판(疑獄集十一板)·천옥집 십일판(川玉集十一板)을 올리니 그것도 다시 비각에 소장시켰다.

이러한 1058년과 1059년의 의서의 발행은, 곧 고려의 치과의학을 한층 발전시켰을 뿐 아니라, 그 의술을 보다 널리 보급시켜, 국민 치과보건 향상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전기한 의서를 조사하면, 고려시대 중기의 치과의학 내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을 터이나, 말실되어, 저자로서는 아직 그 의서의 내용을 거의 알 길이 없다.

그러나 다만, 전기한 의서 중의 주후방(周後方)에는

치통과 치은출혈에 경우 소금의 분말을 사용하는 기록이 있다. 즉, 주후방에는 치아가 아프며 치은의 출혈이 있을 경우는, 매일 밤 소금의 분말로써 치은을 두껍게 봉하고(厚封) 고름(汁)이 모두 나온 다음에 취침한다.

고름이 나올 적에는 이를 때린다(叩齒). 이렇게 하면 10일을 지나지 않고서 동통과 출혈이 멈춘다. 더욱 이러한 방법을 계속하는 것이 가장 좋다. 폐지고기와 유채(油菜)는 삼가하라고 기록되었다.

김두중(金斗鍾)은 그의 저서 한국의학사에서 전기한의서 중의 본초팔요(本草括要)란, 아마도 송지(宋志)에 장문의(張文懿), 「본초팔요시 3권」(本草括要詩)이라는 데에 해당될 것 같다는 견해를 보였다. 그러나 본서는 그 서명(書名)의 뜻 그대로, 이것은 식료본초(食療本草, 唐·孟詵 著·3卷 開元年間 刊行)과, 증류본초(證類本草)나 본초집주(本草集註, 梁·陶弘景 4卷 或은 7卷, 六世紀) 등등의 내용을 요약한 전사본(傳寫本)이라 추리할 수도 있겠다. 그렇다면 본초팔요(本草括要)에는 치아가 동요되면서 치은 출혈이 있을 경우에는, 흡협(扨莢) 2정(挺)과 소금 반량(半兩)을 함께 빨갱게 태워 분말로 하여 매일 밤에 그것으로 치아를 닦으면, 동요되던 치아도 1개월 후에는 견고히 되며 또 치은의 출혈도 멈춘다는 기록(食療本草 所載)이나, 치과 질환의 치료용 소금으로서는 식염(食鹽), 광명염(光明鹽), 대염(大鹽), 용염(戎鹽)을 사용한다는 기록(證類本草 所載), 또는 치과 치료용으로 사용되는 계염에는, 청염(靑鹽)과 홍염(紅鹽) 2종이 있는데, 그 중의 청염을 사용한다는 것(本草集註 所載) 등등이 기록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러한 저자의 추리는, 본초학에 관한 견해가 대체로 당대(唐代)에 이르러 크게 변한 까닭이다. 해서 그러한 중국에서의 본초학의 변천을 요약해서 그것을 전사본(傳寫本)으로 하여, 본초팔요(本草括要)라 이름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을 터이라 고찰되는 까닭이다.

총주목에서 간행한 의서들의 이름이 생소한 이름인 것은, 저자의 견해로서는 이것이 중국 의서의 전사본(傳寫本)으로서, 그 원본을 그대로 모두 수록함은 쉬운 일이 아니기에 그 중요 부분만을 초록하든가, 또는 몇몇 의서를 하나로 요약해서 간행한 것이기에 그러한가 싶기도 하다.

문종은 의서의 간행만 아니라, 송의 의관(醫官)들도 문종 13년인 1059년부터 자주 초빙하여 의생(醫生)들을 교육시키도록 하였다. 하여 송의 의관들은 이때부터 숙종(肅宗)·예종(睿宗) 때까지 번번이 고려의 의학 교육에 참여하였다.

문종 시기는 3차에 걸친 거란족 침입이 있는 다음으로서, 국력이 배양되어 고려와 송과 요의 3개국 세력이 정립되는 시기이었으며, 천리장성이 축조되었을 뿐 아니라, 또 현종 때부터 착수된 제 1차 대장경의 조판이 완성되었고, 민족 의식은 고취되어 비록 고려의 북진 정책은 실패하였으나, 그러나 거란족을 막을 수 있다는 자신감과 더불어, 북방 민족보다도 우리 문화가 우수함을 자각하게 되어 더욱 민족의식이 강화된 시기이고, 고려의 친송 정책(親宋 政策)과 문화 진흥책은 양국의 교류를 촉진시켰으며, 교육의 진흥과 의업의 과거제로써 새로운 지식 계급의 성립이 마련되어, 새로운 의학과 문화 창조에의 능력의 기초가 이룩되었고, 또 폭넓은 사회적 문화활동의 확대는, 신라의 혈족적 관념과 종교적인 태두리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게 함으로써, 치과의학도 중세적인 지성을 조금은 찾게 된 때이다.

따라서 문종의 많은 의서의 간행과 의학교육의 시책 등은 전기한 여러 배경을 유의하면서 평가 고찰되어야 한다.

3. 인도 및 아라비아 치과의학과의 접촉

고려의 문화는 불교를 중심으로 삼아 발달된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치과의학 분야에서도 불경을 통해서 고대 인도의 치과의학이 널리 알려졌다. 이러한 사실은 고종(高宗 1214~1259) 때에 간행된 대장경 목록 중에 있는 다음과 같은 서목으로 알 수가 있다.

- 불설주시기병경(佛說呪時氣病經) 1권
- 불설주소아경(佛說呪小兒經) 1권
- 불설주치경(佛說呪齒經) 1권
- 불설주목경(佛說呪目經) 1권
- 불설불의경(佛說佛醫經) 1권
- 요치병경(療痔病經) 1권
- 제일체질병타라아니경(除一切疾病陀羅尼經) 1권
- 능제일체안질병타라니경(能除一切眼疾病陀羅尼經) 1권
- 치선병비요경 상하(治禪病秘要經 上下) 2권
- 구료소아병경(救療小兒病經) 1권
- 가염선인설의여인경(迦葉仙人說醫女人經) 1권
- 의유경(醫喻經) 1권

뿐만 아니라, 고려의 역대 군주는 불타의 힘으로 병을 치료하려는 형식을 밟았다. 그 중에서도 정종(靖宗), 문종(文宗), 예종(睿宗), 인종(仁宗)들은 자신에게 병이 있을 때에는 불공으로 치료하려 했으며, 또 임금이 보제사(普濟寺) 승당에 계시한 글에는, 불경은 그 모두

가 의학에 관한 것이기도 하다는 뜻의 「大千經卷, 皆藥醫之說」이라 하는 구절도 보인다. 그리고 명종(明宗) 때의 일로서, 고려사 열전(高麗史列傳) 제12에 따르면, 법사가 목록한 물은 곧 법수(法水)로서, 그것은 모든 병을 치유케 하는 것이라 하여, 남녀가 주야로 그 법수에 잠겨하여, 그들의 추성(醜聲)이 널리 들린다고 하였다. 이러한 기록은 모두가 당시 민간에는 불교의 포교와 더불어 인도 의학에 대한 신뢰가 깊었던 점과, 또 당시는 인도의 의학이 적지 않게 실용되었던 점을 추측케 하는 것이다.

아라비아 치과의학의 발달은 9세기 후반 경부터 12세기 경까지가 그 전성기이었다.

아라비아 상인들이 고려에 온 때는, 현종 15년과 16년 그리고 정종 6년으로, 1024~1040년까지 3회이다. 현종 때에는 1회에 백병 석도 왔다. 아라비아 상인들은 8세기 후반부터 해상을 통해, 인도 인도지나 중국의 남부 일본 그리고 한국과의 통상에서 독점적인 활약을 했다.

고려사에 따르면, 1040년 그들이 정종에게 헌(獻)한 것은, 수은·용치(龍齒)·점성향(占城香)·물약·대소목(大蘇木) 등이다.

용치(龍齒)는 화석으로 발굴되는 옛 중국의 초원과 하천가에 서식하던 포유동물의 치아로, 그 산지는 중국 산서성과 사천성이다. 상품(上品)으로 꼽히는 그것은, 중국 담주(淡州), 창주(滄州)·태원(太原) 등지의 것이며, 약효는 진정과 강장(强壯) 히스테리와 카리에스 등등에 현저하다. 그 주성분은 인산 석회이다. 저자는 전기한 정종 때인 1040년에 아라비아 상인이 와서 그들이 용치를 헌상하였다고 하나, 과연 그것이 아라비아 산품이나 하는 점에 대해선 확인할 자료를 찾지 못했다. 그 산지(產地)에 의문이 다소 있기 때문이다. 어쩌면 그것은 중국산이었을까 한다.

그런데 송의 조여팔(趙汝括) 제번지(諸蕃志)에는 아라비아 생산 약제로서, 서각(犀角)·유향·용연향(龍涎香)·목향·정향·안식향·물약·봉사 등을 열거하고 있다.

9세기 후반부터 12세기까지 소위 서양 치과의학의 중심적 역할을 한, 당시 아라비아 치과의학에서 사용한 약제는 어떠한 것이었는가를 열거하고, 당시 그들의 치과의학을 약기하면 다음과 같다.

유향·명반·오배자·호초·아편·장미유·봉밀(蜂蜜)·해리향(海狸香)·생강·소합향(蘇合香)·고로신스 나무의 열매·늑각·해포석·소금·와우(蝸牛)·봉사·파

리석고·석산동·석황(石黃)·초(醋)·물식자·아비산·옥혜(玉蕙)·구(韭)·마두령(馬兜鈴)·월계수 나무의 열매·히요스 나무의 열매·구유(狗乳)·와장(蛙腸)·야토(野兔)의 뇌(腦)·무려(牡蠣·굴)의 껍질·포도주 등이었다.

당시의 아라비아 치과의학은, 금충진(金充填)과 외과적인 치열교정과 점자를 사용한 발치 그리고 기계를 사용한 치석제거를 하였으며, 충치의 예방 목적으로 치마분을 사용할 줄 알았을 뿐만 아니라, 치통의 경우, 와동의 소작법(燒灼法)이나 아비산을 사용해, 그 진통을 꾀하였다.

아라비아의 상인이 각종 약제를 가지고 왔다는 말은, 단지 그것만을 상품으로 가져온 것이라기 보다는, 그와 동시에 그 약효와 사용법까지도 소개하였을 것으로 이해되어야 할 점은 다시 말할 것도 없다.

이러한 점에서 우선 유향(Frankincense)과 아비산과 히요스(Hyos)의 열매 등이 그 상품 중에 있었을 것은 능히 짐작되어야 한다. 이것들은 중세의 동서 치과의학 발달에 크게 기여된 약제인 까닭이다.

4. 거란과 여진 및 일본과의 치과의학적 관계

고려가 건국 후부터 거란과 여진의 압박을 받은 사실은 주지된 일이다. 고려사(高麗史)에 따르면, 고려의 대의감(大醫監) 김득광(金得安)이 다른 두 사람과 함께 현종 11년인 1020년 요에 억류된 기록이 있다.

대의감은 당시의 관제로는 의학 치료 부문을 관장한 기관 및 기관장의 호칭이다.

그리고 정종 4년인 1038년에는, 요에 억류된 상서좌승(尙書左丞) 김원충(金元冲)을 석방시키는 조건으로, 고려에서 은약병(銀藥瓶)과 뇌원다(腦原茶)를 보낼 것을 제안한 기록도 있다.

이러한 기록을 보면, 고려와 요는 의학적인 면에서 그 구체적인 내용은 상세치 않지만, 서로 교류가 있었던 점을 추정할 수 있다.

당시 요에서는 은(銀)을 가져와, 주로 고려의 식량·문방구·구리·철 등과 교환하였다.

고려사에 의하면, 숙종 8년인 1103년 동여진 태사(東女眞太師)의 사신이 고려에 왔다고 하며, 당시 여진에는 고려의 의사가 억류되어 있는데, 요의 왕인 영가(盈歌)가 그 의사에게 말하기를, 만일 비가 내 숙속(戚屬)의 병을 치료해주면 귀국시키겠다고 하니, 그가 병을 치료하여 약속대로 귀환시켰다는 기록도 있다.

이러한 점을 보면, 고려의 의술이 우수하였던 점을 알수가 있다.

여진은 고려로 은(銀)·모피·말 등을 수출하였고, 고려는 철계의 농구·무기·뚝자리·떡·종이·식량 등을 수출하였다. 이러한 교역품을 보면, 당시 여진의 문화를 추정할 수가 있는 것으로, 기록에는 없지만 여진과 고려 간에는 의약적 교류가 있었던 점을 짐작케 한다.

고려와 일본과는 우호적 사절의 교환이나 공인된 통상은 거의 없었다. 하지만 개인적 무역이 끊이지 않았던 점은, 고려사와 여러 문헌에서 명확히 알 수가 있다.

고려사에 의하면, 일본인 상객(商客)이 고려에 온 것은, 문종 34년인 1080년부터 선종(宣宗) 7년인 1090년까지 5회이고, 그때 그들은 조정에 해조(海藻)·수은·감귤(柑橘)·진주 등을 헌상했다.

그런데 일본측의 일본의학사(日本醫學史 富士川 游)의 기록을 보면, 문종 34년인 1080년 고려의 왕비가 병환이므로, 일본으로 서신을 보내, 의사 단바 마사다다(丹波雅忠)를 보내줄 것을 청했으나, 그 서사(書辭)가 예의를 잃은 것이라 하여 그 요청을 거절했다 하였고, 또 일본의 화한삼재도회(和漢三才圖會)에도 역시 문종 34년인 1080년, 고려 국왕이 와병이라, 단바 마사다다(丹波雅忠)를 보내줄 것을 일본에 청했으나, 그 내용이 예의를 잃은 것이라 해서 거절하였다고 했다.

이러한 일본측의 기록은 모두가 동일한 내용의 것이라, 우리 측에는 없는 기록이기는 하지만 아마 사실인가 싶다. 전기한 고려의 왕비가 와병이라는 기록은 아마도 문종의 와병이라는 말이라 사료된다.

고려사에 따르면, 문종 34년에 있었던 것으로는 문종이 호부상서(戶部尙書) 유홍(柳洪)과 예부시랑(禮部侍郎) 박인량(朴寅亮)을 송에 보내서, 약재를 보내준 일을 사례시킨 사실과, 또 송에서는 외관(醫官) 마세안(馬世安)이 고려로 온 기사가 있을 따름이다.

문종이 풍비병(風痺病)으로 고생한 일은, 고려사에도 있는 사실이거니와, 또 고려사에 따르면 문종은 문종 32년인 1078년, 송의 신종(神宗)에게 자신의 풍비병을 치료하기 위해 외관(醫官)과 약재를 요청하였노라 하였고, 그 다음 해에 중국에서 약재 경주심향(瓊州沈香) 외(外) 100품(品)이 왔다고 기록했다.

이러한 기록을 종합 고찰하면, 문종의 풍비병을 중심으로 삼은 여러 기록은, 결코 고려의 의술이 당시 일본의 그것보다 뒤져서 그러했던 것은 아니고, 문종의 질병 자체가 난치의 병이었다는 점을 짐작케 하는 것 뿐이다. 곧 이러한 점은, 송의 신종이 1079년에 약재로서 무려 100품을 보내온 사실로도 잘 알 수가 있다.

이상으로써 볼 때에, 고려시대 중기의 요와 여진 그리고 일본과의 치과의학 분야에서의 교류는 미미한 것이었다고 고찰된다.

하지만 여기서 저자로서 주목하는 것은, 수은(水銀)이 고려에 들어온 사실이다. 이 점은 치과의학 관계로서는 특별히 주목되어야만 할 것이라 보는 것이다. 고려사와 몇몇 기록에 의하면, 수은은 정종(靖宗) 6년인 1040년 대식국 상인 보나함(保那翬)에 의해 헌상되고, 그후 선종(宣宗) 1년과 4년, 그리고 6년과 10년, 즉 1084년부터 1093년까지, 수차 일본 및 송나라 상인에 의해서 들어 왔다.

이러한 사실은 아직 명백한 자료를 얻지는 못했으나 그러나 고려시대 중기에는 당(唐)의 소경(蘇敬) 등이 편찬한 신수본초(新修本草)가 수입되었을 것으로 능히 추찰되는데, 이 의서에는 수은을 이용한 은합금(銀合金·銀膏)의 치아 충전법이 기재되어 있는 것이라, 고려의 치과의술 내용을 연구할 때에 결코 그대로는 넘길 사실이 아니라 저자는 주장한다.

그리고 또, 전기한 송의 신종이 문종에게 보내준 약품중에, 치과용 양재로서도 알려진 것이 10여종 포함되어 있는 점을 저자는 주목한다.

이러한 점도 저자는 고려시대의 치과의학을 연구함에 있어서 일단은 주목할 점이라고 주장하거니와, 또한 문종의 풍비증(風痺症)이란 과연 무엇이었는가를 연구할 때에도 유의할 점이라 주장한다.

이를 테면, 아교(阿膠)·반하(半夏)·대황(大黃)·감초(甘草)·승마(升麻)·채호(柴胡)·지모(地母)·맥문동(麥門冬)·지황(地黃)·작약(芍藥)·갈근(葛根)·황령(黃苓)·목란피(牡丹皮)·당귀(當歸) 등등은 자주 치과 영역에서도 사용되는 것이었다. 이러한 점도 금후의 연구에서 유의할 점이라 믿는다.

5. 의약품의 국제 교류

고려 중기에 있어서의 해외와의 의약품의 교역은, 신라 시대보다 훨씬 그 교역의 상대 지역이 넓었으므로, 당시 수입된 의약품은 고려 중기 치과의학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고려 중기의 송과의 의약품 교류는, 현종(顯宗) 10년인 1019년부터 시작되어, 고종(高宗) 18년인 1231년까지 기록상으로는 12회 있다. 그리고 그 의약품 품목 안에는 남방 열대산의 향약(香藥)·심향(沈香)·서각(犀角)·목향(木香)·정향(丁香)·육두구(肉荳蔻)·몰약(沒藥)

빈랑(檳榔)이 있고, 저장으로부터 들어온 것으로는, 천독황(天竺黃)과 안식향(安息香)과 같은, 그 이전까지는 입수하기 어려웠을 품목이 들어있다.

해서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그것이 모두 고려시대 중기 치과의학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아니나, 그러한 진귀하고도 새로운 의약품 수입에 부수하여, 치과의학 관제의 새로운 지식 역시 간접적이거나 전래된 것으로 사료된다.

송대(宋代)는 당대(唐代)부터 계속된 서방과의 교통이 더욱 빈번해진 때이고, 또 동부 아세아의 해상운은 아라비아 상인이 가장 활발히 왕래한 때이기도 하여, 교역을 통한 치과의학 지식의 교류도 당연히 고려될 수 있다.

문종의 풍비병(風痺病) 치료를 위해 중국에서 1079년에 그 약재의 산지명(產地名)이 명시된 약재 100품이 왔던 것은 이미 말한 바와 같은데, 그때 비록 기록에는 없지만, 당시 중국 황제가 보낸 진귀한 약재가 왔을 적에는 약재만이 왔을 것은 아니고, 그것에 관한 자세한 의약적 설명과 처방법 등도 동시에 사신(私信)이나 의서 또는 문서로 함께 왔을 터이라, 그것을 통해서도 새로운 의약적 지식을 얻었을 것임은 명백하다. 뿐만 아니라 이것이 하나의 계기가 되어, 그 후부터 그러한 진귀한 약재들의 수입이 활발해졌을 점도 아울러 추정되는 일이다.

고려와 송과의 교통 관계를, 문종이 중국에 사신을 보내 약재를 구한 예를 들어 살펴보면, 당시에 소요된 시간은 만 1년이다. 즉, 사신이 1078년 7월에 떠나 1079년 7월에 귀국하였다. 당시의 송의 수도는 변경(汴京·開封)이다.

6. 의료 제도 및 의과 과거(醫科科擧)제도의 확충

고려시대 초기부터의 의료 제도의 정비는, 현종과 정종과 예종 때에 각각 보완 정비해졌고, 문종 때에 더욱 그 제도가 확충되었다.

문종(1047~1083) 때의 의약 부문의 조직으로서는 중앙 기관으로 대의감(大醫監)·상약국(尙藥局)·사선서(司膳署)·동궁관(東宮官)·제사(諸司)·도감각색(都監各色)·동서대비원(東西大悲院)·제위보(濟危寶)를 두었고, 지방의 서경의학원(西京醫學院)에는 공사대의감(公司大醫監)·판감(判監)·지감(知監)을 두었으며, 그 밖에 동경류수관(東京留守官)·남경류수관(南京留守官)·대도호부(大都護府)·방어진(防禦鎭)에는 의사 1명씩

을 두었다.

관제상(官制上) 의사의 정년은, 문종 때까지는 69세이었다. 세초 해직(歲杪解職)이라는 말은 곧 정년 퇴직이다. 고려사에 따르면, 문종 1년 1047년에 상서이부(尙書吏部)에서 상주하기를, 구제(舊制)에 모든 관료의 예는 상장 청로(上章請老)하지 않는 자라도 그 나이 69세에 이르면 세초 해직시켰습니다. 지금 다방태의소감(茶房太醫少監)인 김증악(金徵渥)은 그 나이 치사(致仕)하게 되었으니, 파면시켜 마땅할 것입니다 하자, 왕은 제(制)하여 말하기를, 김증악은 명의로써 그 직이 근시(近侍)에 있는 것이니, 수년 동안 공직(供職)하게 허락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한 기록이 있다.

문종은 1049년 의과 과거에 응시할 수 있는 출신 신분상의 자격을, 서민과 잡류(雜類)에까지 확대시켰다. 이것은 모든 신분 계급에게 관(官)으로서의 출세의 길을 열어준 획기적 새 시책이었을 뿐 아니라, 이것은 또 당시 일반의 의료 문제에 대한 욕구와 수요가 높았던 점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동시에 그만큼 의학의 발달도 이룩되었던 사실을 뜻하는 것이다.

그후 문종은 다시 1076년, 봉록(俸祿)을 정할 때에, 그 때까지는 아무런 관제 법(法)도 없던 의과에 대해서까지도 명경(明經)·법·서(書)·산(算)과 같은 업의 예에 따라, 의과의 경우는 과거에 합격한 첫 해부터 전(田)을 갑과(甲科)의 경우는 20결(結)을, 또 기타의 경우는 17결을 주게 하였다. 곧 이것은 의관(醫官)에 대한 대우의 개선인 동시에 그 직위를 향상시키고 그 업무를 장려한 시책이라 해석된다.

그리고 그후 인종(仁宗)은 다시 1137년, 의과 과거의 제도를 확충하여 그 고시 과목과 방법을 일정하게 정하였다.

고시 과목은 의업식(醫業式)과 주금식(呪禁式)의 경우 조금은 다르나, 소문(素問)·갑을경(甲乙經), 본초경·명당경·맥경·침경·구경·유연자방(劉涓子方)·창달론(瘡疽論)·칠권 본초경(七卷本草經)이고, 그 방법은 침경(貼經)·파문(破文)·파의리(破義理)로써 시행하여 그 점수에 따라 급제 여부를 정하였다.

이러한 과거 시험 과목을 보면, 그 대부분은 곧 중국의 의서로서 신라 시대부터 이미 알려진 것들이나, 유연자방과 창달론은 외과 방서(外科方書)이며, 구경은 침구술의 기본이 되는 의서이므로 이것을 통해 12세기 전반인 당시부터는 외과적 요법과 침구 요법의 발달이 촉진되었을 것이다.

외과적 요법의 발달이란 동시에 치과의학의 발달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것은 소홀히 봐서는 안될 사

실이다.

7. 치과의학의 독자적 발달

고려 시대의 중기 후반부터 치과의학은 점차 독자적인 발전의 기운을 보였다. 그 실증으로 김영석(金永錫)찬(撰)의 제중립효방(濟衆立效方)과 최종준(崔宗峻·宗俊)찬인 신집어의촬요방(新集御醫撮要方)과 향약구급방(鄉藥救急方)을 지적할 수 있다.

김영석(1079~1167)은 예종과 인종과 의종 때에 상서좌복사판공부사(尙書左僕射判工部事) 등의 고관 요직을 역임하면서 신라와 송의 의서를 참조하여 의서를 편찬하였고, 최종준(?~1246)은 고종 때인 1226년 동지추밀원(同知樞密院吏)로서 당시의 다방(茶方)에서 쓰던 약방(藥方)에 다시 요긴한 약방을 첨부하여 2권을 편찬한 것이고, 향약구급방만은 그 편자가 아직 확실치 않다.

이 중의 제중립효방과 신집어의촬요방은 이미 망실되었고, 향약구급방만이 전해진다.

그러나 전자인 입효방은, 조선조 초기에 간행된 향약집성방에 그 방문(方文)이 1개처에 인용 기록되어 있다. 또 후자인 활요방 역시 향약집성방에는 그 중의 12개의 방문이 인용 기재되었다.

그 인용 기재된 내용은 전자는 풍문, 중풍, 반신불수(風門, 中風半身不隨)의 조(條)에서, 편풍증(偏風症)으로서 수족 불수이며 동통이 있을 때에, 그 동통 부위에 찔질하는 외용약(外用藥)이며, 후자의 경우는 당과 송의 의약적 지식을 토대로 삼기는 하였으나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고, 거기에 다시 우리나라 모든 생활 환경에 적응되는 독자적인 경험 술법을 가미한 내용이다.

그리고 여기에는 특별히 치과의학 부문의 기록이 하나 기재되었는데 그 내용은 이러하다. 즉, 이것은 향약집성방 권 34에 있는 내용이다.

치아문(齒牙門)

처방명(處方名): 형개탕(荊芥湯)

주요 약재: 형개수(荊芥穗)·천초염(川椒鹽)

주치 병명(主治病名): 아치풍등통(牙齒風疼痛)

8. 향약구급방(鄉藥救急方)과 치과의학

향약구급방은 현존하는 우리나라 최고(最古)의 의서로서 가장 진귀하게 평가되는 것일 뿐 아니라, 그 치과의학에 관한 기록도 상당히 세세해서 우리나라 치과의

학 발달사를 연구함에 있어서는 더 없이 귀한 문헌이다.

상·중·하 3권이 한 권으로 된 본서 찬자(撰者)의 이름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이것이 간행된 시기도 아직은 확실치 않다. 김두중(金斗鍾)은 본서가 고종(高宗 1213~1259) 23년경인 1236년경에 당시 민간에서 상용되던 향약에 의한 경험방을 피란 중이던 강도 강화도(江都·江華島)의 대장도감(大藏都監)에서 수집 간행한 것이리라 하는 견해를 발표하였다. 즉, 그는 그의 저서 한국의학사와 도서(圖書) 제 5 권에서, 본서는 장경을 조판하는 여가에 편찬한 부산물일 것이리라 하였다.

그러나 저자는 본서의 간행 연대를 팔만대장경 조판에 착수한 해인 1236년경으로 추정하는 것보다는, 도리어 그 조판이 완성되었던 15년 후인 1251년 이후, 13세기 후반으로 추정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리라 본다. 팔만대장경의 조판이라는 국가적 큰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여가에 다시 그와는 전혀 다른 의서의 조판까지 병행한다는 일은 무리하였으리라 추정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저자는, 그 편자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은, 본서가 어느 1대조 재위 기간에 완성된 것이 아니라, 2~3대조에 걸쳐 비로소 완성된 연유에서 온 것이 아닌가 한다. 대장도감에서 본서를 간행할 때에, 그 편자의 이름이나 연호를 기록하지 않은 사실은 결코 단순한 누락이라고는 볼 수 없는 까닭이다. 해서 저자는 본서의 간행시기를 13세기 후반으로 추정한다. 즉, 원종 아니면 충렬왕 때이라 추정한다.

본서는 현재까지 국내에서는 발견되지 않았고, 다만 일본 정부의 궁내청(宮內廳) 서능부(書陵部)에 그 1부가 있을 따름이다.

하지만 그것도 원본은 아니고, 조선조의 태조 17년인 1417년 경상도 의흥현(義興縣)에서 중간(重刊)된 것이다.

본서의 서명(書名) 중의(鄉藥)이라는 뜻은, 우리나라에서 산출되는 약재라는 뜻이고, 구급방(救急方)이란 위급환자를 구하는 치료 약방(처방)이라는 뜻이다. 당시는 중국산 약재를 관례적으로 당약(唐藥) 또는 당재(唐材)라 지칭한데에 대해, 국산 약재는 향약 또는 향재라 했다.

따라서 이 서명 자체만을 보더라도, 여기서 이 의서가 나올 그때까지만 해도 민간에서 많이, 사용되던 중국산의 그것을 국산품으로 바꾸려 했던 의도가 매우 강했던 점과, 또 하나 주목되어야 할 점은, 널리 국민 대중에

게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한 그 뚜렷한 시책의 하나가 곧 본서의 간행이라는 점이다.

그뿐 아니라 고종이 이렇게 향약의 사용을 권장한 사실은, 의학 부문에 관한 진흥을 추진하려는 의도가 있던 점으로, 이것은 당시의 국내의 사정과 겨누어 볼 때에 결코 소홀히 평가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a. 향약구급방의 성립

향약구급방의 성립은 본서의 발문으로 알 수 있다. 즉, 「향약구급방은 효과가 많아,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매우 이롭다. 여기 실린 여러 약재는 모두 우리나라 사람들이 쉽게 알고, 또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복약법이 알맞으며 또 실험도 해 본 것들이다. 서울과 큰 도시에는 의사가 있으나 대개 외딴 시골에 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급작스런 병을 얻게 되면 형편이 매우 어려워져서 좋은 의사를 청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때에 만일이 책만 있으면 비록 편작(扁鵲)이나 의안(醫緩) 같은 훌륭한 의사를 얻지 못해도 그 병자를 구할 수 있으니 힘은 적게 들이고도 공은 배나 얻으므로 그 이익은 대단하다.

옛날에 대장도감(大藏都監)에서 이 책은 간행한 것이나, 오래되어 그 판이 찢고 또 당시에 나온 책도 보기가 드물게 되어, 지금의 의흥(義興) 감군(監郡)인 최자하(崔自河)가 중간(重刊)하여, 책의 은혜를 널리 퍼기 위해 그가 비장했던 선본(善本)을 내고자 감가(監司)인 이지강(李之剛)에게 명하니, 감사는 곧 목공에게 그것을 세기도록 하고, 최를 헌감으로 인명해서 그 뜻을 이루도록 했다. 그래서 윤 5월에 시작해서 손을 매니 그때는 황명(皇明) 영락(永樂) 정유(丁酉) 7월이다」고 했다. 이것으로써 본서는 이미 그 전에 고려의 대장도감에서 간행했던 책임을 알 수가 있고, 또 현존하는 책은 조선 태조(太祖) 17년인 1417년에 다시 중간된 것임을 명확히 알 수 있다. 그 원문은 다음과 같다.

鄉藥救急方, 其效甚有神驗, 利於東民大矣, 所載諸藥, 皆東人易知易得之物, 而合藥服法, 亦所嘗經驗者也, 若京師大都則醫師有之, 蓋在窮鄉僻郡者, 忽遇蒼卒, 病勢甚緊, 良醫難致, 當此時苟有是方, 則不得扁, 緩, 人皆可能救之矣, 是則事易功倍, 利莫甚焉, 昔大藏都監, 刊行是書, 歲久板朽, 舊本罕見, 今義興監郡崔侯自河, 思欲重刊, 以廣其惠, 乃出私藏善本, 告諸監司李公之剛, 而監司即命, 侵梓干崔之任縣, 以遂其志, 乃以閏五月始役, 至七月十二日斷乎焉, 噫崔侯本以仁厚素聞, 今又開是書, 以廣其傳, 而傳壽國脈, 則其仁之乃於民也深矣, 宜書本末, 以傳諸後皇明永樂丁酉七月 日 朝奉大夫 安東

儒學教授官 尹 祥 謹跋

刻手 義城通引 金 柰

義興記官 朴 仁

安東學生 權 白

都邑戶長 朴 乙 祥

校正 成均幼學 蔣 淳

校正 成均幼學 朴 暄

縣監奉直 卽兼勸農兵馬團練判官 崔 自 河

奉列大夫經歷所經歷 鄭 包

嘉靖大夫慶尙道都觀察黜陟使兼 監倉安集轉輸勸農管學事提調刑獄兵馬公事 朴 習

원문의 대장도감이라, 함은 고려 고종(高宗)이 제 2차로 대장경을 새기기 시작하면서 설치한 기구이다.

이 중간본(重刊本)이 그 초판의 내용과 과연 동일한 것인지는 아직 확실치 않으나, 그 발문을 통해서 보는 한에 있어서는 변동이 없는 것 같다.

그후 이 책은 세종 9년인 1427년에 나주(羅州)의목사(牧事)인 황자후(黃子厚)가 요청해서, 충청도에서 다시 간행된 사실이 있음은 조선조 실록(朝鮮朝實錄)으로 알 수가 있지만, 현존하는 것은 다만 중간본 뿐이다.

b. 향약구급방의 전체적 내용

본서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그 표지에는 「조선판 향약구급방 상중하」(朝鮮板 鄉藥救急方 上中下)라 기재되었고, 총매수는 52매로서, 목록 1매, 본문 43매, 방중향약목초 6매, 발 1매, 간행 관계자 열명 1매로써 편집되었고, 그 크기는 세로 30.5cm, 가로 20.5cm이다. 그 중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상권목(上卷目) 十八

식독(食毒) 一, 육독(肉毒) 二, 균독(菌毒) 三, 백약독(百藥毒) 四, 석독(蝨毒) 五, 골력(骨歷) 六, 식열(食噎) 七, 졸사(卒死) 八, 자에(自縊) 九, 열갈(熱渴) 十, 낙수(落水) 十一, 중주(中酒) 十二, 단주(斷酒) 十三, 타절(墮折) 十四, 금창(金瘡) 十五, 후비(喉痺) 十六, 중설(重舌) 十七, 치감(齒紺) 十八.

중권목(中卷目) 二十五.

정창(丁瘡) 一, 응저(癰疽) 二, 장옹(腸癰) 三, 동창(凍瘡) 四, 악창(惡瘡) 五, 칠창(漆瘡) 六, 탕화창(湯火瘡) 七, 단독음마(丹毒癰瘰) 八, 벌지창(伐指瘡) 九, 표저(癰疽) 十, 부골저(附骨疽) 十一, 선개골창(癰疥癰瘡) 十二, 전족목죽침차(箭鏃木竹籤刺) 十三, 치루장풍(痔漏腸風) 十四, 심장통(心腸痛) 十五, 냉열리(冷熱痢) 十六, 대소변불통(大小便不通) 十七, 임질(淋疾) 十八,

소갈(消渴) 十九, 소변하혈(小便下血) 二十, 음나음창(陰癰陰瘡) 二十一, 비늑(鼻臑) 二十二, 안병(眼病) 二十三, 이병(耳病) 二十四, 구순병(口唇病) 二十五,

하권목(下卷目) 十二

부인잡방(婦人雜方) 一, 소아잡방(小兒雜方) 二, 소아오탄제물(小兒誤吞諸物) 三, 수종(水腫) 四, 중풍(中風) 五, 진광(癲狂) 六, 학질(瘧疾) 七, 두통(頭痛) 八, 잡방(雜方) 九, 복약법(服藥法) 十, 약성상방(藥性相反) 十一, 고전록험방(古傳錄驗方) 十二.

이외에 부록으로 방중향약목초부(方中鄉藥目草部)에는 향약 180품에 대한 속명(俗名) 약미(藥味) 약독(藥毒) 및 채취법 등이 간단히 설명되어 있다.

본서가 언제 어떻게 일본으로 갔는가 함은 아직은 그 연유를 알 수 없으나, 그러나 동서에는 다노리씨(多紀氏)의 장서라는 도장이 찍혀 있는 점으로 미루어, 다노리씨 가문은 일본의 에도바꾸후(江戸幕府) 시대의 저명한 구과(口科·齒科) 전문의사이었으므로 상당히 일찍 간 것이라 고찰된다. 다노리씨의 가호(家號)는 1749년부터 시작되었는데, 이 가문은 그 이전부터도 일본에서는 유명한 구과(口科) 전문의사이었다.

저자는 다노리 가문은 대대로 구과 전문의사이었고, 그 가문에서는 제수관(사이주관·濟壽館)이라는 의학교육 학교를 개설하고 있었으므로, 보서를 통해서도 많은 고려의 치과 의학을 영향 받았으리라 본다. 그 일례로서 동교(同校)에서의 교수 과목은 고려의 그것과 거의 동일하였다. 즉, 소문(素問) 상한론(傷寒論) 소난(素難) 영추(靈樞) 난경(難經) 본초(本草) 경락(經絡) 유학(儒學)이 그 교수 과목이었다.

c. 향약구급방의 치과 관계 기록의 구체적 내용

향약구급방에 기재된 치과 의학 관계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상권(上卷) 17항 : 중설(重舌口瘡)

목차에는 중설이라 했으나, 본문 항목에서는 중설구창이라 했다. 아마도 이는 정식으로는 중설구창이라 부르는 것을, 흔히 관습상 약해서 중설이라 했던 연유인가 싶다.

그리고 중설의 주해로서, 이것은 혀 밑 속에 혀 같은 것이 또 하나 더 있는 것이라 하였다.

중설 치료는 사탈피(蛇脫皮)를 태워 그 분말을 바르든가, 복용간(伏龍肝)을 태워 분말로 하여 그것 우방즙(牛蒡汁)과 함께 섞어 바른다 하고, 소아의 경우는 녹각말(鹿角末)을 혀 밑에 넣어두면, 3~4일 후엔 치유된다

고 하였다. 또 적소두(赤小豆)의 분말을 초에 타서 바르든가, 포황(蒲黃)을 발라도 역시 좋다고 하였다.

목설(木舌)의 경우는 매점(煤結)을 초에 타서 바르고 침을 뱉으며, 또 설종(舌腫)의 경우 다시 말해서, 혀가 붓고 저포상(猪胞狀)으로 되어 그것이 입안에 가득하면 매점(煤結)에 소금을 조금 섞어서 분말로 만든 다음에, 그것을 초에 타서 바르면 좋다고 하였다.

또 구설생창란(口舌生瘡爛)의 경우는 박하(薄荷)를 술에 담구어 그 용액으로 함수하면 되고, 설생창란(舌生瘡爛)에는 감초와 청밀(淸蜜)과 저지(猪脂)를 함께 달여, 자주 바르기도 하고, 함수도 하면 신효(神効)라고 했다.

이러한 기록을 보면, 중설이란 결코 어떤 특정된 하나의 질병명은 아니며, 이것은 구강내 연조직의 질환을 뜻하는가 싶다.

상권(上卷) 18항 : 치감(齒蠶)

목차란에는 치감이라고만 하였으나 본문의 경우는 치감이라 하고 나서, 다시 蠶(니)이라 하고, 다시 치통이라 계속 기재하였다. 해서 치감이라 함은 곧 치아 경조직의 질환을 뜻하는 것이라 추정된다.

본항(本項)의 맨 처음에는 양치약(養齒藥) 처방이 있다. 그 처방은 흙염(皂莢)과 정염(挺鹽)을 불에 태워 그것을 분말로 하는 것이다. 이것으로 밤마다 양치하면 동요되던 치아도 1개월 후에는 튼튼해진다고 했다.

아치통(牙齒疼)에는 유지(柳枝)를 잘게 썰어, 소금과 함께 달인 물을 머금고 있으면 좋다고 하였다.

격심한 치통(齒痛)에는 계노백(鷄屎白)을 태운 분말을 솜에 싸서 아픈 곳에 물든가, 우슬(牛膝)을 태운 재(灰)로써 양치한다고 했다.

아통(牙痛)에는 불은 껍질을 벗긴 무우씨를 갈아, 인유즙(人乳汁)과 함께 섞어, 이것을 좌측 치아가 아프면 우측 코속에, 또 우측이면 좌측 코속에 넣으면 된다고 했다.

아통의 경우는 또 이 밖에도, 흙염자(皂莢子)의 분말을 솜으로 싸서 초에 넣어 삶은 따스한 물을 입에 물고, 그것이 식으면 다시 바꾸는 것도 신효(神効)이며, 구기피(枸杞皮)를 초에 삶아 그 따스한 물을 입에 물고 그것이 식으면 뱉아 버려도 좋다고 하였다.

우치통(齲齒痛)에는 도인(桃仁)을 태워, 해당 치아에 물어도 되고, 또 마야목(馬夜目)을 솜으로 싸서 해당 치아에 물어도 좋다고 했다.

치근종통(齒根腫痛)에는 우방근즙(牛蒡根汁)에 소금을 넣어 그것을 은(銀) 그릇에 넣고, 그것이 고약이 될 때

까지 달여서 잇몸에 바르면, 심한 경우에도 그렇게 반복하기를 불과 3—5번만 하면 낫는다고 하였다.

우치(鰐齒)란 벌레가 치아를 파먹어 구멍이 생긴 치아를 말하는데, 우치에는 옥리근(郁李根)의 백피(白皮)를 물에 삶아서 만든 농즙(濃汁)을, 입에 그것이 마스할 적에 물고, 그것이 식으면 다시 마스한 것으로 교환한다. 그리고 벌레 먹은 구멍에는 송지(松脂)를 추(錐)와 같이 뾰족하게 만들어 넣는다고 했다.

치닉(齒蠶)에는 작맥(雀麥)을 고표열(苦瓠葉) 30매에 달려있는 이슬로써 씻어, 그 길이가 2치(寸)에 넓이가 1치 그리고 두께 5분(分)으로 잘라 그것을 박잎으로 싸서 2년 묵은 초에 담았다가, 한낮에 그 중의 2개를 꺼내어 뜨겁게 구워 입안과 치아에 대고 그것이 식으면 다시 뜨거운 것과 교환한 후, 물이 담긴 동기(銅器) 속서 그 박잎을 열어보면 벌레가 많을 경우는 20—30매 또 적으면 10—20매가 나온다. 누른 색의 벌레는 늙은 벌레이고 회색의 그것은 어린 것이라 하였다.

아치불생(牙齒不生)에는 침으로 잇몸에서 피가 조금 나오게 한 다음, 우분(牛糞) 속의 룡을 태운 분말을 그 해당 부위 잇몸에 바르면 되거니와, 또한 동량의 숯탄분(糞)과 암탄 분을 발라도 된다. 그러던 노인은 20일 만에 또 젊은이는 10일만에 치아가 나온다고 했다.

아치선로정출(牙齒宣露挺出)에는 생지황(生地黃)을 나무 절구에 찧어 거기에 다시 소금을 섞고 다시 무가루로 반죽하여 그것을 숯불에 구운 다음에 다시 거기에 사향을 섞어 분말로 만든 것을 잇몸에 붙이는 것이라 했다.

아치동요에는 흙쥬(白莢)을 태운 분말을 생지황즙(生地黃汁)에 타서 계란데(鷄卵大)로 반죽하여 다시 불에 태워 분말로 하고, 그것을 제차 생지황즙에 태우기를 3번 반복한 다음 그것을 분말로 만들어 치아에 붙이면 실효가 있다고 하였다.

중권(中卷) 25항 : 구순병

구강진조증으로 열(熱)이 있을 때에는 석고(石膏)와 꿀을 물로 달여 함수하며, 또 두통과 심신의 피로가 있을 적에는 맥문동(麥門冬)의 즙과 청밀(淸密)과 대추를 병에 넣어 써서 한 숟가락씩 내복한다.

순창(唇瘡)에는 동쪽 벽의 마른 흙가루를 바른다. 또 대마자(大麻子)를 타운 분말을 정화수(井華水)로 개어 발라도 된다.

순긴면증(唇緊面腫)에는 마치현(馬齒莧)의 즙을 바른다. 혹은 말뚝구리를 태운 분말을 발라도 된다.

구순종(口脣腫·緊脣·藩脣)에는 송지를 기름에 녹여

연하게 해서 바른다.

하권(下卷) 1항 및 2항 : 부인 및 소아잡방(小兒雜方) 산후(産後)에 중풍으로 구금(口噤) 및 아관긴금(牙關緊急)이 되었을 경우나, 설본축(舌本縮)이 되었을 때에는 형개수(荊芥穗)와 개자(芥子)를 각기 달여 내복한다. 소아의 중설(重舌)에는 황단(黃丹)의 분말을 룡의 크기 만큼의 분량씩 혀 밑에 바른다.

치초(齒齠)에는 호두(胡桃)를 잘게 해서 씹는다.

중설(重舌)에 관한 주해로서, 송(宋)의 두한경(竇漢卿)은 창양전서(瘡瘍全書)에서, 이것은 설하에 작은 혀가 또 하나 생긴 것으로, 그 색깔은 선홍이며 설하에 경핵(硬核)이 있는 유종(乳腫)이라 하였다. 또 명(明)재사공(戴思恭)의 증치요결(證治要訣)에는 외유설폭증창(外有舌暴腫脹)이라 했고, 의학입문(醫學入門)에는 설종(舌腫)이 구강 내에 가득하여 말을 잘하지 못하며 또 음식을 들지도 못하는 것이라 하였다.

동의보감에서는 설근(舌根)에 다시 작은 혀가 생긴 것이라 했다. 해서 중설이란 아마도 구저염(口底炎)과 하마종(蝦蟇腫)의 부류를 뜻하는 것인가 싶다.

목설(木舌)을 창양전서에서는 그 정도가 천산갑(穿山甲)같으며 찬 것을 싫어하고 뜨거운 것을 좋아하거니와 언어가 부자유롭게 된다고 했고, 또 의학입문에서는 설종이 입안에 가득하여 기(氣)를 토하지 못하는 것이라 하였으며, 또 누영(樓英)의 의학강목(醫學綱目)에서는 설종이 조대(粗大)하고 겹차로 딱딱하여 지면서 입안에 가득차는 것이니 곧 치료치 않으면 죽는다고 하였다. 그리고 경악전서(景岳全書)에 따르면 종(腫)이 금시에 나무판과 같이 딱딱해지는 것이라 하였다. 해서 아마도 목설이란 설암 내지는 설염(舌炎)인가 싶다.

구설생창(口舌生瘡)은 구창(口瘡)과 설창(舌瘡)을 함께 일컫는 것으로, 증치요결에는 상초(上焦)의 열이 막혀 있기 때문에 발생되는 것이라 했고, 설기(薛己) 구치류요(口齒類要)에는 구창은 상초의 실열(實熱)과 중초의 허한(虛寒)과 하초의 음화(陰火)가 전변(傳變)한 때문에 발생된다고 하였으며, 석실비록(石室秘錄)에서는 심화울열(心火鬱熱)이나, 심경열(心經熱)이 그 원인이 된 것으로서, 돌연히 설창이 발생하여 황색의 이끼가 생기고 음식을 들기 어려운 것은 심열(心熱)이 그 원인이라 했다. 해서 이것은 아마도 전신의 피로 내지는 열성질환에 의한 구내염 내지는 설염을 뜻하는가 싶다.

저자는 향약구급방의 부록으로 향약 180종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있다고 이미 기술하였다. 그런데 그중에는

치과의학 부문에서 일반적으로 자주 사용하던 향약이 30종 정도 있는 점을 주목한다. 물론 그것은 치과에서만 사용하던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일단 고려시대의 치과의학을 연구할 때에는 계속 주목할 점이라 믿는다. 이를테면, 그 180종 안에는 지황(地黃)·인삼·백출(白朮)·채호(柴胡)·맥문동(麥門冬)·승마(升麻)·갈근(葛根)·길경(桔梗)·복령(茯苓)·치자(梔子)·박하(薄荷)·황령(黃苓)·모란피(牡丹皮)·반하(半夏)·형개(荊芥)·웅담(熊膽)·당귀(當歸)·현삼(玄參)·아교(阿膠)·에엽(艾葉)·작백(雀麥)·녹각(鹿角)·황단(黃丹)·호호(胡桃)·구기(枸杞)·포황(蒲黃)·마자(麻子)·마치현(馬齒莧)·도인(桃仁)·고호(苦瓠)·천초(川椒) 등등이다. 그 연구에 필요 자료가 부족한 치과의학 부문의 경우는 더 더욱 그러하다. 유의하며 또한 계속 주목해야만 될 점이다.

d. 향약구급방의 치과 관계 기록의 요약 및 특기할 사항

향약구급방에 기재된 치과의학 관계기록을 전체적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본서에 수록된 치과 질환 수는 약 25종이다. 즉, 충설·소아의 충설·목설·설증·구설생창란·설생창란·치감·아치동·치통·아통·우치통·치근종통·치아불생·치아선로정출·아치동요·구강건조·순창·순진면증·구순증·구금·아관진금·설반촉·치초 등이다.

치과질환에 사용된 각종 치료 약의 처방 수는 33종이다.

치통은 아치동(牙齒疼)·치통·아통·우치통 등 4종으로 구분해서 기록했다. 그런데 이러한 용어에 관한 설명은 전혀 없다. 이 점에 관해 최진환(崔鎭煥)은 이러한 치통의 분류법은 사실상에 있어 아무 구별을 찾아볼 수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저자는, 그 기재된 내용을 보면, 그것들을 엄연히 구분 기록한 점으로 미루어, 아치동·치통·아통·우치통은 그 내용이 다른 것이라 본다.

저자의 견해로서는, 아치동(牙齒疼)은 치아 우식증이 그 원인이 아닌 것으로서, 치아 경조직의 실질적인 결손은 없으며 그 동통의 중심이 치아에도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동시에 치은 부위 일례에도 광범하게 있는 쿡쿡쑤시는 동통이고, 치통(齒痛)은 치아 우식증이 아니면서 그 동통의 중심이 광범하며 치은 및 악골에도 있는 것이고, 아통(牙痛)은 그 동통의 원인이 치아우식증은 아니나 동통의 중심이 주로 치아 자체에 국한된 것이고, 우치통(齲齒痛)은 치아우식증으로 야기된 동통이라 본다.

또 하나 원문의 기록을 보면, 치감·우치·닉(치닉)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이것 역시 언뜻 보면 그 어느것이나 모두 치아의 우식증을 뜻하는 것같이 보이기도 하나 그러나 저자의 소견으로서는 그렇지 않다.

치감(齒瘡)이란 치아의 우식과 마모와 교모 또는 칩식 등등을 총괄한 광의(廣義)의 치아 경조직 결손을 뜻하는 것이고, 닉(齧)·치닉(齧)이란 치아우식와(齒牙齲蝕窩, Cavity)를 뜻하는 것이라 사료되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그 사용 한자(漢字)의 뜻을 고찰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치통 치료에 사용된 각종 약의 처방은 12개가 있다. 그리고 치통에는 작백(雀麥)의 사용이 좋은 것이고, 특히 부록인 방중 향약목 초부(方中藥藥目草部)엔 기록하기를 주치충(主齒蟲)이라 했다.

본서에서 특별히 주목되는 것은, 치아 우식증의 충전법(充填法)이 문헌상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발견되는 사실이다.

즉, 와동(窩洞)의 충전법으로 송지(松脂)를 사용했다. 이것은 우리나라 치과의학사상 특기할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문헌상 외국에서 와동의 충전을 가장 먼저 행한 것은 9세기 후반부터 10세기 초의 아라비아의 의사 Rhazes이다. 그는 유황과 명반을 혼합시켜 충전하였다.

또 이보다도 다소 뒤가 되는 11세기 전반인 역시 아라비아의 의사 Mesue the Younger는 물식자(沒食子) 또는 오배자(五倍子)로써 충전을 했다.

일설에 따르면 금箔(金箔)을 응용한 와동 충전은 이보다 더욱 앞선다 하고, 그것은 아라비아의 의사 Mesue로서 8세기 말이라고도 하며, 또 일설에 의하면 금충전은 15세기 이탈리아의 Joannes Arculanus라고도 한다.

또 하나 지적되어야 할 것은, 양치약의 사용이 구강보건의 목적으로 기재된 점이다. 이것 역시 우리나라 구강보건사상(口腔保健史上) 특기할 사항이다. 기록을 보면 치아 등요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양치를 하라고 했다.

외국의 경우 문헌상 최초로 치아 질환의 예방적 수단으로서 치마분의 사용을 권장한 사람은, 9세기 후반부터 10세기 초의 아라비아의 의사 Rhazes이다.

또 하나 주목되는 점은, 치통의 치료 방법에 있어 고대 중국에 있었던 그것과 극히 유사한 점을 발견하게 되는 점이다.

즉, 아통에는 붉은 찹질을 벽진 무우씨를 분말로 하여 그것과 인유즙(人乳汁)과 섞어, 그것을 우측의 아통일 경우는 좌측 비공(鼻孔) 안에, 또 그와 반대일 때에

는 또 그 반대측 비공에 넣는 방법이다.

이러한 방법은 일찌기 고대 중국과 인도에도 있었던 점이다. 뿐만아니라 또 치통 치료의 경우 해당 치아 자체만이 아니라 비공도 함께 세척하는 방법은 고대 인도에 있었던 점이다.

이러한 유사점에 관해서 그 상호간의 관련성을 규명하기는 용이하지 않겠으나, 그러나 금후의 하나의 큰 연구 과제일 것만은 틀림이 없다.

저자 자신이 유감으로 여기는 점은, 본서에 있는 약제의 처방법에 관한 여러가지 연구의 미흡이다. 이를테면, 약제의 성질과 그 분량의 결정법이라든가, 또는 배합의 방법 등등을 자세히 연구 규명한다면, 이외로 많은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될지도 모르는 점이다. 옛선인들은 흔히 그들 고유의 자연철학적 사상에 따라, 약제의 선택과 숫자적인 그 분량의 결정이나 조제법, 혹은 복약의 방법 등을 까다로우리만치 여러모로 배려했던 것이다. 저자는 이 방면의 연구 역시 이제부터의 과제로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라 본다.

그리고 또 하나 저자로서 주목하는 점은, 이미 향약구급방의 치과 관계 기록의 구체적 내용에서 기재한 바와 같이, 치과용 약의 조제법이 복잡한 사실이다. 이러한 사실은 곧 고려시대 중기의 조제학(調劑學)의 발달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여, 이 점도 아울러 금후 충분히 연구되어야 할 부문이라 고찰한다.

e. 향약구급방 간행의 배경과 그 의의

향약구급방이 간행된 배경과 그 의의로서는 대요 다음과 같은 것을 직접 내지 간접적 요인으로 지적할 수 있다.

1) 고려의 숭불책(崇佛策)이다. 불교는 고려의 국교로서 크게 발달되어 3차의 대장경 간행을 이룩하였다. 곧 그것을 통한 의약지식의 발달이다.

2) 관제(官制)의 정비이다. 고려는 내외의 관제를 정비하여 중앙에는 2성(省) 6부(部)를 마련하고, 지방에는 최초로 12목(牧)을 설치하여 외관(外官)을 파견하였을 뿐 아니라, 군사 제도에 있어서도 중앙과 지방에 새로운 조직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제도의 정비는 곧 지역적인 문화와 의학의 교류를 촉진시켰다.

3) 교육 기관과 과거 제도의 정비이다. 고려는 992년 국립대학으로 국자감(國子監)을 설치하여 일반 서민이나 낮은 관리의 자제에게도 교육의 기회를 주었고, 958년에는 의복과(醫卜科) 과거 제도를 시작하여 의학의 발달을 도모하였다.

4) 사학(私學)의 발달과 국학의 부흥이다. 최충(崔冲)이 구재학당(九齋學堂)을 세운데 비롯하여 그후 개경

에 이를 본 받아 사학이 연달아 건립되고, 또 숙종은 서적포를 두었고, 예종은 과학 부흥을 위해 칠재(七齋)를 설치하였으며 그의 재정 기반으로서 양현고(養賢庫)를 두었을 뿐 아니라, 인종은 지방에 향학(鄉學)까지 설치하였다. 이는 문치와 관료 주의의 표현이라고만 볼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한 의학의 발달과 보급이라는 면도 고려되어야 한다.

5) 국가 및 민중의 경제력 향상이다. 문화가 발달하여 귀족을 위시한 민중의 경제력이 향상됨에 따라, 송과의 무역은 물론 해외 여러 곳과의 무역이 증대되고, 각종의 보(寶)의 발달과 아울러 화폐의 주조도 있게 되었다. 곧 이러한 점들 역시 그 경제적 생활 수준의 향상에 따른 의학적 발달을 가져왔다.

6) 제지술과 인쇄술의 발달이다. 종이는 당시 해외와의 교역품 중에서도 붓·먹과 함께 주요 수출품이 될만큼 제지술과 생산력이 우수하였다. 우리나라 목판(木版) 인쇄술의 시초는 8세기인데, 송의 판본(版本)을 수입하므로써 그 영향을 받아 목판 인쇄술은 더욱 발달되어, 1234년에는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도 나왔다.

7) 상류 계급은 물론, 서민 계급의 민족적·정치적 경제적·문화적·군사적 모든 면에서의 자주(自主)에의 자각과 사회 각 분야에의 진출이다. 비우기 항몽 정책(抗蒙政策)과 항몽사상(抗蒙思想)의 대두는 결코 소홀히 다룰 수 없다.

8) 약제 생산력의 증대이다. 고려에 이르러서의 해외와의 무역권(貿易圈) 확대는 그 때까지의 내재적(內在的) 의약품에 관한 지식을 자극하여, 국산 약제의 개발과 그 생산을 크게 증가시켰다. 물론 여기에는 이와 동시에 민족적·정치적·경제적인 요인도 아울러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이를테면 외국산 약제의 구입으로 인한 쇠은(碎銀)의 해외로의 유출 방지, 또는 곡물과 배의 유출로 인한 경제적 빈곤의 예방 등이다.

9) 국민 전체의 의료 혜택에 대한 욕구의 증대이다. 그때까지 내재적(內在的)이던 전체 국민의 의료에 대한 관심은 사회 전반에 걸친 생활 수준의 향상으로 더욱 더 증대하였다.

10) 교통(交通)의 발달이다. 고려의 관제 정비 및 확충과 토지 제도와 조세 제도, 그리고 군사 제도의 발달은 물론 그 문화 수준의 향상은 동시에 교통로의 발달과 교통량의 증가를 보였다. 하여 새로운 지역 간의 의학적 지식의 교류와 약제의 유통이 촉진되었다.

11) 10세기 초부터 계속된 외국군들의 침략이다. 더우기 13세기 초반의 약30년 간의 몽고군의 침략에 대한 항쟁 의식과 그 항쟁 준비이다. 외국 침략자들의 유린

은 많은 병상자를 속출시켰으므로 더욱 많은 의약 지식의 보급과 그 수요의 증대를 해결하지 아니하면 안되었다.

12) 엄존한 민족 정기(正氣)이다. 고려사 전체를 보면 당시의 고려 지배층은 몽고(蒙古·元)에 굴복한 고난을 당하기는 하였으나, 그러나 그러한 지배층 안에도 민족적 자각과 정기가 엄연히 내재하고 있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13) 향약에 관한 연구의 진보이다. 외국산 약재를 향약재로 대신할 수 있을 만한 향약재에 관한 지식과 연구가 축적되지 않고서는 독자적 의서의 간행은 있을 수 없던 일이다.

이상 지적된 여러 요인은, 하나의 사회적이며 문화적인 큰 배경으로서 향약구급방의 간행을 가져왔는데, 이 중에서도 내재적으로 큰 역할을 한 것은 어디까지나 역시 국민의 민족적이며 자주적 정신이다.

그리고 본서 간행의 의의로서 지적되며 높이 평가되어야 할 점은, 위정자가 의약 부문의 진흥을 중요한 정사(政事)의 하나로 삼은 사실이다. 다시 말해서 의서의 간행을 국가적 사업의 하나로 삼은 점이다.

고종 재위(在位, 1214~1259) 시기라고 하면, 고종 4년인 1217년에는 거란족의 침입이 있었고, 그 다음해인 1218년에는 강동의 역(役)이 있었으며, 고종 6년 1219년에는 여몽협약(麗蒙協約)이 있어 몽고의 강압으로 고려는 막대한 공물을 바치지 않으면 안되었고, 이어 고종 18년 1231년에는 몽고의 1차 침입이 있었고, 또 그 다음 해에는 몽고의 2차 침입과 강화도 천도, 고종 46년인 1259년까지 몽고의 내침입은 무려 6차나 있어 국토의 황폐와 경제·사회·문화 전반에 걸친 파탄은 극도에 달하고 있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혼란 중에서도 의서는 간행된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결코 소홀히 평가할 점이 아니라 고찰된다.

또 이러한 간행의 사실은 바꾸어 말하면, 우리나라 의약의 발달은 정치나 사회적 혼돈에도 큰 영향을 받지 아니하며 계속 발달한 점을 지적 평가할 수 있다. 정치내지는 사회적 변동에 치명적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꾸준히 발달된 것이다. 물론 이 점에 대해서는 당시의 의사들의 사회적 지위가 알았기에 당연히 그러한 결과를 가져왔다고도 하겠으나, 그러나 그렇다고는 해도 이것은 의약의 발달을 국가적인 높은 차원에서 전체 국민이 회구한 결과로서 평가하는 것이 보다 정당하다.

C. 고려시대 말기 치과의학

고려 말기 (1,260~1,392)는 흔히 일반적으로 고려

의 국력 쇠퇴기라 한다. 고려가 안으로는 귀족들 사이의 파쟁과 무신란 등으로 사회적 혼란이 계속되고 있을 때, 밖으로 부터는 몽고의 침입이라는 커다란 시련에 봉착하였고, 또 신흥관(新興官吏)과 무관(武官)들의 세력은 성장하여 권문 세가와 신흥 사대부가 새로운 계층으로 등장하였다. 이들은 고려말의 사회 및 경제적 모순을 바로 잡으며 원문화의 잔재를 청산하려 하였으나 서로의 알뜰과 이성계의 등장으로 드디어 몰락한 까닭이다.

하지만 치과의학 부문에 있어서는 이러한 고려 왕조의 몰락과는 달리 새로운 발전 현상을 보였다. 다시 말해서 중기 후반부터 나타난 자주적 기운은 말기에 이르러 원의 치과의학과 비록 활발하지는 못하였으나 교류하게 되었고, 또 한편으로는 남방의 약재를 수입하면서 그것을 영구하여 우리 풍토에 맞는 약재를 다시 개발하여 몇몇 향약방서(鄕藥方書)를 편찬하므로써 의약 자립의 기반을 다졌다.

1. 원(元) 치과의학과의 교류

고려는 그 말기에 이르러 원(1279~1368)과의 국교에서 그 자주성의 큰 시련을 겪었다. 해서 그 여파 내지 영향은 의약 부문에 있어서도 매우 컸다.

고려는 충렬왕(忠烈王, 1275~1308) 때부터 왕비나 왕의 이환이 있을 때에는 의례 원의 의사를 청해야 했으므로 원의 의사들의 왕래는 자연히 많이 있게 되었고, 또 원의 세조(世祖, 1264~1294)와 성종(成宗, 1295~1306)의 치료를 위해 고려에서는 원의 요구에 따라 의사 설경성(薛景成)을 파견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해서 양국 의사들의 교류가 많게 되어, 표면상으로는 활발한 지식의 교환이 있었을 것 같으나, 그러나 어디까지나 그것은 원의 정치적이며 국가적인 압력에 의한 왕실간의 주종적(主從的) 교류로서 그 지식의 교환은 지극히 미미한 것이었다고 보는게 타당하리라.

그리고 양국의 왕실 간에 아닌 민간 의사들의 상호왕래는 문헌상 찾을 수가 없다. 이러한 사실은 당시의 고려의 항몽 사상(抗蒙思想)과 원의 침략으로 인한 신변의 안정성이 있는 교통로의 두절 등을, 고려할 때에 지극히 당연한 결과이기도 하였다.

원은 침략자로서 고려에 금·은·자기·나전칠기·포·목물 등을 일방적으로 요구했는데 의약품에 있어에도 예외는 아니었다.

고려는 원종(元宗) 8년인 1267년부터 문헌 기록 상으로는 공민왕(恭愍王) 8년인 1,359년까지 매우 빈번히 많은 의약품을 원의 요구에 따라 공물로써 보내지 않으

던 안되었다. 주로 요구된 것은 인삼·송자(松子)·목과(木果)·비실(樞實)등이었다. 한편 원에서 고려에 보내는 것은 이때금 간단한 답례로서 주로 향약(香藥)과 포도주이었다.

다시 말해서, 고려와 원의 치과의학의 교류는 있었던 것이긴하나, 그러나 그 내용에 있어서는 송 시대의 그것과는 비할 바가 아닌 것이었다. 즉, 의사들의 왕래는 많이 있었지만 그것은 왕실의 병을 치료하기 위한 제한된 것이었고, 의약품의 교류 역시 일방적인 원의 요구에 따른 공물로서의 헌상(獻上)이었으므로, 그 지식 교류의 정도는 미미한 것이었다. 하지만 상인들의 교역을 통한 의약품 지식의 교류는 그것 보다는 좀더 활발하였으리라 추정된다. 고려 말기에는 아라비아와 원의 상인들이 남방의 해로(海路)만 아니라 육로를 통해서도 교역을 확대하게 되었으므로, 비록 기록으로는 없지만 원을 거친 서방의 의약품이 고려에 다수 수입되었을 것으로 고찰된다.

원은 유럽과 아세아에 걸친 광대한 지역을 영유하며 더우기 그 조정에서는 서역의 색목인(色目人)을 중용하였기에, 당시의 아라비아 치과의학과도 접촉을 보게 되어 그 지식은 고려 후기의 치과의학에도 영향을 주었으리라 당연히 사료된다. 하지만 그 구체적 내용을 밝히기 까지엔 아직 충분한 연구가 되지 못했다.

원의 의학은 치과를 위시하여 이미 13과로 분과되어 있었다. 즉, 구치과(口齒科)·대방맥과(大方脈科)·잡의과(雜醫科)·소방의과(小方醫科)·풍과(風科)·산과(産科)·안과(眼科)·인후과(咽喉科)·정골과(正骨科)·금창종과(金瘡腫科)·침구과(鍼灸科)·축유과(祝由科)·금과(禁科)이다. 송대의 9분과 보다는 분과가 늘었다. 몽고족은 기사(騎射)를 잘하였으므로 골절의 치료가 발달되었다. 또 원에서는 의사시험이 3년마다 있어 8월에 국내 각지에서 시행하였다. 지방에서 그 시험에 합격된 사람은 그 다음 해의 봄, 북경에서 성시(省試)를 다시 치루었다. 그 시험 내용은 본초(本草)와 의경(醫經)이었다.

원의 의학은 송대부터의 유학(儒學) 영향을 받아 여러 학파(學派)의 분립(分立)을 보았다. 그러나 그것은 송과 금의 의학의 하나의 연장으로서 금 시대에는 유·장(劉·張) 학파가 나온데 이어, 원 시대에 이르러서는 다시 이동한(李東垣)과 주단계(朱丹溪)가 나와 각기 1파를 세웠다. 곧 이들을 금·원(金·元)의 4대가(大家)라 하며, 그때까지의 의방을 고방(古方)이라 하는데 대해, 4대가들의 의방은 후세방(後世方)이라 불리우게 되었다.

금은 중국 북부를 영유(領有)하면서 북송의 문화를 계승하였으므로, 금 치하로 들어간 한민족(漢民族)의 의사들은 화북 지방의 풍토에 맞는 의학을 주로 연구 발달시켰다. 그 대표적인 의사는 유하간(劉河間)과 그 후계자 이던 장자화(張子和)이다.

유·장학파는 송유(宋儒)의 영향으로 그 학설을 달리 하면서 분립한 것으로, 동양의학에서의 학파의 분립은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곧 이들을 한량파(寒涼派) 혹은 공하파(攻下派)라 하며, 그 내용은 화북의 풍토적 특성을 살리면서 발달시킨 의학으로서 그것은 그 주장에 있어서 다소 보편성을 잃고 있다고 지적된다.

그리고 이·주(李·朱) 학파는 원 시대의 화남 지역에서 발달된 것으로, 이동한은 전신적 영양의 증강과 체력의 증진을 중요시하였고, 주단계는 송부터의 의설들을 융합시켜서 일가전을 세운 것이다.

유·장·이·주 4학파의 주장은 그 지리적인 환경과 시대적 배경과 자연 철학관의 차이와 그리고 민족 내부의 종족 내지는 혈통 의식 등에 관련된 대립 등을 함께 고려하며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금·원 4대가의 의설은 당시에 즉시 고려에 전래되지는 못하였고, 그것이 전래된 때는 근세 조선 초기이다. 당시의 고려의 국력의 쇠퇴를 반영하는 것이라 하겠다.

원의 지배층을 이룬 몽고인은 의학에 관한 지식이 약했다. 그들은 도리어 고려의 의약품의 수탈로써 새로운 지식을 얻었다.

그들은 원종(元宗) 9년인 1268년 그들이 납치했던 고려인 김유(金裕)와 신백천(申百川)의 거짓된 말을 믿고 실제로는 있지도 아니한 약재인 유체인삼(有體人蔘)·실모송(失母松)·관음송상수(觀音松上水)라는 따위의 것을 공물로서 헌상(獻上)하라는 요구했던 일은 그러한 사실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다. 원의 치과 의학은 송과 금의 연장으로서 보아 타당하며 특기할 양국간의 교류는 없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할 점은, 원대의 음선대(飲膳大醫)인 홀사혜(忽欺慧)가 1330년(至順 1년)에 저술한 음선정요(飲膳正要 3권)에서는 취침 전의 치아 청소와 소금으로 치아를 청결히 할 것을 제창하고 있는 사실이다.

그 내용 및 원문은 이러하다. 즉, 무릇 아침에 이를 닦는 것이 밤에 이를 닦아 잇병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것만 못하다.

무릇 아침에 소금으로 이를 닦으면 평소 잇병이 없다.

凡清旦鹽刷牙不如夜刷牙, 齒疾不生. 凡清旦鹽刷牙, 平日無齒疾.

물론 본서가 고려에 전래된 확실한 기록은 아직 발견되지 못하나, 그러나 당시의 여러 사정으로 미루어 볼

때에 본서가 고려에도 전래되었을 점은 추정할 수가 있
으리라 사료된다.

여기서 또 참고로, 원대의 시인인 박옥(郭钰)의 시귀
에도 다음같은 것이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에, 송대
에 있었던 잇솔을 사용한 구강 청소의 관습이 원대에도
있었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러한 관습은 고려
에도 영향을 주었으리라 추정할 수 있겠다.

南洲牙刷寄來日, 去垢滌煩一金值.

이 시귀의 뜻은, 남주(地名)에서 생산되는 잇솔을 다
음날 부치니, 이것은 입안의 진 뭍은 때를 제거하며
번망증(煩忙症)을 씻어내니 귀한 가치가 있는 것이라
하는 말이다.

원의 여러가지 관습이 그대로 고려에 전래된 사실을
역사적으로 고려하면서 이 시귀를 볼 때에, 고려에도 이
와 같은 관습이 능히 전래되었으리라 추정할 수가 있다.
물론 그 명확한 자료는 아직은 얻지 못했으나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하겠다.

2. 남방 및 아라비아 의약품의 전래

고려 말기의 외국과의 무역은 중기의 그것과는 달리
주로 원을 통과하는 육로(陸路)에 의존하였다. 그런데
원의 국력이 쇠퇴하기 시작한 공민왕(1,352~1,374) 때
부터는 해로(海路)를 통한 그것이 다시 활발하기 시작
하여 남방 및 아라비아의 의약품이 전래되었다.

고려사에 따르면 남방 각지에서 공민왕 때에는 6회의
전래가 있었고, 또 공양왕(恭讓王) 때에는 1회가 있다.
이때 전래된 것들 중에서, 고려에서 생산되지 않은 의
약품은, 향약(香藥)·소목(蘇木)·호초(胡椒) 등이다.
해서 이러한 해외의 진귀한 의약품들은 고려시대 후기
의 의약적 지식을 발달시켰을 것으로 사료된다.

아라비아 의사로서 최초로 그 이름이 난 Rhazes(9세
기 중반)는 치아의 건강을 위해 호초(胡椒)와 오배자五
倍子의 분말로 치아를 마찰시킬 것을 권장했고, 또 치
근박엽과 그로 인해 야기된 동통에는 역시 호초·아편·
장미유(薔薇油)·봉밀(蜂蜜) 등을 응용한 진통법을 택
했다. 치통이 격심할 때에는 아편을 사용하기도 했다.

또 아라비아의 외과의사로서 유명할 뿐 아니라, 치과
의학과도 깊은 관계가 있는 Abulcasis(1050~1123)는
발치한 후에 포도주·초·소금 같은 것으로 함수할 것
을 권장했다.

포도주의 역사는 알콜의 역사보다 좀더 앞서는 것으
로 보는게 정설이다. 중국에서의 알콜의 역사는 주례(周
禮)에 따르면 약 4,150년 전인 하(夏)의 의적(儀狄)이

발명한 것으로 되어 있고 이것이 거의 정설이나, 포도주
는 이 보다 앞서 중동 아세아 지역의 고원에 이미 있었
던 것으로 보는 것도 통설이다. 장건(張騫?~113B.C.)
이 서역에서 중국으로 포도를 가져온 때는 한(漢) 시절
이다.

고려시대 말기의 의약품의 교역 상대 지역은, 남방은
주로 인도의 동남 해안에 위치한 마팔국(馬八國)을 위
시하여, 인도지나 중부에 위치한 부남(扶南·캄보디아)
중국의 동남 해안 일대와 유구국(琉球國) 등이다. 또 아
라비아라 하는 것은 아라비아만을 뜻하는 것은 물론 아
니고, 그곳을 중심으로 하는 중동 지방 일대를 포함하
는 말이다.

포도주가 장미수(薔薇水)·시립(舍利別)·증류수와
함께 의약품으로 사용된 것은 아라비아의학의 전성기
(9세기~14세기) 때부터 라고 하지만, 저자의 자료에
따르면 Hyppocrates(460~?)가 부인병으로서 구취가
있고 치은이 암색(暗色)을 띠우면서 진강하지 않을 적
의 함수제로 사용했다. 그리고 진기한 고려 말기에 남
방으로 부터 무역으로 전래한 호초도 그는 치통 료법의
주약(主藥)으로 이미 사용했었다.

알콜이 고려시대 말기에 아라비아로부터 전래되었는
나하는 점에 관해서는 아직 정설이 없다. 범행준(范行
準)은 알콜이란 그 어원이 Arag으로서 이것은 아라비
아의 말이고, 이것을 한역(漢譯)한 것이 阿利乞 또는
阿刺吉이라 하였다. 또 김두중(金斗鍾)은 알콜의 증류
법은 그 어원과 함께 그 증류용 기구까지 원을 통하여
고려시대 말기에 전래된 것으로 짐작된다고 한다. 김두
중은 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몇몇 문헌과 우리나라 말
을 지적하였는데 그 중에서 알콜의 증류법은 고려사에
따르면 공민왕(1352~1374) 때에 경상도의 원수인 김진
(金鎭)이 명기(名妓)들과 자기 부하들을 모아 소주를
들기 좋아하여 소주도(燒酒從)가 되었다는 기록이 있으
니 당시에는 이미 그것이 향간에 많이 알려져 있었음을
알 수가 있다고 하면서, 다시 언급하기를, 알콜의 증류
법은 원에서 발명했다는 설과 또 아라비아의 의사 Avic
enna(980~1037)라는 설이 있다고 그의 저서인 한국의
학사에 논술하였다.

3. 명(明)과의 의약적 관계

원은 명나라에 패하여 공민왕 17년인 1368년에 대도
(大都·北京)을 버리고 북으로 패퇴하므로, 금릉(金陵)
에 우거하던 한민족(漢民族)의 주원장(朱元璋)이 왕위

에 올라 국호를 명(1,368~1,662)이라 하니, 고려와는 그 다음 해인 1369년부터 국교가 이루어 지었다. 하지만 고려와 명의 관계는 원만하지 못했다. 공민왕은 1370년 지용수(池龍壽)와 이성계(李成桂)에게 명하여 오라산성(汚羅山城) 요양(遼陽)을 점령하여 그 땅이 원래 우리나라 땅임을 선포하였고, 명은 또 우왕(禡王) 14년인 1388년, 원 시절에는 쌍성 총판부 관할하에 있던 철령(鐵嶺) 이북의 고려 땅을 명의 직속령으로 하겠다고 통보하여, 당시의 조야에서는 명의 그러한 조치에 크게 분개하여 우왕 14년인 1388년에는 도리어 그 기회에 명이 점령하고 있던 고려령의 고토(古土)인 요동 지방을 수복하려고도 하였다. 그러나 이른바 위화도 회군(威化島回軍)으로써 끝났다. 명과 고려는 역시 주종(主從)관계의 국교이었다. 명(明) 시대의 의학의 발달은 별로 새로운 것이 없다. 하지만 그 지식의 보급에 있어서는 단연 금·원(金·元)의 그것보다 앞선다. 명의 의사로서 청대(淸代)에 편찬된 의술명류열전(醫術名流列傳)에 수록된 사람은 무려 914명이나 되고, 그들의 저술도 많다. 그 의서들 중에는 수십권 이상되는 전집 내지는 총서의 체제를 갖춘 것이 많다. 명대에는 송대의 의학을 그대로 계승하는 의사가 있는가 하면 또 금·원의 4대가의 학파를 신봉한 의사가 있었고 그들의 의설은 좀더 조직화 되었다. 이때의 각종 의설의 장점을 종합한 의사로서 유명한 이는 왕궁당(王肯堂)이다. 그에게는 증치준승(證治準繩)등 6종 120권의 저술이 있다. 명대의 대표적 의서로서는 유경(類經) 32권이 있다. 이것은 황제내경(黃帝內經)을 비롯하여 그후의 여러 의설을 조직적으로 연구해 그 내용을 분류하고 의학의 근본을 해명하려 힘쓴 것으로, 장개빈(張介賓)의 저술이다.

이 밖에 주목되는 의서로서는 처음으로 전본(傳本)의 진위(眞僞)를 비판한 의서인, 상한론조변(傷寒論條變) 8권이 방유집(方有執)의 저술로 나온 것이 있고, 또 본초학(本草學)의 결정판인 본초강목(本草綱目) 52권도 있다. 이것은 이 시진(李時珍)에 의해 1596년(天曆 24년)에 편찬된 것이다. 본서는 본초학을 집대성해서 그때까지 신비적 색채를 띠었던 이 분야에 관해서 처음으로 자연 분류를 가한 것이다.

본서에는 치아 증정용 아말감(銀膏)과, 치수 실험용의 아비산과, 치과용 약 150종의 약물이 기록되어 있다. 즉 본초강목에는 금궐요략(金匱要略)이나 외태비요(外台秘要)에 기록된 것과 같은 내용의 자연비(自然砒)를 이용한 치수 실험법이 기록되어 있다. 그 내용과 원문은 이러하다.

자연비(自然砒·砒霜)의 반량에, 초를 섞어서 풀과 같

이 만들어 가지고 나무그릇에 담아, 그것이 마르거든 칼로 끊어내어 좁쌀 크기로 하여 그것을 솥에 싸서 환부에 넣고, 그 다음날 그것을 들어내면, 벌레는 저절로 죽어 오래된 환자라도 3일을 지나지 않고 잘 낫는다.

砒霜半兩，醋調和如糊，罌內盛，待乾刮下，用粟粒大，線裹安齒縫，來日取出，有虫自死，久患者不過三日即癒。

이뿐 아니라 본초강목(本草綱目)에는 치아 질환에 있어서의 용염(戎鹽)의 적용(適用) 2예가 기재되어 있다. 하나는 당씨경험방(唐氏經驗方)으로서 풍열 아통(風熱牙痛)의 경우이고, 또 하나는 통변요법(通變要法)으로서 노아명목(牢牙明目)이라는 것이다.

풍열아통에는 청염(靑鹽) 1근을, 우선 괴화나무의 가지 반근과 물 4사발로써 달여서 그 물이 2사발이 되게 만든 물에 넣어 삶아서 말리고(煮乾), 다시 이것을 불로 태워서 갈아(攪研), 매일 치아에 대고 문질러고 또 눈을 씻는다 하였다.

또 노아명목(치아를 견고히 하며 눈을 밝게 하는 것)의 목적으로는, 청염 2량과 백염 4량을, 천초(川椒) 4량을 다린 물에 넣어 볶아서 말려(炒乾), 매일 이것으로 치아를 문질러고 또 눈을 씻으면 오래오래 치아 질환과 안질환에 걸리지 않는다고 하였다. 본초강목에서는 소금을 치과 질환과 골 질환에 약으로 쓰는 이유를, 신(腎)은 골을 주관하는 것으로서, 신에 귀(歸)하는 함(鹹·소금)은 치아와 뼈에 들어가는 까닭이라 설명했다.

명대의 의서로 치과의학 관계의 기록이 있는 것은, 본초강목 이외에, 또 설이(薛巳)의 저술인 구치류요(口齒類要)가 있다. 본서는 1529년(嘉靖 8년) 간행으로 그 내용은 풍부하지 못하나 치과 증례 보고가 있다. 바로 이것이 현존하는 중국 유일의 치과 전문 의서이다.

본서는 현재 3부가 중국에 있다. 그 내용은 구순부위의 전순(齒脣·脣瘡), 각 유형의 구창(口瘡), 각종의 치통과 실험환, 후비(喉痺), 후간잡증(喉間雜症), 각종의 경(鯁)과 오연(誤嚥)의 요법이다.

본서의 특색은 어느 질환이나 그 증례보고가 있는 점이다. 전순(순암)은 11증례를 보고하였으며 그중의 사망은 3 증례이다. 그리고 기록하기를, 환자가 이 병을 소홀히 하고 의사도 자세히 진찰하지 않으면서 그저 청열소독약(淸熱消毒藥)만 남용하며, 혹은 약선(藥線)으로써 결찰(結紮)하여 그것을 제거하려고 하면 도리어 악화되는 것이라 하고, 또 말하기를 사망하는 환자는 구순이 백색이 되는 예도 있고, 구순의 하부가 부어서 대추의 모양을 하게 되는 경우, 또는 변화상(翻花狀)의 종양이 되는 것도 있다고 기술했다.

그리고 이어 구창(口瘡)의 13증례와, 치통의 22증례

및 설질환 11증례를 보고 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치과질환의 요법은, 모두 환자의 전신 증세를 관찰하고 주로 내복약으로 치료할 것을 주장하며, 그 국소적인 요법에는 거의 언급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진실공(陳實功) 저술로서 1617년(萬曆 45년)에 나온 외과정종(外科正宗)에는 치과 질환의 요법과 함께 그림이 있다. 여기 기록된 것은 모두 10종이다. 즉, 진순(齙脣) 다물지(多骨疽) 주마잡(走馬疳) 순저(唇瘡) 아구창(鵝口瘡) 하악탈구(下顎脫臼) 담포(痰包) 중설(重舌) 순풍(唇風) 아감(牙疳)이 그것으로서 자세히 기록되었다.

명대에는 각분과 별로 전문적 역구가 진척되어, 특수 질병만을 전문으로 삼는 의사도 출현하였다. 이를테면 외과의 진실공(陳實功)·두진(疹疹)의 웅중인(翁仲仁)은역(癰瘻)의 오유성(吳有性) 등이 유명하다.

명대의 의약 부문은 전술한 바와 같이 새로운 발달은 거의 없고, 다만 전통을 고수하면서 그것을 계승하고 또 보급한다는 태도로 시종되었다.

저자는 이러한 현상은 어쩌면 지극히 당연한 결과이라 본다. 왜냐하면, 원대(元代, 1280~1367)에 몽고족에게 정복 당했던 한민족(漢民族)은 내재적인 맹렬한 배몽사상(排蒙思想)과 뿌리 깊었던 유교적 사상에 따라 한민족(漢民族)출신 의사들은 난세(亂世)를 피해 의술로써 은거(隱居)함을 미덕으로 여겼고, 그들의 전통적인 숭고적(崇古的) 사상은 더욱 더 항몽 사상과 더불어 강력하게 작용하게 된 결과, 그것이 원이 몰락한 다음 명대에 이르러 나타나게 된 까닭이다.

고려와 명과의 국교는 고려의 국론(國論)이 당시에 일치하지 못했던 점과, 명의 쇠퇴한 국력 등으로 원대(元代)보다 활발하지 못하여 의약 분야의 그것 역시 미미하였다. 특히 몽고의 침입에 따른 양국의 피해는 상당한 것이었기에 자연히 의약의 교류도 침체를 면치 못했다. 해서 당연한 결과이기는 하나 그에 관한 문헌 자료 역시 거의 없다.

다만 고려사에 따르면, 공민왕 18년인 1369년부터 공양왕 3년인 1391년까지 8회의 사신들에 의한 의약적 교류가 보이나, 그 기록 내용은 자세하지 않다. 고려에서 명으로 보낸 것은 주로 인삼이고, 명에서 보내준 것은 약재와 약방이라고 하는 것 외에 더 자세한 내용은 알 길이 없다.

또 우왕(禑王)에게는 전의(典醫)로서 중국인인 양종진(楊宗眞)이 귀화하였던 점이 확실하나, 그에 관한 자

세한 자료도 역시 없다.

4. 일본과의 치과의학적 관계

고려와 일본과의 국교는 원만하지 못했다. 해서 문헌에 기록된 그 의약적인 자료 또한 많지 않다.

여·원군의 제 1차 일본 정벌이 있었던 1274년과 제 2차의 그것이 있던 1281년 사이가 되는 1279년, 곧 충렬왕 5년, 일본의 당시의 연호 히로야스(弘安) 2년에 일본인 무주우(無住) 법사가 쓴 사석집(沙石集·쇼세끼슈우)에는 당시 이미 하도리·가라우도(齒取唐人)가 있었던 기록이 있다. 하도리·가라우도란 발치를 하는 한국인이라는 뜻이다. 당인(唐人·가라우도)이란 중국의 당나라 사람이라는 뜻은 아니고, 이것은 고려인(한국인)을 뜻하는 것이란 이미 정설(定說)이다.

그 원문의 내용을 우리말로 바꾸어 적으면 다음과 같다.

남도(南都·奈良)에는 한국인 치과기술자가 있었다. 어느 구두쇠가 벌레 먹은 이를 뽑으려고 그 의사에게 갔다. 이를 하나 뽑는데 2문(二文)으로 하기로 약속을 하고선 돈이 아까와 다시 1문으로 하자고 했다. 간단한 일이라 공짜로도 뽑아줄 수 있는 일이지만 그 심뽀가 피씹해서 1문으로는 뽑지를 않겠다고 그 이를 뽑는 사람은 말했다. 잠시 흥정을 해봤지만 끝내 못하겠노라 하니, 그러면 3문으로 치아 2개를 뽑으라 하여 그는 벌레도 먹지 않은 좋은 치아까지 뽑게 하였다. 마음 속으로 이(利)를 봤다고 느꼈겠지만 그는 아무 흠도 없는 치아를 잃었다. 참으로 큰 손해다. 이진 말할 바도 없이 어리석은 것이다.

이 문헌으로 추찰하면,

13세기에는 벌써 고려의 치과 기술자가 도일(渡日)한 사실을 알 수 있거니와, 아울러 그 사람은 치과 치료나 시술 혹은 치마분(齒磨粉)이나 구강 청소에 관한 지식과 기술도 지니고 있었을 점을 능히 짐작할 수 있겠다.

5. 의료 제도의 변혁

고려시대 말기에 이르러 충렬왕(1275~1308)은 원의 의료제도를 모방하여 각 의료 부처와 직명을 개칭(改稱)하였다. 그런데 그 부서명이나 직명은 그후 충선왕·충숙왕·공민왕·공양왕 때에 이르기 까지 매우 빈번히 바뀌었다. 저자는 빈번한 그 개칭에 따라 그 때마다 그 직위와 봉록도 승격 또는 강등이 뒷따른 점으로 미루어

보면, 이것은 곧 당시의 불안했던 정치적 사정으로 정치 행정 기구의 조직 개편이 자주 있던 하나의 여파(餘波)가 아닌가 한다.

당시의 의료 관계의 관서 기관명을 기록하면 다음과 같다.

사의서(司醫署 또는 典醫寺·太醫監)

봉의서(奉醫署 또는 掌醫署·尙醫局)

사선서(司膳署 또는 尙食局)

동서대비원(東西大悲院)

계위보(濟危寶)

혜민국(惠民局 또는 惠民典藥局)

그리고 지방 조직으로 있던 서경(西京) 동경(東京) 남경(南京)의 유수관(留守官)과 대도호부(大都護府) 방어진(防禦鎭) 등에 소속된 의료 조직은 그대로 계속되었을 것으로 본다.

또 의학의 교육 제도나 의과의 과거제도에는 큰 변혁이 없다.

하지만 구료(敎療) 제도에 있어서는 충숙왕이 1324년에 오랫동안 폐지되었던 혜민국·계위보·동서대비원을 다시 부활시켰고, 공양왕은 1390년에 혜민국을 혜민진약국이라 개칭하여 구료 사업을 강화시켰다. 이러한 사실은 당시의 국내의 정치적 경제적 여러 사정을 고려해 볼 때에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시책이다.

원의 침입과 간섭으로 고려가 정치·경제·사회 각 부문에서 입은 파탄과 손실은 대단히 큰 것이었다.

원은 고려에게 금·은·곡물·인삼·자기·나전칠기·포 등 막대한 물질을 공물로써 강요하여 그것은 모두가 농민의 큰 부담이 되었다. 하여 농촌 경제는 파탄이 되었고 농민은 착취와 질병으로 시달려 유민과 농노로 전락되지 않을 수가 없었다. 또 왜구의 침입과 또 국내적인 권문 세가와 신흥 사대부들 간의 대립 등은 더욱 사회적 혼란과 민중의 생활고를 증대시켰다. 해서 의료 구호 사업은 긴급한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없었다.

6. 충주 사고(史庫)의 의서 내용

사고(史庫)는 사적(史的)으로나 문화적인 가치로 보아 소중한 나라의 문서·문헌들을 불의의 변란 혹은 천지 이변 등을 피해 연구적으로 보관하기 위해, 지리적 으로 비교적 안전한 곳에 설치한 하나의 도서관 성격을 지닌 것으로, 이조 태종(1401~1418) 때에는 이러한 사고가 충주만이 아니라 성주(星州)와 전주(全州)에도 있

었다.

그런데 조선조 태종 실록 권 24에 따르면, 태종은 1412년 그때까지 충주 사고에 소장되었던 그것들을 나라의 역사를 기록하는 중앙 관서인 서울의 춘추관(春秋館)으로 모두 이장시켰다.

그때 이장된 것들 중에는 국내의외의 중요 문서·문헌들과 함께 의서도 9종이나 있다.

소아소씨병원 후론(小兒巢氏病源候論)

오장육부도(五臟六腑圖)

신조보동비요(新雕保童秘要)

광제방(廣濟方)

진랑중약명시(陳郎中藥名詩)

신농본초도(神農本草圖)

본초요팔(本草要括)

왕숙화맥결구의변요(王叔和脈訣口義辨誤)

황제소문(黃帝素問) 등이다.

이상 9종의 의서는 불행히도 현존하지 아니 한다. 해서 그 내용을 알 길은 없으나, 그러나 그 서명으로 미루어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점은 추리할 수가 있다.

1) 소아소씨 병원후론: 수(隋)의 소원방(巢元方) 등이 610년에 편술한 소씨 제병원 후설론 50권 중에서, 소아에 관한 부분만을 따로 떼어, 고려에서 간행한 것이 아닐까 싶다.

만일에 그렇다면 추정하면 수의 소원방(巢元方)이 610년(大業6年)에 저술한 소씨제병원후설론(巢氏諸病源候說論)은, 연대적으로 보아 고려 때에는 벌써 수입되었으리라 능히 추정할 수가 있다.

그렇다고 추정한다면, 본서에는 치과의학에 관한 기록만도 38론이나 수록되어 있어서, 고려 치과의학에는 많은 영향을 주었으리라 추찰할 수가 있는 것이다.

동서에는 우치, 치아정출(齒牙挺出), 치아동요, 치은루, 치아지각파민, 치간리간, 치아변색, 알치(軋齒)의 습관, 구각미란(口角糜爛), 아구창, 순열(脣裂), 구취, 홍독성구내염(汞毒性口內炎), 흘음(吃音), 하악관절탈구, 구순염, 이중설(二重舌), 구설출혈(口舌出血), 안면신경마비, 선천성치아결여, 구강건조증, 기타 각종의 구내염 등이 기록되었다. 그중에는 발치와 발치 후의 출혈에 관해서도 기술하였다. 따라서 본서가 충주 사고에 원본은 아니지만, 그 저서의 일부나마 뽑아 기록한 것이 있었다면 주목할 점이라 본다.

2) 오장육부도: 송사(宋史) 예문지(藝文志)나 혹은 송문총목(崇文總目) 권 3에 기재된 황제내경 오장육부도를 참고해 고려에서 간행한 의서가 아닐까 싶다.

3) 신조보동비요: 금(金)의 유하간(劉河間)이 저술한

유원소보동비요(劉元素保童秘要)를 참고해 고려에서 간행한 의서가 아닐까 싶다.

4) 광제방: 당(唐)의 현종(玄宗) 11년인 723년에 편찬된 현종개원 광제방(玄宗開元廣濟方)을 판본으로 고려에서 간행한 것이 아닐까 한다.

5) 진랑중약명시: 진랑중(陳郎中)이라는 의사가 많은 약명을 조리있고 기억하기에도 편하도록 시(詩)의 형식을 빌려 저술한 것이 아닐까.

6) 신농본초도: 당송(唐宋) 시대의 도경본초(圖經本草)를 참고해서 고려에서 간행한 판본이 아닐까 한다.

7) 본초요팔: 송(宋)의 장문의(張文懿)의 본초팔요시(本草括要詩)를 참고하여 고려에서 간행한 것이 아닐까 한다. 이것은 본초에 관한 지식을 노래 형식을 빌려 암송하기 쉽게 한 것이리라.

8) 왕숙화맥결구의변요: 송의 왕숙화맥결(王叔和脈訣)이라는 의서가 위서(僞書)임을 원의 제기종(戴起宗)이 지적하고 그 오기(誤記)를 지적한 의서로 추정되며, 그 원본 여부는 전혀 알 길이 없다.

9) 황제소문: 어느 때의 간행본인지 알 길이 없으나 김두중(金斗鍾)은 원대의 것이라 추정할 수 있겠다고 하였다.

7. 독자적 의서의 간행

고려는 그 중기부터 의학 분야에서의 독자적 연구와 의서 간행에 힘을 기울여 새로운 면모를 그 말기에는 보여 주었다.

이러한 우리나라 고유의 경험술방(經驗術方)을 수집하며 또 우리나라 산(産)인 약재를 사용하는 방서(方書)를 간행할 수 있게 되었다 함은, 곧 당시의 발달되었던 의학의 높은 수준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제 그 간행된 의서를 들면 다음과 같다.

삼화자향약방(三和子鄉藥方)

향약고방(鄉藥古方)

동인경험방(東人經驗方)

향약해민경험방(鄉藥惠民經驗方)

향약간이방(鄉藥簡易方)

진맥도결(診脈圖訣)

이상의 6종은 현존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진맥도결을 제외한 다른 의서는 조선조 초에 간행된 향약집성방(鄉藥集成方)에 그 내용의 일부가 인용되어 있어 어느 정도 추정이 가능하다.

1) 삼화자향약방: 본서는 고려시대 말기의 의사들이 널리 참고한 것이다. 이러한 점은 조선조의 태조 7년인

1398년의 간행인 향약제생집성방(鄉藥濟生集成方)의 권근(權近 1352~1409)의 서문으로 알 수가 있다. 즉, 향약제생집성방을 편찬할 때에 본서가 그 기초적 자료로서 귀중히 취급된 점이 거기 기록되어 있다. 뿐 아니라 향약제생집성방은 질병의 분류를 46항목으로 나누어 취급하였는데, 그 중의 28항목에서 본서의 기록을 190여 회 인용하고 있을 뿐더러, 또 부인과와 소아과로 나눈 편집 부문에 있어서도 본서에서 근 20회나 인용하고 있는 사실로써 능히 추정할 수 있다.

본서에는 치과 관계의 기록이 9종있다.

1. 중설(重舌)

녹각(鹿角)의 분말을 혀 밑에 넣어 두면 3~4일 후에 치유된다. 또 자이근(薺薺根)을 찢어 혀 밑에 발라도 된다.

2. 구설생창탄(口舌生瘡癰)

박하(薄荷)를 술에 담구어 그 물로 함수(含嗽)한다.

3. 순구파열(唇口破裂)

물목(栗木)의 두터운 껍질을 분말로 하여 뜨거운 물에 타서 바른다.

4. 구취(口臭)

구기(枸杞)를 달인 즙을 마신다.

5. 치감(齒疳)

이어달(鯉魚胆)을 술로 싸서 잇몸에 부친다.

6. 구비급감(口鼻急疳)

남전(藍澱)을 바른다.

7. 은탄출혈(齦爛出血)

승마근(升麻根)을 입에 문다. 또 다른 한가지로서는 들장미의 뿌리를 물에 달여 입에 물어도 된다.

2) 향약고방: 서명 그대로 본서는 순수한 우리 고유의 경험방을 엮은 방서로서 아마도 고려시대에 간행된 것일 것이다.

3) 동인경험방: 본서 역시 순수한 우리 고유의 경험방을 엮은 것임은 전기한 향약제생집성방의 서문으로써 명백하다.

4) 향약해민경험방: 본서도 우리 고유의 경험방을 엮은 것으로 고려의 대표적 방서임은 이태조 실록 권 2에 의해 확실하다. 이태조는 1393년 각 도(道)에 의학교수 1명씩을 파송하여 본서를 의생들에게 교수케 한 점으로 미루어 그 점은 명백하다고 본다.

그리고 향약제생 집성방에도 본서 중의 26개의 처방이 인용되어 있다.

5) 향약간이방: 본서는 조선조의 태조 7년인 1398년 향약제생집성이 간행된 직전에 나온 것이라 추정된다고 김두중(金斗鍾)은 주장하였다.

본서는 삼화자향약방의 내용들이 너무 간략하므로 더 추가해서 편술한 것으로, 조선조 초의 향약제생집성방 편찬 과정에서 그 기초 자료가 되었다. 그래서 본서 중의 50여 방문이 향약제생집성방에는 인용된 것으로, 고려의 대표적 방서이었다는 점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본서에는 치과 관계 방문이 6개 있다. ㉓

1. 치근공종통(齒根空腫痛)

송(松)과 백(栢)과 회(槐)의 가지를 태운 것을 벌레와 먹은 구멍 속에 넣었다가, 다시 그것을 빼내면 벌레가 나타나와서 치유된다.

2. 야구(鵝口)

정화수(井華水)에 밤송이 삶은 진한 즙을, 젓가락에 묶은 솜에 묻혀 바른다. 밤나무 껍질을 그렇게 대신 사용해도 된다.

3. 구창(口瘡)

포황(蒲黃)과 흙을 얹은 매미(蟬)의 허물의 가루를 꿀과 함께 시루 위에서 김을 쏘인 후 그것을 입안에 바른다.

남성(南星)을 초에 갈아 발바닥에 발라도 된다.

또 오채경(吳茱萸)을 태워 초에 타서 발바닥에 발라도 된다.

또 큰 밤을 삶아서 매일 먹어도 좋다.

6) 진맥도결 : 본서는 공양왕 원년인 1389년 정도전(鄭道傳)의 편찬이다. 이러한 사실은 이승인(李崇仁)의 진맥도지(診脈圖誌)에 의해 확실하다. 진맥도결은 주로 진단에 필요한 진맥법을 그림으로써 설명한 것이다.

저자는 이상의 의서 내용을 종합할 때, 고려시대 말기에는 대체적으로 그때까지의 중국의 의약적 지식을 참고로 삼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향약의 연구와 개발에 주력하였을 뿐 아니라, 조제법에 있어서도 우리나라에 맞을 독자적인 여러가지 배려를 가한 점을 지적할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중국의 진맥법이 이해하기 쉬운 도해로 간행되었음은, 곧 고려시대 말기의 치과 의학을 위시한 의학의 발달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고 있었음을 뚜렷이 보여준 것이라고 본다.

D. 고려시대 치과 의학 발달의 요약

우리 민족 고대로부터 내려온 단본이 주술적 성격을 지녔던 치과 의학은 고려시대에 이르러 불교적 또는 도교적인 색채가 가미되면서도 거의 그대로 성행되었다. 유학과 불교 철학의 발달은 지식 계층안에서는 가능한 것이었으나,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한 지성이 일단 치과 의학적인 진료에 임해서는 그들 계층조차 주술적인

범주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게 했다. 불교나 도교는 기복 신앙의 두터운 틀레를 지닌 것이었기에 그것은 치과 의학도 주술적 성격에서 크게 벗어나기를 힘들게 했다.

고려시대는 아직 치과 의학을 위시하여 모든 기술을 천시하는 경향이 농후해서 대체로 과학 기술 분야는 큰 발달을 보지는 못했다.

하지만 치과 의학은 비록 아직 일반 의학으로부터 분리되어 독자적인 발달을 보이지는 못하였으나, 그러나 의학 교육기관의 설립과 의서의 간행과 의업 과거 제도의 실시와 의사(醫事)제도의 정비 또 통문관(通文館·1276)의 설치 및 인쇄술의 발달로써 그 진흥을 기할 수가 있어, 고려의 치과 의학은 당시의 동양에서는 외국의 그것과 비교할 때에 상대적으로 단연 괄목할 수준에 이르고 있었다.

이제 저자가 이미 기술(既述)한 고려시대 초·중·말기의 그것을 여기 총괄하여 약기(略記)하면 다음과 같다.

1. 치아태생 및 발생학

치아의 태생 및 발생의 원동력은 업풍(業風)에 의한 다. 치아의 발생은 전신의 다른 골의 그것과 동일하여, 임신후 10주 내지는 21주째부터이다.

2. 치아해부학

연구치의 수는 32개이며, 치아는 치관부와 치근부로 구분된다. 치아는 골조직의 일부분으로서 치조골에 식립(植立)되었고, 치은에 의해 치아와 치조골은 보호된다. 치아에는 유치와 연구치의 구분이 있으며, 유치는 연구치와 교환된다. 치아의 형태에는 기형(畸形)도 있다. 선천적으로 무치증(無齒症)인 사람도 있다.

악(顎)에서는 수류맥(水流脈)이 시작되며, 설은 미각을 관장한다.

3. 치아비교해부학

코끼리·말·소·고기·개 등의 치아의 형태적 특증을 이해하였다.

4. 치과 의학 영역 질환의 수(數)

고려시대의 치과 의학 영역에서 인식한 질환 수는 대략 33개이다. 물론 문헌 상으로 볼 때에 그 질병명이 과연 어떠한 질병을 뜻하는지 그 명확한 설명이 없기에 그 중에는 중복되는 것도 혹시 있을까 싶다.

중설(重舌·重舌口瘡)

소아의 중설(小兒重舌·小兒重舌口瘡)

목설(木舌)

설종(舌腫)

구설생창란(口舌生瘡爛)

설생창란(舌生瘡爛)

치감(齒蠟)
 아치동(牙齒疼)
 치통(齒痛)
 아통(牙痛)
 우치통(齲齒痛)
 치근종통(齒根腫痛)
 우치(齲齒)
 치닉(齒齧)
 아치불생(牙齒不生)
 아치선로정출(牙齒宣露挺出)
 아치동요(牙齒動搖)
 구강건조(口腔乾燥)
 순창(唇瘡)
 순긴면종(脣緊面腫)
 구순종(口脣腫·緊脣·藩脣)
 구금(口噤)
 아관긴급(牙關緊急)
 설본축(舌本縮)
 치초(齒齠)
 아치풍동통(牙齒風疼痛)
 순구파열(脣口破裂)
 구비급감(口鼻急疳)
 은탄출혈(齲爛出血)
 치근공종통(齒根空腫痛)
 아구(鵝口)
 구창(口瘡)
 구취(口臭)

이상의 33종에는 물론 질환이라 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 것도 있으며, 또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 병명인지 확실치 않은 것도 있어, 이 점은 금후 계속 연구되어야 할 점이다.

5. 치아우식증 발생 원인

충치는 충으로 발생되며, 충은 치아의 치관부와 치근부 그리고 치은에 상주(常住)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그리고 충치 증세의 자세한 경과 과정 및 계발증 등에 관해서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으리라 추찰되거나, 또 충치는 체내의 풍(風)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인식하였다고 추찰된다.

6. 치통의 종류

치통은 5종으로 분류하였다. 즉, 아치동(牙齒疼)·치통(齒痛)·아통(牙痛)·우치통(齲齒痛)·아치풍동통(牙齒風疼痛)이다.

아치동은 그 동통이 치아에만 국한되지 아니한 광범한 찌르는 것 같은 아픔을 뜻하며, 치통은 그 동통의

중심이 치아에 국한 되었다 라기보다는 치은이나 치조골 부위에도 있는 것이고, 아통은 그 동통이 치아에 국한된 경우이며, 우치통은 치아우식증으로 인한 경우이고, 또 아치풍동통은 치주염으로 인한 동통이라 고찰된다. 다시 말해서, 아치동과 치통과 아통은 치아우식증이 아니면서 동통을 호소할 경우라 고찰된다.

7. 치과용 치료약 처방 종류의 수(數)

치과의학 영역에서 사용된 치료약의 처방의 종류 수(數)는 약 33개이다. 이 중에 치통(일반적으로 말하는 치통을 뜻함)의 경우 사용된 처방의 종류는 약 12개이다.

그중에서 대표적이라 할 수 있을 치아우식증의 경우 사용된 약의 조제법 혹은 약의 사용법을, 향약구급방에서 보면 다음과 같다.

① 옥리근(郁李根)의 백피(白皮)를 물에 삶아 그 뜨거운 농즙(濃汁)을 입에 묻다.

② 도인(桃仁)을 태워 그것을 환치(患齒)에 묻다.

③ 마야목(馬夜目)을 숨에 싸서 환치에 묻다.

8. 치과충진학(齒科充填學)

치아우식증의 경우 와동에는 송지(松脂)를 주형(錐型)으로 만들어 충전하였다.

문헌 기록으로서 아직 국내에서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이미 기록한 바와 같이, 여러 사실(史實)을 고찰할 때에 아말감 충전법도 인지하였으리라 능히 추찰된다.

아말감을 은고(銀膏)라 하고, 그것은 은박(銀箔) 백석(白錫) 그리고 수은(水銀)으로 처방된 합금이었으리라 고찰된다.

뿐만아니라 전술한 바와 같이, 역시 문헌 기록은 아직 발견되지 못했지만, 그러나 여러 사실(史實)을 통해 추찰할 때에 유향(乳香)을 주제로 하는 충전법도 인지하였으리라 추정된다.

9. 치주학(齒周學)

치아주위염으로서 치근의 노출이 있을 경우를 아치선로정출(牙齒宣露挺出)이라 하고, 그 치료법으로는 생지황(生地黃)을 나무절구에 찌는 다음, 거기에 소금을 섞고 다시 그것을 밀가루로 반죽하여 숯불에 구운 것에 또 사향을 넣어 분말로 만든 것을 해당되는 잇몸에 부쳤다.

아치동요(치아동요) 때에는 흑염(皂莢)을 태운 분말을 생지황즙(生地黃汁)에 타서 계란데(鷄卵大)로 반죽하여 다시 불에 태워 그것을 분말로 하고, 다시 거기에 생지황즙을 타서 태우기를 3회 반복한 후에, 그것을 분말로 하여 해당 치아에 부치면 신효(神效)가 있는 사실을 인식하였다.

10. 구강보건학(口腔保健學)

치아 청소(양치질)는 1일 2회, 조식으로 해야 되는 점

을 인식하였다. 양치약으로는 흠염(皁莢)과 정염(挺鹽)을 불에 태워 분말로 만들어 사용하였다. 그리고 잇솔의 사용도 인식하였으리라 추정되며, 그 잇솔은 현재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그것과 거의 동일한 형태의 것이었다고 추정된다. 또 동요치를 고정시키는 치료법으로서도 양치질을 하였다.

구취(口臭) 제거에는 구기(枸杞)를 달인 즙을 이용하였다.

11. 확실한 문헌 기록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이미 기술한 바와 같이, 문헌 기록과 여러 사실(史實)을 종합하여 고찰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점도 역시 그 추찰이 가능하다.

즉, 치과보존학 분야에서는 아비산을 치수 실활제로 사용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구강의과학 부문에서는 치아의 재이식(再移植)을 인지하였을 뿐 아니라, 발치 후의 출혈에 대한 지식을 충분히 인지하였고, 또 아비산을 이용한 발치법도 인지하였으리라 추정된다.

그리고 치아의 변색으로서 지방병성(地方病性) 반상치(斑狀齒)의 존재도 인식하였으리라는 추찰이 충분히 가능하다.

12. 치과 침료법(齒科鍼療法)

치과 질환의 침료법은 많이 이용된 요법의 하나이다.

치아우식증의 경우, 찬 것에 통증을 느끼지 않으면 족양명위경(足陽明胃經) 상에 취혈(取穴)하고, 찬 것에 시리면 수양명대장경(手陽明大腸經) 상에 취혈한다.

또 상악 치아의 동통일 경우는, 각손(角孫)·거교(巨膠)·영창(迎香)에 취혈하며, 그 맥기(脈氣)가 실(實)하면 사(瀉)하고 허(虛)하면 보(補)한다.

하악의 치통일 때에는 대장경(大腸經)에 취혈하며, 오한이 있으면 보하고, 그것이 없으면 사한다.

구갈(口渴)의 경우는 족소음신경(足少陰腎經)의 태계(太谿)에 취혈한다.

13. 침술의 지식을 통한 치아우식증의 진단법

치아우식증 대한 침술의 지식을 이용한 진단법으로서는, 양명맥(陽明脈)을 촉진해 보면 그 경맥 상에 열이 있는 부위가 있다. 그 부위가 좌측 경맥일 경우면 우치에는 우측에 있고, 우측이면 우치는 좌측에 있다.

또 치아우식증이 상악에 있으면, 그때는 족양명위경(足陽明胃經) 경맥 상에 열이 있는 부위가 촉진되며, 하악에 있으면 그 경우는 수양명대장경(手陽明大腸經)에 열이 있는 곳이 촉진된다.

14. 치과용 함수제(含嗽劑)

치과 의료용 함수제로서는 소금이 사용되었다.

치과 의료용 소금은, 본서 5종류가 있는 소금 중의 4종이다. 즉, 식염(食鹽)·광명염(廣明鹽)·용염(用鹽)·대염(大鹽)·노함(鹵鹹) 5가지가 있는 중에서 노함을 제외한 4종이다.

식염에는 해염(海鹽)·지염(池鹽)·정염(井鹽)·산염(山鹽)·수염(樹鹽) 등이 있다. 광명염이란 석염(石鹽)이며, 용염이란 호염(胡鹽)이고, 대염이란 과염(顆鹽)·天日鹽·河東鹽)이다.

용염에는 청염(靑鹽)과 홍염(紅鹽)이 있다. 전자만이 의료용으로 사용되었다. 북해(北海)의 소금은 청염이고 남해의 것은 홍염이다.

청염은 그 염분의 순도가 높아 애용된 것이다.

차(茶) 또한 저자는 치과용 함수제로서 이용되었으리라 추찰한다.

차를 함수제로서 고려시대에 사용한 확실한 기록은 아직 발견하지 못했으나, 삼국사기 10권에 의하면, 그것은 신라의 선덕왕 때에 대렴(大廉)이 당으로부터 그 종자를 가져와 지리산(地理山 智異山)에 심었던 것이다.

저자는 역시 그 기록을 아직은 찾지 못하였으나, 중국에서는 일찍부터 치충(齒蟲)은 쓴맛이 있는 것을 싫어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고찰되어, 그렇다면 차가 전래될 당시에는 그 효능(效能) 또한 동시에 알려졌을 것으로 고찰됨은 지극히 당연하리라 주장하며, 또한 연대적으로 보나 혹은 여러 사실(史實)으로써 미루어, 중국에서 차를 충치의 예방으로 인식하고 사용한 때가 문헌 상으로 1083년이니 만큼, 능히 고려에서도 이것을 사용하였으리라 추정한다. (본문 참조)

15. 치과 관계의 주문(呪文) 및 주물(呪物)

고려시대는 주술적 치과 요법이 널리 성행되었다. 그 대표적인 주문으로서 불경의 불설주치경(佛說呪齒經)을 들 수 있다.

그 원문은 다음과 같다.

南無佛南無法南無比丘僧南無舍利弗大目乾連比丘. 南無覺意.

名聞邊北方健陀摩訶衍山.

彼有虫王名差吼無在某牙齒中止.

今當遣使者無敢食某牙.

及牙根中牙根中牙邊虫.

不即下器中頭破作七分如鳩羅勤蟻.

梵天勸是呪南無佛.

令我所呪皆從如願.

이상이 주치경의 전문(全文)이다. 그러나, 여기서 구태에 엄격히 따지면, 주(呪)의 본문(本文)이라 할 수 있는 것은, 그 서두(序頭)의

南無佛南無法南無比丘僧南無舍利弗大目乾連比丘. 南

無覺意이다.

주문은 그 어떠한 것이나 모두가 그 뜻을 풀이하지 않는 것이 관례로 되었을 뿐더러, 사실 별다른 뜻이 거기에는 없다는 것이 정설이다.

하지만, 구태어 본문의 다음 부분을 풀이하면 다음과 같다. 듣자하니 북방 땅끝에는 진타마가연산(山)이 있고, 그 산에는 벌레가 사는데 그 이름은 치후무라고 부른다. 그 벌레가 지금 환자인 누구누구(환자의 이름을 여기서 부른다)의 치아 속에 와있다. 그래서 지금 곧 사자(使者)를 보내서 감히 그놈이 그 치아와 치아의 속과 치근 속을 파먹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벌레는 숨지를 말고 그 벌레의 머리는 깨져 칠분(七分)쯤 되기를 마치 저 구타근이라는 개미와 같이 되어라.

범천(梵天)이 이 주문을 내게 외우도록 권한다. 남무불(南無佛). 나로 하여금 주하는 바와 같이 모든 것이 원대로 되게 하소서.

16. 치과보철학(齒科補綴學)

1984년 현재까지 치과보철학 부문에 관한 기록은 발견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중국의 문헌을 통해서 볼 때에는 중국의 경우, 그 기록이 발견되는 때는 12세기 중엽 내지는 13세기 초(본문 참조)이니 만큼, 그 논리와 논증에 있어서는 무리하지만, 아마도 고려에서도 의치의 제작을 하였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으리라 고찰된다.

17. 구강진단학(口腔診斷學)

침술의 지식이 발달하여, 구강진단학 부문에서 철저한 발달이 있었다.

18. 치과의료용 기구

1984년 현재 치과의료용 기구에 관한 자료는 발견되지 못하였다.

19. 치과조제학(齒科調劑學)

치과조제학의 발달 수준은 매우 높았다.

고려시대의 치과의학은 치과해부학 보존학 보건의학 조제학 그리고 침술 분야에서 보다 많이 발달하였다. 그리고 국내에 소장된 각종 의서도 매우 풍부하였다고 추찰된다.

이상은 이미 기술한 바와 같이, 충분하고도 만족할만한 사료(史料)를 얻을 수 없는 여러 연구상의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 그 연구방법으로서 고려시대의 여러 사실(史實)과 현존하는 문헌을 자료로 삼아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그 여구를 시도하였다. 따라서 여기에는 다소 미흡한 점이 없지도 아니하나, 그러나 1984년 현재로서는 그 모든 점을 금후의 연구에 기대할 수 밖에는 없다. 다시 말해서 이상은 그 논리와 논증에 있어서 충분하며 만족할만한 것이 비록 못된다고도 할 수는 있겠으나, 그러나 저자는 우선 그 동안의 모든 자료를 토대로 삼

아 얻은 것을 일단 정리하였다.

Ⅲ. 결 론

고려시대 치과의학은, 고대로부터 전승된 전통적 민족 고유의 치과의학에, 다시 당시의 해외 각국의 그것을 흡수 동화시켜, 그 중기 이후부터는 독보적인 발달을 보였다.

저자는 본 연구에서 몇몇 새로운 사실(史實)과, 새로운 논점(論點)이 될 가능성을 내포한 점을 제시하고, 그에 관한 금후의 연구를 기대하였다.

주요 참고 문헌

1. 周大成：中國口腔醫學發展簡史，日本齒科醫史學會會誌，8：3，1981.
2. 山田平太：日本齒科文化史，日本齒科文化刊行會 1933.
3. 日本ライオン齒磨株式會社：ライオン齒磨 80年史 1948.
4. 戸出一郎：中國で口齒の醫療に用ひられた鹽について，第1報，日本齒科醫史學會會誌，8：2，1981.
5. 戸出一郎：同上，第2報，同上，8：3，1981.
6. 李英澤：우리나라에서 實用되어 온 人體解剖圖，서울大學校論文集，自然科學，第5輯，1957.
7. 金斗鍾：鄉藥救急方，圖書，第5號，1962.
8. 橘井清五郎：古刻之一異例 韓板鄉藥救急方，書誌學，6：6.
9. 金斗鍾：韓國醫學史(全)，探求堂，1975.
10. 金龍德：高麗 光宗朝의 科學制度 問題，中央大論文集，第4集，1959.
11. 李瑄根 外4名：國史概要，螢雪出版社，1978.
12. 周大成：明代の齒科專門書 口齒類要について，日本齒科醫史學會會誌，8：2，1981.
13. 鄉藥救急方：金斗鍾所藏 다이크로휘름(日本政府宮內廳所藏 原本撮影)
14. 福永勝美：佛教醫學詳說，醫藥社，1975.
15. 高麗史節要：民族文化推進會 1968.
16. 高麗史：延世大學校 東方學研究所 1955.
17. 瀬戸俊一：韓國齒學史についての一考察，齒學史研究，第2號，1969.
18. 三木 榮：日・鮮・中の醫學交流史烏瞰，齒學史研究，第4號，1971.
19. 今田見信：三木榮博士の 朝鮮醫學史及疾病史中の齒學記事，齒學史研究，1971.
20. 今田見信：日韓交流史からみる齒學，齒學史研究，第4號，1971.

룩소르의 역사적 산책

金圭炆*

지난 여름 구라파 여행의 마지막 하이라이트인 에집트를 생각하면 절로 신난다. Rome의 레오나르도 다빈치 공항에서 부터 무엇보다 미지를 향하는 호기심 아닌 다른 어떤 것이, 열사의 사막으로 이끌고 갔던 것 같다. 6.25 당시를 연상케 했던 카이로의 공항과 영원한 수수께끼와 세계 7대 불가사의인 기자의 피라미드를 뒤로하고 야간 침대차로 룩소르를 향해 나일강을 밤새도록 올라갔다.

광활한 사막 동쪽에서 멀건히 동터오르는 태양의 그림자가 퍼지면 저 회교도의 기도하는 소리와 기차의 광음이 이상한 조화를 이루면서 룩소르의 역에 도착 하였다.

그러나 이것이 웬일인가. 이제까지 말아보지 못했던 오물의 범세와 무표정 하며 자루같은 웃을 입은 그 옛날 영광을 누렸던 왕들의 후예들이 이상한 공포심을 야기해 몸을 도사리게 하였다. 마중 나온 현지 안내인은 좀처럼 알아 듣기 힘든 영어로 실세없이 떠드는 것이, 듣던 말던 자기할 것만 한다는 뱃장이고, 어쩌다 벽화 같은 손올대면 질색하는 유물에 대한 강한 애착을 나타냈다. 나일강을 파필루스의 갈매배가 아닌 모타 철선으로 유사 이전부터 흐르던 나일강을 건너 강의 서쪽 죽음의 도시 룩소르로 향했다. 얼마 가지않아 낮으막한 산처럼 보였으나 정작 사막중에서는 큰 산속의 왕들의 계곡에 도착하였다.

내눈에 비친 왕들의 계곡은 황량하였다. 이집트인들은 이곳에 유명들이 산다고 믿었다고 한다. 동굴처럼 되어있는 방들은 약탈당해 비어 있었고, 그 입구들은 웅하니 열려있어, 여우와 사막의 부엉이들과 박쥐들의 서식처가 됐다고 한다. 그러나 무덤이 약탈당했고 황폐하고 적막하다 하더라도, 그 소설같은 분위기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아직은 신성한 왕들의 계곡이고 감상적이거나 호기심 많은 사람들이 나처럼 이렇게 흐르자마자 미쳐 흐를 틈이 없이 말라버리는 건조하고 더운 이 계곡에서, 역사와 인간들의 흔적을 사랑하는 여행자들의 방랑이 시작되지도 하는 곳이다.

비반-엘-물루크에 있는 왕들의 무덤은 룩소르와 카

르나크의 강 건너편 즉, 나일강의 서쪽 제방에 있는데, 그곳은 신 제국의 거대한 주장과 사원 건물들이 있던 곳이다. 그 계곡은 지금도 사막인 광대한 지역의 일부로 화했지만 한때는 테베스의 거대한 공동고지로 번창했던 곳이 었다. 신제국 시기 동안에는 이 나일강의 서쪽에 지체높은 사람들의 시체를 묻기 위해 절벽을 깎아 무덤을 만들기도 했다. 이 모든 사건들이 3~4천년전의 단군 신화와 같은 맥을 하는 시절의 이야기이다.

이런 계곡들이 1천년후 그 계곡에서 초기의 기독교 은둔자들이 무덤의 통로에 몸을 숨기고 살았던 것을 알게됐다. 즉 장엄과 왕의 궁지가 초라한 빈곤으로 바뀐 었다. 왕의 값비싼 거주지가 은둔자의 오두막 집으로 좁혀 졌다고 해야 옳다.

왕들의 계곡에는 도둑질 당하고 수난당한 왕들은 포함해 40여개나 되는 왕들의 미이리가 나왔다고 한다.



룩소르 랍세스 2세 신전앞 외롭게 서 있는 오베리스크가 초라해 보인다.

* 서울 김규문 치과의원 · 대한치과의사학회 회원

이곳에서는 어느 집에서나 중요한 남자가 죽었을 때 여자들은 곧 머리와 때로는 얼굴에 까지 진흙을 바른다. 그리고 나서 시체는 집안에 남겨두고, 옷은 때로 묶고 가슴을 헤친채, 자신을 때리면서 시가를 돌아다닌다.

여자 친척들도 모두 다같이 따라한다. 이런 의식이 끝나면 방부처리 하도록 옮겨진다.

왕의 매장도 도둑질이라는 주체와 뗈 수 없는 것이 미라를 만드는 과정이다. 미이라를 뜻하는 Mummy라는 말은 여러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것은 12세기의 아라비아 여행가인 압드 엘-리티프가 Mummies가 이용으로 팔고 있던 것을 확인하고 그뜻은 역청 또는 유태인의 송진을 뜻하고 아라비아의 단어라고 한다.

투탄칸멘의 미이라 분석 결과, 이집트의 특별히 건조한 기후와 모래와 그리고 공기중에 세균이 없다는 사실, 이집트의 미이라를 놀랄만큼 잘 보존하고 있다고 한다.

관에 넣지도 않고 투탄칸멘처럼 내장도 뇌도 빼지 않았는데도 모래 무덤에서 그대로 미이라가 나오기도 했다고 한다. 시체는 보통, 뇌는 콧구멍을 통해서 금속 고리로 꺼냈다. 복장은 돌칼로 열어서 부드러운 내장들을 꺼냈다. 또 하나의 다른 방법은, 항문으로 내장을 꺼내는 것이었다. 이런 두경우 모두 다 내장은 소위 덮개달린 항아리나 큰 그릇에 보존하였다.

심장을 꺼내고 대신 감층석을 넣었다. 그뒤에 유해는 잘 씻어서 소금물속에 한달이상 담가두었다. 마지막으로 시체를 건조 시켰는데 어떤 경우 70일이나 계속했다고 한다.

소금에 절여진 시체는 여러 겹으로 포개어진 나무판 속에 넣어서 다시 석판에 넣었다.

이나라 사람들은 죽은 뒤의 생활이 살았을 때와 똑같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고지에는 미이라와 함께 음식물의 복 가구 등을 넣었을 뿐 아니라, 사자의 시중을 들어줄 인형을 마련하는가 하면, 피라밋, 내부에는 번소의 설비까지 했다. 이 사자의 부장품속에서 빼 놓을 수 없는 것이 사자의 글이다. 이것은 사자의 저승 안내서이기도 했

다. 그많은 왕들의 묘중에서도 완전 무하결게 발굴된 투탄칸멘의 묘를 안 볼수 없는 백미 중의 백미였다.

이집트 고대 왕중 가장 어린 왕인 투탕가멘의 분묘는 1922년 11월 카나본과 카터라는 두 고고학자에 의해 발견 발굴에 성공하였다.

이 분묘는 비교적 허술하게 입구를 막았던 흔적을 볼 수 있고, 그들은 우연히 이곳을 지나다가 산 밑이 자연스럽기는 하지만 약간 이상스러워 파기 시작하여, 바로 한쪽 벽위에 왕의 이름이 새겨있고, 곧 굴이 뚫리면서 벽일대가 원색으로 아름답게 채색된 것을 발견 했는데, 지금도 그 독특한 현란한 색은 이국의 방랑자에게 무한한 숙연함을 주고도 남았다. 그곳에서 바로 황금석의 3중으로 된 미이라 관이 나와, 현재도 그중에 하나가 엄숙하게 누워있다. 이 엄청난 인간의 지나간 발자취가 역사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게 경의의 감을 받기에 충분하여 피곤한줄도 모르고 미이라의 저주(?)속에 깊숙이 들어간 것이다. 어떤곳의 벽화나 상형 문자를 보면 아직 미완성으로 그친 것이 많아, 너무도 원색이 뚜렷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마치 화공이 금방 일을 하다가 잠깐 불일을 보려간 것 같은 착각마저 일으키게 한다.

이처럼 찬연한 원색이 3천 500여년 전에 만들어지다니 그러나 그것들은 건조한 사막 기후여서 습기로 말미암아 부패나 변질이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왕가의 계곡 옆에있는 3,500여년 181대 왕조의 여왕 생존에 지었다는 바하리의 신전을 말 안할 수 없다. 이 신전은 절벽 아래를 반원형으로 파고 3단계로 지은 것으로, 벽에는 사냥하는 것 추수하는 것과 같은 일상의 여러가지 실생활이 부각되며 잘 보존되어 있어 섬세한 여인의 벽화로 유명했다.

카이로로 돌아오는 동트기전의 기도 소리가 귀에 맴도는 룩소르의 아침은, 어찌된 먼 이국의 땅갈지 않은 생각은 그어마 어마한 유적 때문만은 아니리라.

돌아오는 비행기 속에서 바라다 보는 사막은 방금 전에 커다란 물 난리가 난것 같은 거대한 물 흐름을 볼 수 있어 그런 옛날의 나일강 범람을 혼자서 상상해 본다.

우리나라 치과출판에 관한 연구

제 2 편 대한치과의사협회의 초창기 신문변천과정 특히 조선치계 (朝鮮齒界)와 구강과학회보(口腔科學會報)에 관한 검토

李 丙 台*

차 례

서 론

검토자료 및 방법
朝鮮齒界 第四號
第十號
第十一號
第十二號
口腔科學會報 第十三號
第十五號

국가사회적 환경

평 가

참고문헌

서 론

신문이란, “사회에서 발생한 사건의 보도·비판을 신속하게 또 널리 전하기 위한 정기 간행물이다. 또한 관심의 일반성(一般性)에 의해서 특징지어지고, 집합적·다양적(多樣的)인 내용을 가지며, 일반에게 보급할 수 있도록 된 기계적 복제(複製)의 간행물이다. 대개는 일간(日刊)이나, 주간·순간(旬刊)·월간인 것도 있으며, 기관지·전문지·일반 상업지 등이 있다.” 이처럼 정의하고 있다¹⁾.

세계적으로 최초의 신문은 1609년 독일에서 발행되었고, 우리나라에서는 1896년 4월 7일 “독립신문”이 처음으로 발행되었다.

이 “독립신문”은 구한말인 건양(建陽) 1년 독립협회의 서재필(徐載弼)·윤치호(尹致昊)가 순한글 신문으로 발행했다. 이것은 또 순수한 민간신문이었고 4면중에 4면만은 영문판이었는데 그 제목을 디 인더펜던트(The Independent)라 하였으나 1898년 11월 독립협회의 해산과 더불어 폐간되었다.

이렇듯 우리나라의 최초신문에 비하여 꼭 50년, 세계적인 기록과는 337년의 차이가 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치과개원이 전래된 역사는, 1893년 6월 30일 일본치과의사 노다오지(野田應治)가 처음으로 인천에 개원하였다는 기록으로 보아 우리치과의원 역사는 현대적인 치과의학개념으로 본다면 100년에도 못미치고 있다. 또한 1945년까지는 일본의 지배속에 있었으므로, 순수한 국인의 두뇌와 행동만으로, 공공연하며 떳떳하게 발표하고 이뤄진 것이 없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왜정때의 치과계에 대하여 자료를 검토하고 그 역사적 실태를 파악하려는 신재의(辛在義)의 논문제목에서 볼 수 있듯이 그 표현을 “暗黒期(암흑기)의……”라고 하였다²⁾. 이러한 암흑기에서, 우리는 우리의 땅에서,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생각과 활동을, 우리의 손으로 펴지 못하였던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시기에도 이른바 조선치과의사들이 활약을 하고 있었으며 그 역사가 오늘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다.

과거를 돌이켜보고 회고하는데 있어서나 현재를 파악하고 미래를 구상하는데 있어서는 기록과 저술에 의한 것이 최대로 효과적이며 실질적인 것이다.

한 분야의 평가는 그 분야에서 발간되는 출판물에 의한다 해도 과언은 아니다³⁾.

치협기관지로서의 신문에 대하여 발간되어져 온 그 내력은 물론이며 당시의 치과계 상황을 기록하는 일은, 시대적으로나 자료를 정리한다는 것만으로도 그 의미가 적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래서 저자는 대한치과의사협회의 초창기 신문을 검토하였다. 먼저 조선치계(朝鮮齒界)와 구강과학회보(口腔科學會報)에 대하여 단기 4279년(서기 1946년)부터 단기 4282년까지 4년간의 신문을 수집·복사·정리하는 동안에 얻어진 내용을 게재하였다. 평소부터 꼭 해보고자 하는 생각에서 시도 하였으며 여기에 그 기록을 남기는 바이다.

* 대한치과의사학회 부회장, 대한치과보철학회원, 월간 치과연구발행인, 이병태치과의원장, 경희치대외래조교수

검토자료 및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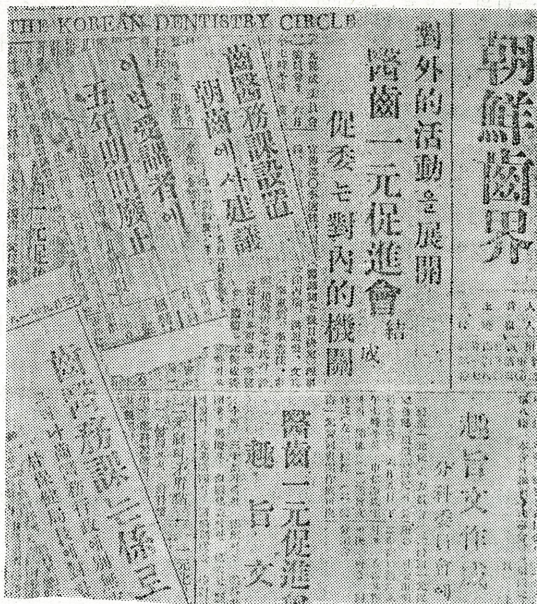
검토 자료는 이 논문의 차례에 게재된 조선치계(제 4호·10호·11호·12호)와 구강과회보(제13호·15호)로 하였다.

검토 방법은 먼저 호별로 연대순으로 하였으며, 각면마다 기사를 소개하였다. 기사의 순서는 1면·2면·3면·4면으로 하였고, 또 우측 상단에서 좌측하단으로 그 순서를 정하였다. 그리고 시사성이 있거나 참고 자료가 될 내용은 한글로 옮겨 놓았다.

□ 朝鮮齒界

원래 조선치계는 잡지로 시작하였다. 그리고 제 2호부터 타블로이드판 크기인 신문형태로 체제가 바뀌었다³⁾. 1946년 5월 1일(1946.7.2 인가번호 137)에 창간호를 내고 발간하던 중 1948년 5월 24일 조선치과의사회 제 3회 정기총회에서 조선치계를 인수하기로 결정했다⁴⁾.

이런 점에서 볼때, 조선치계란 애초 순수 민간 잡지로 출범하였고 잡지의 운영이 어렵고 신문의 발간이 순조롭지 못하자, 제 9호까지 내고 제10호부터 조선치과의사회의 기관지로 되었다(사진 참조). 치과의사가 아닌 발행인 황영기(黃英基)와 편집인 최효봉(崔曉峯)에서 발행인은 조선치과의사회장 김용진(金溶潐)으로 바뀐다.



4호 (1947년 6월 15일)⁵⁾

【1면】

*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회의실, 서울 중구 소공동 111번지, 한국은행위: 현재는 철거되었음.

기사 1. (머리기사) 대외적활동을 전개/醫齒一元 促進會결성/측위는 대내적 기관

醫齒一元促進委員會 제 1 회를 6월 4일 하오 7시부터 치내 회의실*에서 개최, 문기옥(文基玉)·신인철(申仁澈)·손홍배(孫洪兌)·서병서(徐丙瑞)·이동환(李東煥)·김용진(金溶潐)·홍사근(洪思根)·이형주(李迺柱)·임형준(林榮俊)·최희중(崔義鍾)·배진극(裴珍極)·김연호(金然浩)·유복진(劉福辰)·등 제위원 참석하에 개최선언이 있는 다음 개최사에 신인철씨, 임시집행부선거에 의장 문기옥씨 서기 최희중씨취임한후 토의사항에 들어가 1.醫齒一元촉진회결성의 전-조선치과의사회내에醫齒一元촉진위원회가 有하야 대내적으로 활동하겠으나 대외……(보관 신문의 파손으로 1단 2행정도를 읽어볼수 없음)…醫齒一元의 목적을 가급적 시급히 또는 원만히 진행하자면 일반의사와 일반인사를 포함한 “醫齒一元化 촉진회”결성의 필요를 느끼게 되어 토론한 결과, 만장일치차결. 2. 醫齒一元化촉진회칙안 심의의견-左記(다음의 기사 3.)와 如히 가결.

기사 2. (社說)“하나의 革命”이란 제목으로 醫齒一元化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내용이 원고지 4매 정도의 분량, 4단으로 왼쪽 상단부터 세로로 게재되어 있다.

기사 3. 醫齒一元促進會 會則

第1條 本會는 醫齒一元促進會라 稱함.

第2條 本會는 醫師, 齒科醫師의 二元制度를 一元制度로 改革함을 目的으로 함.

第3條 本會의 存續期間은 第2條의 目的達成時까지로 함.

第4條 本會는 本部를 서울市에 置하고 各道에 支部를 置함.

第5條 本會의 會員은 醫師, 齒科醫師를 正會員으로 하고 本會의 目的을 贊成하는분을 贊助會員으로 함.

第6條 本會의 任員은 下記와 如히 置함.

名譽會長 1名(醫師)

會 長 1名(齒科醫師)

副會長 2名(醫師, 齒科醫師 各 1名)

理 事 若干名(醫師, 齒科醫師同數)

常務理事 若干名(齒科醫師)

顧問 若干名

第7條 本會의 經費는 義捐金으로 此를 充當함.

第8條 本會의 細則은 理事會에서 別途 此를 定함.

3. 醫齒一元促進委員會部署=다음과 같이 決定

▲ 委員長 신인철(申仁澈)

▲ 總務部○서병서(徐丙瑞)·유시학(劉時學)·김재천(金載天)·한동철(韓東喆)

▲ 組織宣傳部○이형주(李迪柱)·최희중(崔義鍾)·박중문(朴鍾文)·김연호(金然浩)·양승범(梁承範)·홍사근(洪思根)·김한경(金漢慶)

▲ 調查研究部○조호연(趙昊衍)·김문조(金文祚)·김연호(金然浩)·손홍배(孫洪兌)

▲ 財務部○이동환(李東奐)·유방섭(柳邦燮)

▲ 外交部○문기옥(文箕玉)·유복진(劉福辰)·임영준(林榮俊)·김연권(金然權)·김은중(金殷鍾)·안병식(安炳植)·박부영(朴扶榮)·배진극(裴珍極)·김용진(金溶鎭)

▲ 連絡部○홍사근(洪思根)·한동철(韓東喆)·이운경(李雲經)·이성민(李聖民)·조용기(趙鏞起)·최희중(崔義鍾)(○印 責任委員)

4. 醫齒一元促進會 任員選舉=우선 會長에 신인철 副會長에 조호연(醫師側은 後日決定) 理事는 서병서·홍사근·문기옥·이동환·이형주·신인철·조호연 등 7명이 銓衡決定하기로 可決, 常務理事는 醫齒一元促成委員會를 參考로 選定하기로 可決.

5. 醫齒一元趣旨書는 總務部, 組織宣傳部에 一任하기로 可決

6. 總務及 組織宣傳分科委員會는 6월 5일 하오 7시 신인철위원장실에서 개최하기로 가결하고 하오 10시 閉會.

기사 4. 취지문작성/분과위원회에서

醫齒一元促成委會總務部, 組織宣傳部の 分科委員會는 6월 5일 하오 7시 신인철위원장실에서 開催 ① 趣旨文作成 採擇 ② 醫齒一元 贊同書案作成키로 가결. ③ 醫齒一元促進會事務所는 서울市 明洞 2街 82 申齒科醫院으로 決定하고 看板도 作成하기로 可決한 다음 동 9시 30분 閉會.

기사 5. 醫齒一元促進會 趣旨文

우리 3千萬겨레의 渴望이던 美蘇共委의 再開를 契機로 祖國建設이란 偉대한 歷史的 瞬間에 있어 先進諸國의 諸般制度를 檢討하여 그 長短點을 버리는 同時에 朝鮮 現實態에 適合하도록 모든 制度를 確立하여 實現하므로써 最短期內에 先進國家에 比肩할 수 있는 水準까지 到達할 수 있을 것이다.

此際에 保健部門에 있어서 一考한다면 過去 日帝殘滓인 醫師와 齒科醫師의 區分된 矛盾法規의 二元制度가 兩立하여 있음으로써 際實에 있어서 國民保健上 國民全體에 莫대한 支障과 惡影響을 주는 일이 非一非再이다.

此點에 있어 우리 3千萬겨레도 그 누구나 否認치 못할 것이다. 이러한 非合理的이며 矛盾된 것을 熟知하고 있음에도 不拘하고 오늘날 또다시 이것을 踏襲하려하고 傍觀 혹은 默過하는 傾向으로 흘러감은 建國大業을 위

하여 寒心한 事實이다.

새로운 國家建設에 이바지할 任務가 有한 우리 3千萬겨레는 此를 痛感하지 못하겠노라 더우기 國民保健을 擔當한 醫人一同은 多角度로 檢討批判을 거듭하고 研究에 研究를 加해서 矛盾된 現在의 二元制를 一元制로 改革하지 아니하면 아니될줄 確信하노라 그러므로 同志의 結合과 目的을 達成코자 本會를 組織하게 되었아오니 斯界는 勿論이요 江湖諸賢의 많은 指導와 鞭撻을 바라오며 本會趣旨에 贊同하시고 積極協助하여 주심을 大望하는 바이다.

기사 6. 二元制의 矛盾點

1. 醫師로서 齒科醫學은 齒科醫師의 任務로만 誤認하므로 此를 等閑視하고 齒科 口腔科學에 對한 學術과 技術이 不足하여 結局 一般國民이(齒科醫師 없는 地方) 莫대한 被害를 입는 點.

2. 齒科醫師의 教育制度가 一般基礎醫學은 勿論이요. 藥理, 病理, 內科, 外科 등의 科目까지 習得시킴에도 不拘하고 現下 矛盾된 齒科醫師法規에 依하여 診療行爲를 制裁하므로써 口腔疾患에 對한 完全診療를 制止함은 齒科醫學의 發展을 막으며 純純히 技工部門으로만 發展케 함이니 此는 醫師의 本意에 矛盾이 되며 齒科醫學의 향상발전에 막대한 지장이 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퇴보를 하는 것이다.

기사 7. 一元化의 對策.

1. 各醫科大學에 齒科 口腔科學講座를 增加시키는 同時에 齒科學教室을 完備할 것. 2. 齒科專門醫는 醫科大學卒業後齒科學教室(或은 大學院齒科專攻科)에서 一定한 期限에 補綴, 矯正材料, 冶金學에 對한 特殊한 學術과 技術을 專攻케 할 것. 3. 齒科醫學을 醫學의 一分科로 確立시키는 同時에 醫師法規도 單一化시킬 것. 4. 過渡期에 殘存한 醫師, 齒科醫師에 對하여는 特殊한 資格試驗制度를 特設할 것.

기사 8. 社告

本紙는 朝鮮齒科醫師會 要請에 依하여 齒科醫師 各位게 本號부터 無料配付하오니 住所, 醫院名, 姓名記入하시와 受讀申請하심을 바랍니다.

但, 二號 三號代金は 徵收하게 되었아오니 서울市內는 서울市 淸進洞一三番地 天一齒材公社로, 地方은 서울市 靈泉洞六七番地一號 三京齒科商會로 納金하여 주심을 仰望하옵니다.

六月十日 朝鮮齒界社

조선치계는, 대한치과의사 협회의 전신인 조선치과의 사회의 기관지로는 10호부터이다. 11호와 12호를 썼는데 월간이라고는 했으나 발행날자를 보면 그렇지 못했

다. 다음에는 기관지로 된 10호·11호·12호의 면에 따른 기사 제목을 열거하였다.

제10호(단기 4281년 6월 10일)⁶⁾

【1면】

기사 1. (머리기사) 朝齒定總에서 의결된／四個條를 保健후생부에 건의.

조선치과의사회 제3회 정기총회에서 결정된 것을 회장총무가 보건후생부 후생부장을 방문하고,

1. 금배급에 관한 건.

가, 치과의료용 금배급을 등급제로 하고 그 등급은 ABC 3등급으로 등급차는 10瓦으로 하고 한지치과의사는 C급에서 四〇瓦差를 두어서 배급할 것. 나. 배급등급 사정은 서울시는 서울시 후생국 기타 각 도후생국과 그 도치과의에게 사정 배급 할 것.

2. 약품배급에 관한 건.

약품배급은 서울시를 위시하여 각도후생부 약무과에서 직접 배급하고 조선 치과기재주식회사를 경유하여 배급하지 않도록 할 것.

3. 전기사용에 관한 건.

치과의료상 전기사용은 일시도 정전을 불허하는 현상임은 공인된 사실이나 근간 정전으로 인하여 막대한 지장이 유하오니 치과의원은 특별한 조치로서 의료상 지장이 없도록 후생당국에서 진력하여 주시기 바람.

4. 한지치과의사 배치에 관한 건.

금번 새로 나오는 한지치과의사배치는 원칙적으로 무의존에 배치하도록 할 것. 치과의사가 다수 존재한 도시에나 배치함은 한지치과의사의 성격을 무시한 것으로 사료하오니 급속진척할 것. 이상과 같이 요청하였다.

기사 2. 약품배급은 /도 약무과에서

기사 3. 口腔衛生強調／週間六月九일부터

기사 4. 齒科醫師 시험 합격자

기사 5. 한지치의시험／제2부 합격자

기사 6. 제4회 금배급／가격은 6백 50원

남조선 과정(過程)보건후생부 의정국 치의무과장 원제신(元濟辛)씨 담에 의하면 제4회 치과의료용 금배급은 6월중순경에 있으리라하며 가격은 一瓦당 6백 5십원으로 전회보다 瓦당 150원이 인상되었다는데 배급 총 수량은 6만 2천 瓦이라고 하며 이번은 각도 및 시를 경유하여 배급한다고 한다. 그리고 한지치과의사로서 작추(昨秒)……(1단 1행은 원본이 많아서 활자를 알아볼 수 없음)……치 않는자는 전회와 같이 금배급을 정지하게 되었다고 한다.

기사 7. 경남도치정기총회

기사 8. 외력군에 아부치 않고／극리민복에 충성과 신의 발취／환영회석상 尹국의* 열변

기사 9. 서울의 再會, 드디어 통일／위원장에 안병식(安炳植)씨.

기사 10. 서울 경성(京城)／통일 타합회(打合會)

기사 11. 치대동창회／회장 박명진(朴明鎭)씨 당 선.

기사 12. 경북동창회／경북지부총회.

기사 13. 미국기재배급.

기사 14. 제주도논 분리／회운영강화.

기사 15. 구강검진간담

기사 16. 회고(會告)

본지「조선치계」는 본회기관지로서 제호와 발행소명을 변경할 예정이오나 그 수속이 미료(未了)되어 구대의연합을 면치못하였으며 이번에는 본회와 각도지부회의 총회기록을 특집하였습니다. 널리 양해하시고 앞으로 편집상 많은 지도와 편달이 있기를 양망하옵나이다.

조선치과의사회.

기사 17. 재료상조합정총.

기사 18. 인사(人事)

▲ 원제신(元濟辛)씨 (치의무과장), 만주방면 전채 등 포귀환안내차 10일간 예정으로 5월 25일 천진 향발

▲ 신덕영(宣德英)씨 (전치대강사), 의대세균학연구실 입국 인사차 5월 15일 래사(來社).

▲ 한택동(韓宅東)씨 (전채동치과의원장), 한치과로 의원명 개칭 인사차 5월 20일 래사.

▲ 추옥엽(秋玉燁)씨 (전 대구의대 치과학교실 부의무관), 금번 부산부(釜山府) 부용동 1가 27에서개업.

【2면】

기사 1. 서울／京城의 통일로／제문제 호의순조／朝齒제3회 정기총회

이상과 같은 기사제목 아래 2면은 전체가 3회 정기총회에 관한기사로 꽉 차있다. 다음은 3단 3행의 기사아래 편집자의 주적인데 사문의 전면울 함축하는 내용이어서 옮겨 보았다.

내용: 조선치과의사회 제3회정기총회는 학회관제로 예정보다 1일 순연하여 5월 24일 개최하였는데 서울, 경성 양 치과의사회 통일로 말미암아 순조로운 분위기속에서 허다한 당면문제를 6시간이라는 단시간에 토의가 결한 사실은 朝齒창립이래의 유쾌한 기록이 될 것이며 치과이계의 진진하는 거보(巨步)가 뚝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 윤재욱(尹在旭)씨 제헌 국회의원 당선 축하연 내용에 “국의”는 국회의원의 준말로 썼던 것으로 보임.

그러나 따지고 보면 결산보고에서 검토할 조항에서는 기관지발간같은 건설면은 축감시킨 것과 금배금문체에 있어서 「균일제를 가결한 도치(道齒)의 대의원이, 등급제를 묵인하는 태도등은 현명하다고 인정하기 힘든 일이었다. 그리고 개최직전에 임원개선문제로 회칙에 대한 견해 상위점을 가지고 시여(時餘)에 걸쳐 논쟁을 전개하였다가 결국 구인원을 신입원으로 탈로써 바꾸어 놓으면서 작년도 정총, 임총에서 열화같이 떠들어대던 「醫齒一元化」에 대하여 일문반답(一問半答)도 없던 것은 의결의 소재가 명확치 않을 일이었다고 그의 치과기재배급진, 조선치과연혁사 편집 등에 좀더 건설적인 의견이 듣고 싶었으나 그것은 욕심에 불과 하였다. 여하간 朝鮮齒는 발전단계를 오르고 있다.이하 2행 생략.....(최효봉)

기사 2. 퇴임인사

진국의 꽃피려는 녹음호절(綠蔭好節)을 맞아 제선생의 건강과 행복을 삼가 앙축합니다. 본인 등이 재작년 5월에 「조선치계」를 발행한 이래 모든 악조건을 극복하며 그 출판에 노력하여오던 바, 금번 제3회 조치 정기총회 의결에 따라서 「조선치계」를 조선치과외사회에 이관하고 전심(專心) 치과기재상인으로서 미력이나마 치과계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재임중 대과없이 조선치계를 운영한 것은 오직 제선생의 혜택으로 민사움고 깊히 사의와 경의를 표함과 아울러 앞으로도 변치 않는 애호를 갈망하나이다.

추이 최효봉씨는 편집을 담당하고 있었던 관계상 그 때로 머물러 조치기관지 편집자로 활약하게 되었아오니 여시하량(如是下諒)하시고 많은 지도와 원조를 나리시옵소서.

서기 1948년 6월 1일 황영기(黃永基), 이덕현(李德顯) [3면]

기사 1. (머리기사) 조선치과학회제2 회총회성황.

조선치과학회 제2회 총회는 5월 23일 상오 9시부터 서울치대 강당에서 경향각지 회원 약 140명 참석하에 성대히 개최하였는데 먼저 십수명의 강연이 있은 다음 총회에 들어가 국민의식을 하고 학회장대리 조호연(趙昊衍)의 개회사, 문교부차관·후생부차관 양씨의 내빈축사 회무보고 의사(議事)등을 마친후 다시 강연과 기념촬영이 있었으며 이날 치대동창회 개최시간 관제로 하오 4시반 십수제의 강연을 남기고 폐회하였다. 연제는 다음과 같으며 ○기호는 연자이다.

1. 여포성치아낭종의 1예, 김중기(金重基) 서울의대 제1병원치과.

2. 타액루의 1치험례, 안형규(安炯珪), 치대외과
3. Epulis의 문헌상 고찰, 김동순(金東順), 치대병리
4. 범랑진주의 2례, 방경손(方慶孫), 서울의대 제1병원 치과
5. 친회한 강아종의 1치험례, 이춘근(李春根), 치대외과,
6. 페니시린의 구강외과적 응용, 호정진(扈鼎鎭)치대외과.
7. 간접인레이 간이조작법(정보라 고안)에 관하여, 김조환(金朝桓), 치대 보철.
8. 하악돌출 교정환자의 1치험례, 이유경(李有慶), 치대 보존.
9. 에크리릭 제킷 크라운 조제법에 관하여, 신태석(沈泰錫), 치대 보철
10. 인류치아의 형태학적 및 축학적(樂學的)고찰, 송재형(宋在迺).
11. 불량가교치(不良架橋齒)에 인하여 발생한 구강암의 1증, 이춘근, 치대 외과
12. 반간접 인레이 조제법, 김수철(金洙哲), 치대보존.
13.(글자확인 불가함)....., 정보라(鄭保羅), 치대 보철.
14. 치주조직염증에 대한 생물학적 및 병리학적 사견, 배진극(裵珍極), 여의대(女醫大)*
15. 소위 치조농루증에 대한 노이만씨 수술법에 관한 고찰. 배진극, 여의대.
16. 임상상 한인 파로경사도 40예에 관하여, 하노 교합기에 의한, 이유경, 치대 보존
17. 악골 골절합리적 부복고정법(이춘근 고찰), 이춘근, 치대 외과
18. 구강계대와 의치상유지와와 관계에 관하여, ○허태운(許泰雲) 정남희(鄭南熙), 치대보철
19. 상악에 발생한 육종의 2치험례, 김용관(金用琯), 치대 외과
20. 咬音(말더듬이)교정에 관한 이론적 검색 및 실험, 김유환(金○煥), 서울의대 제1병원치과.
21. 구강외과문제에 관하여 Howard M. Taylor 중령 미군 34병원 치과외과부장
22. 아말감 충전법에 관하여, William J. Hurt 소령 미군 2병원 보존치과장.
23. 보철학적 안전정형에 관하여(환등설명), Elmer Hioman, 미군 24군단 보철치과과장
24. 이종금속에 갈바니진류의 실습적연구(其二), 김영창(金永昌), 서울의대 제1병원 치과.

* 현재 고대의대의 전신

25. 악골제거술에 관한 고안, 오재인(吳在仁), 치대외과
26. 어류치아의 연구의 그 일단(一端), 김영창·○김주환(金周煥), 서울의대 제1병원 치과
27. 원피스 주조장치 조제법에 관하여, ○이영옥(李永玉)·정보라, 치대 보철
28. 쌍생아 14례에 있어서 발육 상황 및 구강소견을 주르한 상이성, ○박부영(朴扶榮)·김문조(金文祚), 서울의대 위생
29. 악 및 구강부근에 발생하는 급성질환의 진행경과에 대한 나(余)의 고찰, 이춘근, 치대외과.
30. 신세틱 포세린의 코-크라운 품의 사용에 관하여 김만수(金萬壽), 치대 보철
31. Ackinomykosis의 치험례, ○서영규(徐永圭)·이열희(李烈熙), 대구 치대
32. 강원도 1온천촌의 지방병성 반문치(斑紋齒), 김문조, 서울치대 위생
33. 무치악기능인상법(정보라 고안)에 관하여, 장완식(張完植), 치대 보철,
34. 희유한 경과를 취한 상악암과 말조성암을 의심나게 한 특발성 케양성 구내염, 반태유(潘泰攸)의정부
35. 치아와 Vitamin.....원문독해곤란.....치대 보철
기사 2. 치과계의 회망／구강위생연구소설치／김문조씨의 장거
기사 3. 등급제금배급／限齒포함한 3등급가결 경북·경기
4면(3면기사 계속)
기사 1. 균일제 금배급／치제회사의 반성／요청할 것 등을 가결, 전북, 충남, 충북

제11호(단기 4281년 9월 30일)⁷⁾

조선치제제11호는, 6월 10일에 발행된 10호가 나온지 3개월 20일만에 나왔다. 신문제호위에는 월간이라고 팔호안에 밝혀놓았지만 사실은 계간형태가 되고 말았다. 영문제목은 THE KOREAN DENTISTRY CIRCLE이라 되어있다. 그런데 이 영문제목은 정보라가 지어 주었다.

발행인은 김용진, 편집인은 최효봉으로 바뀌었으며, 발행소는 조선치과 의사사회이며 그 주소와 전화번호는 서울시 종로 2가 45 전화 ③3301로 되어 있다. 면별로 기사와 기록적인 내용을 선택하여 다음처럼 게재한다.

【1면】

- 기사 1. (머리기사) 치의무과는제로／그러나 치의무행정에 別無支障／박보진국장에 대한 기대치대

해방후 3년간의 미군정이 종언(終焉)하고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되자 보건부분이 사회부의 1국으로 통조림을 당하여 치의무과는 課로 존속할 수 없는 운명에 봉착하였다. 그런데 미군정하에 치의무국(局)이 파로되던 당시의무국과의 연관을 원활히 조절하기 위하여 의정국(醫政局)을 신설하고 의무 치의무 양과를 대등히 취급하는 조치를 채택한 전례로서 금번 행정기구개혁에도 의정국을 파로하고 의무 치의무 「계(係)」한다면 부(部)가 국(局)으로 된 차제(此際)라 구태어 이의를 논할바 아니거니와 결과에 있어서 의정국이 없어지고 의무과만이 존속되어 치의무과는 제로되고 그에 따라 구강위생선전 계몽사업은 보건과로 치의면허 등록사무는 면허등록계(係)로 각각 이관된다는 풍설에 대하여 치과계에서는 분산되는 치의무행정기구를 통탄하고 불만이 비등하고 있으나 확실한 측(側)이 전하는 바에 의하면 앞으로 의무과는 의정과로 개칭될 것이며 구강위생선전 계몽사업만을 보건과에 이관되되 치의면허등록사무 기타 모든 치의무행정사무는 치의사계(齒醫事係)소관이 될 뿐 아니라 종전보다명량하고 강력한 치의무행정이 있으리라고 하여 전기한바 통탄과 불만을 감소시키고 있다. 그리고 치의사계장은 누가 임명될 것인가에 많은 관심과 흥미를 가지고 있는데 한편 선임보건국장 박주병 박사의 이해있는 행정수완발휘에 치과계의 기대는 더욱 크다.

기사 2. 보건국장에／朴柱秉博士

기사 3. 齒醫務課설치／朝齒에서 건의

기사 4. 이번 수강자에 5年期間廢止／한지치과 의사에

○○

사회부에서는 제2회 한지치과 의사보습강습회(補習講習會)를 10월 25일부터 11월 4일까지 10일간 치대 강당에서 실시한다하며 이번 수강자에 한하여 면허기간(5년)을 폐지한 사회부장관 신면허장을 교부하였다한다. 이 기회에 한지치과 의사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수강함으로써 기간폐지의 혜택을 받을 것이며 수강자는 필히 구면허장을 지참하라고 원 치의무과장 담(談).

기사 5. 치과공의제도／실시를 전의

기사 6. 치과 의사 총수

치의무과 발표에 의하면 10월 1일 현재 치과 의사면허수는 557명.....(생략).....서울시 및 각도별은 다음과 같다(如左).

치과 의사		한지치과 의사	
면허자수	개업자수	면허자수	개업자수
서울	300	207	1
			1

경 기	66	62	24	16
강 원	19	16	3	1
제 주	1	1	1	1
충 북	12	12	9	8
충 남	22	20	13	11
전 북	25	20	8	8
전 남	16	20(?)	25	16
경 북	48	39	27	7
경 남	48	47	9	26
총 계	557	444	120	95

기사 7. 무의촌 및 수해지/순회치과진료대(隊)

기사 8. 치과의사○○/○○○○○합격자

기사 9. 1만원벌금형/부정한지 치과의사

조선 치과 의사사회에서는 위조증명서로써 한지치과의사 면허를 취득하여 개업증 기소되어 작년 10월 27일 서울 지방심리원(審理院)에서 범령제19호 제 4 조위반으로 1만원 벌금형을 받은 전남某을 △△△및 ×××양명(兩名)의 판결문을 첨부한 진정서를 7월 22일부로 보건후생부에 제출한 바 있었는데 보건후생부치과의무장은 「전남도지사의 진정서가 오는대로 양명의 면허는 취소하겠다」말했으며 급후 면허취소가 실시되는 것을 계기로 전기 양명외의 한지치과의사로서 부정수단으로 면허를 취득한 수명도 적발되리라 하고 한다. 그리고 전기 양명의 범죄 사실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 양명은 각 군정청 후생부 치의무국에서 면허 입치사 만주국 치과의사 자격있는 자에 한하여 1개월간 치의학에 관한 지식강습을 시키고 동국(局) 자격심사위원회 자격심사후 한지치과의사 면허를 하부(下附)하게 되어있음을 기회로 만주치과의사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자격자와 같이 동국직원을 기만하여 한지치과의사 면허를 취득할 의도로 1. 피고인 △△△는 5년간 치과의원에 근무한 후 의료업에 종사하던 자인데 서기1946년 7월 23일경 만주치과의사라는 □□□명의 위(僞)증명서 및 일본군 을대(乙隊) 3500부대명의 허위증명서를 동국 직원에게 제출하여 공무에 관하여 군정청직원을 기만하여서 한지치과의사면허를 취득하였으며 그 피고인 ×××는 수십년간 치과의사 기공사로 종사하였던 자인데 서기 1946년 7월하순경 만주국 치과의사라는 만주일본 파유삼(波遺森)본부대 소림대장 소림승(小林昇)명외의 허위증명서를 동국에 제출하고 공복에 관하여 군정청 직원을 기만하여서 한지치과의사 면허를 취득한

것이다.

기사 10. 서울齒임총/위원장에 윤재옥씨

기사 11. 군의관 齒科中尉

국방부 육군 각연대에 배치된 군의관 치과중위는 다음과 같다. 김규택(金逵澤), 최형곤(崔亨坤), 맹주환(孟柱煥), 임재길(林載吉), 최기진(崔基陳), 김영성(金榮星), 정용래(鄭龍來), 신의철(申義澈), 허이영(許利榮) 장인환(張仁煥), 백낙수(白洛水), 김백봉(金百鳳), 조봉기(趙鳳基), 김치원(金致源)

기사 12. 치대졸업생

1948년 서울치대 제 2 회 졸업생 30명 명단이 게재되어 있음.

기사 13. 치대학부신입생(명단게재)

기사 14. 회비납부를 요망.

조선치과 의사사회 재무부에서는 현하 치과계 제 과업추진상 회비미납관계로 지장이 막대하다 하여 조속한 기일내에 朝齒회비 및 의치 1원화 의연금 등 납부하기를 요망하고 있다.

기사 15. 부산지부총회

기사 16. 페니실린 배급

경상남도 치과 의사사회원 60여명이 지난 7월 5일 페니실린강습을 받은 후 8월중순 비로소 매인당 5개씩의 페니실린배급이 있었다.

기사 17. 4개 단체연석회의

기사 18. 齒大運動會

국립서울대학교 치과대학에서는 10월 16일 대학본부* 운동장에서 제 2 회 운동회를 성대히 개최.

◎ 기사 19. 人事

▲ 정보라씨(치대교수): 1년간 유학예정으로 8월 5일 도미

▲ 신인철씨: 朝齒부원위장을 사임하고 충북진천에서 개업.

▲ 이형주씨: 배진극씨 후임으로 서울여의대교수 동부속병원 치과과장에 9월 2일 취임.

▲ 김세경(金世卿)씨: 서울시 보건위생국 학교치과의 사무(醫事務) 담임의무관에 취임.

【2면】

기사 1. 醫師及齒科醫師法(草案)

기사 2. 치과의인의 우감(偶感)/馬山 박수경(朴壽敬)

기사 3. 치과의학을 탐구하는 동지에게/학창을 떠나면서, 이한수(李漢水)

* 현재의 종로구 동승동, 서울의대 정문 건너편에 본부건물은 남아있음.

◎ 3면

- 기사 1. 경상북도치과의사회/울릉도진료대보고서
기사 2. 진료후기/울릉도 진료대 총무/최준경(崔俊卿)
기사 3. 장행회(壯行會)와 보고회
기사 4. 대구지부정기총회

◎ 4면

- 기사 1. 경남정총/일사천리로/제안건가결/위원장 김창규(金昌圭)씨 중임.
기사 2. 충남임총(臨總)
기사 3. 朝齒위원장동정

제12호(단기 4282년 1월 25일)⁹⁾

조선치계 12호는, 지난해인 단기 4281년 9월 30일에 발행된 11호가 나온지 4개월만에 나왔다. 이 12호는 조선치계라는 이름으로는 마지막이 된다.

◎ 1면

- 기사 1. 사설. 연두사(年頭辭)
기사 2. 보건후생 부독립안/불원간 국회에 상정에정
기사 3. 보건후생부 부활/관계각단체에서 추진
기사 4. 독립운동활발/결의문을 요로에 제출
기사 5. 신 치의무계장/서씨를 환영함.
기사 6. 한지의사의/재교육개강
기사 7. 치과전문위원회

사회부 보건국 치과전문위원회는 9명으로 구성되는데 동위원회는 군정당시의 치과의사자격 심사위원회와 같은 소범위의 것이 아니고 치과계 전반문제를 토의·답신하는 자문기관임에 치과계의 관심과 기대는 자못 크며 사회부장관이 누구를 임명할 것인가 흥미있는 과제로서 확실한 것은 예지할 도리는 없으며 대체적으로 물의에 오르고 있는 듯한 제씨는 다음과 같다. 김용진, 박명진, 이유경, 조호연, 박용덕, 김연권, 문기옥, 안병식, 이형주, 윤재옥, 김문조.

그리고 한편 사회부 전반 문제의 자문 기관인 최고위원회에는 치과의사 2명이 임명될 것이라는 데 일반적으로 김용진, 박명진 양씨설이 가장유력하며 동 최고위원은 대통령에 임명하게 되어 있다고 한다.

- 기사 8. 치의무계장에/서병서씨 드디어 취임.

- 기사 9. 한국치과의사회(韓國齒科醫師會)/朝齒 탈퇴를 결의

제2회 한지치과의사 강습을 수강코저 서울치매강당에 참집한 한지치과의사 130여명은 10월 26·27 양 일간 휴강시간을 이용하여 한지치과의사의 단체인 한국치과

의사회 제3회정기총회를 개최하였는데 토의사항에서 1. 朝齒를 탈퇴할 것. 2. 지역역제철폐를 건의할 것. 3. 준회원 및 자격명시를 반대할 것. 4. 자재군등배급을 결정할 것. 5. 목적달성을 위한 운동비를 지출할 것 등을 가결하였다. 정용관(鄭龍官), 김상균(金尙均) 양씨는 朝齒탈퇴를 보류하자고 주장하였으나 다수결로 탈퇴를 결의하였으며 운동비 매인당 1만 2천원은 부담이 과중하다고 반대도 있었으나 역시 다수결로 통과되었는데 앞으로 과연 한지치과의사 일동이 단결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인가에 치과계 관심이 비교적 냉정한 만큼 그 귀결도 방관적인 것 같다. 정기 총회에서 선임된 역원 및 각도지회장은 다음과 같다. (명단은 생략함).

- 기사 10. 탈퇴는 탈뿐.

한국치과의사회원인 한지치과의사 일당은 총회 결의에 의하여 조선치과의사회 및 각도시치과의사회 탈퇴를 성명한 바 있었는데 경남이외의 각도의 한지치과의사는 사실상 탈퇴를 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동회 모모지 부장은 “탈퇴가결을 한것은 일부 기계인의 책동에 의한 것이므로 앞으로 긴급 역원회를 개최하여 탈퇴 취소를 성명케 할 작정이니 우리는 도치과의사에서 탈퇴하지 않고 있다”고 언명을 하였으며 운동비 정수가 불량하여 동회운영상 지장이 불소(不少)하다고 한다.

- 기사 11. 여수사건에 조난한/동업자 구하자/朝齒에서 구제금 모집

민족적 비분의 추억도 새로운 여수사건으로 동지에서 개업중이던 치과의사 정동호(鄭東浩), 김광식(金光植) 양씨는 진료소와 진료기구 가재 등을 전부 소실당하고 본래 불여의(本來不如意)한 형편이라 개업도 못하고 기한에 밀고 있다는 바 전기 양씨의 소속인 전라남도치과의사회에서는 동회원에 호소하여 매인당 천원씩의 구제금을 모집하고 있다는 데 조선치과의사회에서도 위원회 결의로서 널리 구제금을 모집하게 되었다. 구제금액은 제한이 없으며 동업자에(同業者愛)로서 구제금을 회사회에 고지 하는 각회원은 소속도 치과의사회에 송금하고 각도치과의사회는 접수된 구제금을 일괄하여 조선치과의사회에 보내주기 바란다고 한다.

- 기사 12. 서 치의무계장 취임사.

- 기사 13. 김한경(金漢慶)씨 도미

[2면]

- 기사 1. 치과계 당면문제문답집 (1)

- 기사 2. 치계의 회담담/치의무계장론

- 기사 3. 서씨 취임하면 /치무행정명량화

- 기사 4. 의사 및 치과의사법

- 기사 5. 원 치의무과장의/노고에 동정불금

기사 6. 한치치과의사의/탈퇴는 별무지장

【3면】

기사 1. 치의 1원화추진방법/학제물 근본적으로 개혁하고/치과계 내부의 논의 통일하라, 문 답집(2)

기사 2. 대한 치우회/부산/마산에서 반대

기사 3. 대구, 김천도/정체불명으로 반대

기사 4. 나는 무관심/배진극씨 담

기사 5. 대한 치우회/문 회장과 1문 1담

【4면】

기사 1. (연두소감)정의의 화차는/ 궤도에서 진발(進發)/조선치과 의사회위원장, 김용진.

기사 2. 신년소회(所懷)/조선치과기재주식회사장 이 용기

기사 3. (수필)달빛과 같이/최효봉

기사 4. 치대동창회/경남지부/2월 5일 창총

기사 5. 부산의 구강진전

기사 6. 이원손씨/부지부장취임

□ 口腔科會報

인가번호는 1946년 7월 2일 타블로이드판 4면으로 조선치계의 날자와 같고, 제호만 “구강과회보”로 바뀐 것이 사실이다. 발행인 김용진, 편집인 김문조, 발행소는 大韓齒科醫師會 서울特別市鍾路2街 45 電話 光化門 (3) 3301番으로 조선치계와는 달리 제호 밑에 가로쓰기가 요즈음 가로 쓰기식으로 바뀌었다.

발간호수도 조선치계의 것을 연계받았으므로 제13호.



제14호·제15호로 내게 되었다. 여기서는 제13호와 마지막호인 제15호의 각면 기사를 소개 하였다.

13호(단기 4282년 7월 1일)⁹⁾

【1면】

기사 1. (머리기사)자재배급기구혁신코/수요자의 부담 감소

기재는 중앙대행기관으로 朝鮮齒材가 있고 그 배급기구로써 서울시내 여러개의 소매상을 통하여 왔었는데 그 기구의 이득은 원가의 6할 2푼이나 되었다.

그런데 제반 기재원가폭등으로 종전과 같은 통로로서는 일반의 부담이 막대할 것이라 하여 朝齒에서는此에 대한 구체적인책을 고려중이라 하는데, 該案이 실현되면 일반환자는 물론 치과의 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하며 朝齒에서는 각 지부에 적극협력을 요망하고 있다.

그리고 시험적으로 “루쓰브”의 23종의 소기재를 서울시와 인접지부에 배급중이라 하는데 朝齒案은 如左하다.

1. 일반개업의에 대한 기구. 각도별로 소비조합을 조직케하여 그 조합원에게 한하여 조선기재에서 ECA물자를 朝齒를 통하여 할당배정케 하고 각소비조합이 직접 인수하는 한편 朝齒는 朝齒대로 가급적 民需物資局에서 직접배급을 받아 각도소비조합에 배정하여 국산품은 생산회사로부터 사입하여 배급한다고 한다.

그리고 국내생산이 가능한 물자는 업자에게 위촉하여 그 소비를 책임져서 국산장려에 치중하여 국가경제재건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 하여 우선 “시멘트” “소독기” 등을 제조중으로 불일중 제품이 나올 것이라 한다.

2. 각 종합병원에 대한 기구. 각 종합병원에는 종전과 같이 소매상조합을 통하여 배급되던 소매상의 이윤을 삭감하여 배급케하고 부정소매상에게는 일절 배정하지 않을 계획이라 한다.

이 계획이 실시됨으로 발생이 많던 소위 “모구리”도 근절되며 一石二鳥로 그간 기재난으로 암운이 떠돌던 치과계에 일대 서광이 될 것이라 하여 기대되고 있다.

기사 2. (사설)朝齒의 業績

世人共知하는 바와 같이 朝齒는 解放후 순전히 良心 그것으로 국민보건을 위하여 희생을 하여왔다. 그 예를二三에거하면 매년 口腔衛生強調週間을 통하여 무료진료를 하였고 또 진찰 치료보수액의 희생적 염가주의를 취하였으며 금번 保健部독립추진에 대한 가장 양심적인 제안 혹은 보건지정에 대한 열의적인 감의 등 항상 자기를 回顧하지 않고 희생에 희생을 다하였다. 그외에도 제반 급배급중지 기재원가 폭등으로 인한 타격에도 부단한 노력으로 일반 국민의 부담을 적게하려고 가진 경

력을 하여왔다.

기제문제에 있어서도 증전기구로는 중간상인이 약 6할 2푼이라는 웃지못할 이득으로서 배급하여 왔는데 금후는 此를 직접인수하여 지방소비조합을 통하여 배급할 계획이 진보중이고 금배급문제도 불원해결 될 것으로 보인다한다. 이 양안이 실현되면 치과계는 물론 일반국민에게도 큰 도움이 될것임이 틀림없다.

원래 진전한 국가는 건전한 국민을 보지함으로써 있을 수 있고 국민보건정책에 있다 할 것이다. 해방후 우리나라사정은 대내적으로 혹은 외세에 의하여 혼란은 있었으나 보건정책에 치중하였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사제인사들의 부단한 노력으로不少한 발전을 보여주었음은 자타가 다 경하하는 바이고 국민일반도 좀더 적극협력하여 국민보건의 완전을 기하므로 우월한 민족성을 세계에 발휘하여야 할 것이다.

끝으로 신생 보건부에 기대가 크니 유능인사가 등용되어 저락된 我國의 보건사정을 비약적으로 발전시켜 국민보건의 확립될 것으로 확신하며 무릇무릇 자라나는 이나라의 복된 요소가 大韓齒로 하여금 가일층 배양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기사 3. 初代保健部長官에 具永淑博士決定

任장관의 기소와 李범부장관의 사임을 계기로 정계 및 향간의 이쪽저쪽에서는 각료결원보충 및 전반적인 내각개조에 대한 제마다의 억측이 꼬리를 물고 유포되고 있었는데 소아과의 권위고 유한양행사장인 구영숙씨가 보건부장관에 임명됨을 신두로 공식에 있는 각장관들도 임명되었다. 그런데 보건부는 去 4월 25일 법령 발효된 이래 무려 40여일만에 발령된 것으로 학수고대하던 杏林界는 물론 일반의 기대도 자못 크다.

구장관약력, 황해도 황주출생 당58세, 미국 에모리 의대 졸업, 개성 南星病院 원장, 世專敎頭同소아과장, 유한양행 사장을 역임중 해방후 교육시찰단으로 도미, 귀국후 현 세종로에서 소아과병원을 경영.

기사 4. 세계보건기구총회에 대표로 사회부차관참석

기사 5. 보건부인사결정 / 기구는 1室 3局?

기사 6. 金朝齒會長 / 具保健部長관 방문

기사 7. 大韓齒役員 / 部署異動

기사 8. 치의부분과 위원회 설치.

기사 9. 치의 검정합격자.

기사 10. 探 針

▲ 會告 : 금번 본보는 명칭변경과 아울러 내용도 일신하여 뉴스를 중점으로하고 회원상호간의 친목을 더하는 “바둥”이 되어 진료의 여가에 휴식의 벗이

되교자 하오니 흥미있는 뉴스 수필등을 많이 보내 주십시오(편집실).

【2면】

2면 전제는 3단 3행의 “예산원안추가 통과 / “大韓”으로 회명개칭 / 약진하는 朝齒 정기총회”란 제목으로, 조선치과의사회 제4 회 정기총회상황을 자세하게 회순·내외빈출석자·참석회원의 명단과 대회때 발언 내용도 그대로 묘사하였다.

단기 4282년(서기 1949년) 5월 29일 치과대학강당에서 대한민국정부수립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총회라 무척 감회가 깊었던 것이 묘사되었으며, 의료제도개혁(醫齒一元化)을 주장하는 내용과 회지원은 서기 1명 사환1명이었다는 기록이 있다.

【3면】

3면에는 각도지부정기총회에 대한 기사로 사진이나 삽화한장 없이 토지부실태를 신고 있다. 충남·충북·전북·경북 경남·전남·경기도지부의 순서로 기재되어 있다.

【4면】

기사 1. (머리기사) 금 배급문제로 / 기획처 경제계획국서 / 각 방면으로 조사.

“금배급이 일시중지되어 치과계에 암이던 이래 대한치과의사회에서는 수차 정부기타 각 방면에 건의 혹은 진정을 하여 오던중 그 진정이 통하였는지 지난 6월 18일 상오 10시 기획처경제기획국 제2과장 박남수(朴南洙)씨는 대한치과의사회회장 김용진씨를 초청하여 금배급에 관하여 다음요지의 문답을 하였다하여 서울 치과의사회장 안병식(安炳植)씨도 동행하였다한다. 그리고 이에 앞서 사회부 치의부계에도 문의한 바 있어 사제는 그 귀추에 주목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편집자주처럼 설명하고 대담내용을 자세 기재하였다. 금배급이 되지 않아 치과진료에 상당한 애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기사 2. (논단내용의 기사)과거반성으로 장래를 기획하자. 국립서울 대학교 치과대학장, 박명진(朴明鎭)

기사 3. 韓齒소비조부 정관초안

기사 5. 본보사령 최효봉(任記者)·李穆(任書記)

기사 6. 謹吊白凡金九先生長逝

광고기사 2단 6개(기공소 2, 의료기제작소 1, 치제상 3)

이상과 같은데 광고 기사중 기공소 광고 하나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원래 세로 쓰기로 되었던 것을 가로로 고친것이다.

移 轉 廣 告

여러선생님의 건강과 행복을 비읍나이다. 금번 폐소를 확충이전하게 된것은 오직 여러선생님의 혜택으로 인사웁고 감사합니다. 앞으로 일층 면력코저 하오니 배전의 애호로 하명하여 주심을 앙망하웁니다.

S P 庄 印 床

기공요금

上악 無齒	1악	2,500圓
同 有齒	1악	2,700圓
下악 無齒	1악	2,700圓
同 有齒	1악	2,900圓
金句	1個	350圓
上악바라달바	1악	300圓
局部	1악	2,000圓

京一齒科技工硏所 朴 勝 一

서울市中區 山林洞 22

제15호(단기 4282년 12월 15일)¹⁰⁾

[1면]

기사 1. (사설)영역침범이란 기우/具장관 담화는 난해.

치과의가 그의 진료하는 과의 명칭이 적당하지 않아서 가장 적합한 이름을 부치겠다고 운동을 일으키고 있다. 이에 관하여 식견이 풍부한 사람들은 누구나 지당하다고 찬등한다. 그런데 기이하게도 의사중에 이것이 치과의가 의사의 영역을 침범한다고 해석하고 반대를 하는 사람이 있다니 이해난이다. 치과의가 현재 합법적으로 진료하고 있는 것을 명실상부하게 이름을 고친다는데 의사의 영역침범이란 기우중에도 기우라 하겠다. 이상하게도 의사중에는 교양이 높고 학식이 풍부한 지도층의 의사는 이것을 시인하는데 소위 외국물을 잡수신 양반들중에 「치과의사란 입치사」인줄만 알고 있는분이 있는데, ……., 이고 이분들은 보철전문의 치과의만을 보고 고집하는 것이라고 믿는다.

그리고 또 한가지 해석하기에 곤란한 것은 일전 기사단과 회견한 보건장관의 담화에 “구강과관 명칭개칭은 고려중에 있다. 그 이유는 안과나 이비과나 외과 내과에서 그 전문과목을 표시하는 「眼」자나 「耳鼻」나 「外內」를 띄어버린다면 그 전문과목을 표시할 수 없음과 마찬가지로 이유로 치과에서 「齒」자를 제거하면 치과란 전문과목을 표시하기에 곤란할 것이다”라는 것이 있었음은

우리가 주지하는 바인데 치과를 구강과라고 한다면 치과의 진료과목 표시가 불능이라고 장관께서는 염려하여서 동문제를 고려중에 있다하는데 대한민국의 7백치과의는 우견인지 모르나마 치아진료의 표시가 가능함을 확인하는 바인데 장관의 담화는 무슨 의미인지 도무지 해득할 수 없다.

이것은 치과의 뿐만아니라 치과의 아닌 사람이 그제 무슨 말인가 고개를 기웃거리는 사람이 많다. 그 보다 더 난해인 것은 중앙보건 위원회에서 차문제를 토의할 때 치과출신 두 위원이 구강과라 개칭할 필요를 역설하고 의사측에서 몇 사람은 이것을 반대하여 갑론을박을 계속할 때 장관이 이 문제로 시간만 보내니 이 문제는 다음으로 미루자고 보류한 문제를 재차 심의도 하지않고 「치과」라고 해서 법제처로 돌려 버린 사실이다. 그리고는 너희들은 다른 각도로 운동을 해라 한다고한다 이 처사에 있어서 우리는 장관의 심경을 규찰할 수 없을 만치 매(昧)하지는 않다. 즉 장관은 의사이기 때문에 이런 처사를 했을 것이다. 여기서 우리(치과의) 섭섭함을 금치 못한다. 보건장관은 의사이던 약제사이던 혹은 보건계와는 문외한이던 장관은 크게는 대한민국 국민의 보건문제를 담당하는 최고책임자나 만치 국민보건확보에 있어 어느것이 유리한가를 위주로 해야할 것이며 적게는 전 보건계의 최고책임자인 만치 의사나 치과의나 약제사나 산과 간호부나 할 것 없이 어느 단체에게나 자부(慈父)이라야 할 것이다. 어느 한편에라도 편경하는 처사를 해서는 원망을 면치 못할 것이다. 회고 하건데 보건부가 독립되어 장관임명을 고대하고 있을 기간에 사회에는 보건부장관이 의사가 되어서는 안된다고들 하는 사람이 많았다. 그들은 기술자는 기술에만 치중하고 편경하기 쉽기 때문에 보건부장관은 의사가*…국민의 보건문제 보답…업권옹호를 위주로 하기가 쉽고 그런 말을 들을 때 마다 우리(치과의)는 맹렬히 반대를 했다.

마지막으로 한번 더 말함은 치과를 구강과로 함은 의사의 영역침범이 아니요 우리가 현존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두고 이름만 고친다는 것이요 그결과로는 실로 나라의 치과의학의 발달을 가져올 것이며 국민이 받는 바 보건적 복리가 거대할 것을 믿어 우리 7백의 치과의사 총열기할 것임을 만천하에 공표한다.

기사 2. 대한치의 臨總/口腔科로 맹진키로/추진위원회 구성/역원사표는 즉좌(即座)에 각하—총회성과대다.

기사 3. ECA치제, 분회소비부를 무시하고/재료상

* 의사가……국민의 보건문제 보답……’에서 대개 ‘.’의 숫자 만큼 글자가 보이지 않고 확인 할수가 없음.

을 통해 배급/집사당 처사에 회는 격분

기사 4. 한치회장 김용진씨/치대학장 박명진씨/공로표창기로 가결.

해방 이날까지 혼란중에서 천신만고를 물리치고 분열과 합동을 반복하던 대한치과의사회를 본게도에 올려놓고 실로 헌신적으로 회를 위하여 침식을 잊고 활동하는 본회회장 김용진씨와 나기라(柳樂)씨께서 접수한 학교를 국립대학에 편입시켜 교수난 경제난, 및 사상난의 폭풍속에서 숙연히 그리고 꾸준히 정신하여 온 치대학장 박명진 박사 양씨의 탁월한 수완과 거대한 공로를 서울시 치과의사회에서 주동되어 각도치회와 완전 의견합치하여 근표근창(近表近彰)하기로 되었다.

기사 5. 치과의원 특별배전(配電)/보전부에서 알선

기사 6. 편집을 마치며/김문초

매월 새 소식을 그리고 유익한 뉴스를 한번씩 회원 여러분께 보내드리고저 노력하고 있으나 여러가지 이유로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한가지로는 경제적 문제이기도 하나 다른 한가지는 회원여러분께서 너무나 기사를 보내주지 않아서 도무지 일을 할 재미가 적다. 즉 반응 혹은 공명없는 자극을 계속하기가 무미하다. 오죽해야 최기자가 지방을 순회하여 모아온 기사와 중앙의 소식을 약간 전하는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누차 말하는 바이나 우리의 기관지이니만치 우리가 공동으로 육성시킬 의무가 있다 생각한다. 듣건대 지방의 회원께서는 진료실에서 회보를 받았을 때의 기쁨은 말할 수가 없다 하더라마는 그 기쁨을 더욱 크게 하기 위하여 재미있고 싱싱한 회보를 만들기 위하여 분발해서 투고해주기 바란다.

그리고 이것은 개인적인 말씀이나 귀한 이 지면의 몇행을 빌어 인사의 말씀을 하도록 허락해 주시기 바란다. 천학비재의 소생이 해방직후부터 이날까지 본회의 학술부를 맡아 특히 근자에는 본보의 편집까지 맡아 회원제위의 기대에 어그려짐이 컸었음에도 불구하고 애호하여 주심을 심사하는 바이다. 금번소생 제반사정으로 본회 역원을 사임하고 본보편집도 차호로서 마지막으로 하고 신년호부터는 유능한 분이 편집을 하게될 것이다. 앞으로도 꾸준히 애호해주시기를 부탁하면서 편집을 마친다.

[2면]

기사 1.(1면의 기사 2.의 계속)

기사 2. 부산, 대구천선탁·정구전/탁구에 부산, 정구에 대구 각우승

기사 3. 그후의 여수, 평화의 상징/그러나 치과의는 고난/구제금 빨리 보내자.

기사 4. 전북도치 소비부/자금 3만원으로 발족

기사 5. 한지 치과의사/배우개선 결의/소비조합 결성키로-전남도치임시총회

국가사회적 환경¹¹⁾

조선치계가 창간되던 1946년부터 이름을 바꿔 제15호로 폐간된 구강과회보가 간행되던 기간중 우리나라의 정치·사회적 배경을 알기 위하여 1945년부터 1949년까지 중대사건을 소개한다.

1945년

2. 4 알타회담.

3. 1 부산-신의주간 복선철도 준공.

3.29 육군 소집령 개정, 징병적합자가 아니더라도 17세이상 남자를 강제로 동원시킴.

4. 3 여객열차 대폭감축 운휴.

5. 8 독일, 무조건 항복.

6. 1 경성여의전 부속병원(京城女醫專 附屬病院)을 개설.

7.13 남녀중학교 하기방학을 전폐, 강제동원.

7.26 포츠담선언. 한민족의 독립을 재확인.

8. 6 미군 히로시마(廣島)에 원자탄 투하. 사망 15만 명이상.

8. 9 미군 나가사키(長崎)에 원자탄 투하.

8.15 태평양전쟁에서 일본은 무조건 항복. 포츠담선언에 의하여 해방되고 알타협정으로 38°선에 의해 남북이 갈림. 북한은 소련군 그리고 남한은 미군정이 실시됨.

10. 1 한·미화 환율을 50대 1로 책정.

10.30 미군정청, 출판등록제를 실시.

12.30 송진우(宋鎭禹)피살.

12.31 임시정부, 경찰의 임정명령복종과 한국인 공무원의 총파업을 요구하는 포고 제1·2호 발표. 전국적으로 반탁시위.

1946년

1. 1 군정청, 미곡공정가격제를 실시. 1달(斗)에 47원

2. 8 대한독립 촉성국민회(大韓獨立促成國民會)란 단체를 조직하고, 반탁운동과 미·소공동위원회를 반대하고 좌익을 봉쇄하는 광범한 운동을 전개 6월 27일 '민족통일본부'로 재발족 총재에 이승만(李承晩), 부총재에 김구(金九)·김규식(金奎植)이 추대됨.

3.26 서울시민 300여명 시청에 쇄도하여 쌀요구데모

4. 8 쌀배급 1인 1홉(合)으로 결정.

5.23 민간인 38선 월경을 금지.

- 6. 2 남한 전역에 콜레라 만연, 9월말까지 이환 1만 5,600명, 사망 1만 1,000명.
- 8.22 국립서울대학교 신설. 종래의 경성제국대학, 경성법학전문학교, 경성의학 전문학교, 경성치과 의학교 등을 통합하여 개편함.
- 9.18 서울시를 특별자유시로 승격.
- 9.19 미곡자유반입매매 단속으로 식량난 심각.
- 9.26 출판노조 파업으로 신문휴간 8일간.
- 9. — 대한부인회 발족
- 10. 1 대구폭동 경찰서를 점거. 경찰 사망 20명, 부상 50명, 행방불명 30명
- 11.11 국립박물관 개관.

1947년

- 1.20 이 인 검찰총장, 상행위의 폭리한제. 도매 1할 5푼, 소매 3할이상을 천명.
- 2.11 공민증(公民證)제도 실시.
- 2.17 2,500만불 차관으로 칠면조, 통조림 등을 수입.
- 2.21 중석·연(鉛)등 처음으로 해외 수출.
- 3. 1 3·1절 행사를 우익은 서울운동장, 좌익은 남산에서 분리거행하고 미모깎에 남대문에서 충돌, 사상 6명.
- 3. — 조선적십자사 발족, 1949년 10월에 이름을 대한 적십자사로 고침.
- 4.19 서울복선수, 보스톤 마라톤 대회에서 우승.
- 6. 3 미군정청 한국인기구를 남조선과도정부(南朝鮮 過渡政府)로 개칭.
- 6.28 한국어를 공용어(公用語)로 제정.
- 7.19 여운형(呂運亨) 피살.
- 8. 1 미국의 대한민국 구제금 1억 1,000만불 결정.
- 12. 2 장덕수(張德秀) 피살.

1948년

- 1. 4 버마독립.
- 1. 7 의무교육제도 실시.
- 4. 3 제주도에서 무장공비 폭동. 11월 3일 완전진압.
- 5.10 남한에 유엔감시하에 첫 국회의원 총선거.
- 5.31 제헌국회 개원.
- 7. 1 국회사 국호를 대한민국(大韓民國)으로 결정.
- 7.17 헌법공포·정부조직법 공포.
- 8.15 정부수립, 초대대통령에 이승만 그리고 초대부통령에 이시영(李始榮) 취임. 미군정으로부터 정권을 이양받음.
- 9. 8 국회, 년호를 단기(檀紀)로 결정.
- 9.29 전남일대에 너염 발생.
- 9.30 국회, 한글전용법안 통과(10월 9일 공포).

- 10. 1 한미 화폐 환율, 450대 1로 인상.
- 10. 1 선박운임 4할 인상.
- 10.13 중교교 남녀공학제 폐지(사범학교제외).
- 10.19 여수와 순천에서 남로당(南勞黨)의 지령을 받고 국방경비대 제14연대가 여순반란사건(麗順叛亂 事件)을 일으킴. 11월 1일에 관련자 89명 사형 집행.
- 11.25 구례(求禮)에 공비 800명 내습.
- 12. 2 대구 제6연대 반란(590명 체포).
- 12.10 한미 경제협정조인 ECA원조 연간 1억 2,000만 불제공.

1949년

- 1. 1 미국, 대한민국을 정식승인.
- 3. 8 학도호국단(學徒護國團)결성.
- 5. 1 전국 인구조사 실시 상주인 2,016만 675명.
- 5.17 미국, 대한원조 2억불 책정.
- 6.14 한미 화폐 환율을 900대 1로 인상. 1950년 6월 5일에는 1,800대 1로 됨.
- 6.21 농지개혁법 공포, 유상매수(有償買收)·유상분배(有償分配).
- 6.26 김구(金九) 피살.
- 6.29 미군 남한철수 완료.
- 9. 7 독일 연방공화국(서독) 수립.
- 9. 7 녀염창궐로 학교·극장 폐쇄.
- 10. 1 중국공산당이 모택동(毛澤東)을 최고지도자로 중국본토에 중화인민공화국(中華人民共和國)정부를 수립을 선언.
- 10.27 진주시에서 공비 300여명 내습.
- 11. 7 제2차 대진후 중국공산당에 패하여 장개석(蔣介石)은 국부(國府)를 대만(臺灣)으로 옮김.
- 12. 1 사회부(社會部)신설.
- 12. 6 징병검사 실시.
- 12.17 한국문학가협회 결성.
- 12.31 교육법공포(중·고교분리).

평 가

1946년 7월 2일 허가번호 137호 조선치계가 제2호부터 신문으로 바뀐 것중에서 제4호·제10호·제11호·제12호 그리고 구강과회보 제13호와 제15호(단기 4282년 12월 15일)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연대순으로. 게재된 기사는 1면·2면·3면·4면의 순서로 기사의 제목, 때로는 그 내용도 수록하였다.

1. 대한치과의사협회 조창기 기관지로서 신문역할을 했

던 조선치계는 치과의사가 아닌 인접인사들이 창간하였다. 발행인 황영기는 치과재료상을 경영하고 있으며 편집인 최효봉(1910년 11월 14일생)의 큰 처남이 된다. 이 덕현은 황영기와 친교가 두터운 사이였는데 당시 치과재료상을 하다가 6.25후 한의사가 되었다. 두 사람의 재정적인 뒷받침과 최효봉의 활동으로 월간으로 시발하였다.

2. 신문발행에 있어서 월간으로 발행되지 못하므로써 본연의 기능을 하지 못했다.

3. 조선치계를 조선치과의사회의 기관지로 하자는 최효봉의 제의에 따라 조선치과의사회 제3회 정기총회의 의결을 거쳐 비매품으로 조선치과의사 협회에서 판장하기로 하였다.

4. 출판물, 특히 치과영역에 있어서의 시사나정보를 통한 지식 학문의 전달에 대하여 절실히 알면서도, 조선치계나 구강과회보 같은 활자매개체를 계속하지 못했음은 “여러가지 어려웠던 과거”를 전해주고 있다.

5. 구강과회보 제15호가 단기 4282년 12월 15일(서기 1949년)에 폐간되었으므로, 사실상 폐간의 운명이 1950년의 6.25동란과는 무관하여, 신문발행이 조선치과의사회에서 조차 힘에 겨웠던 점을 판단할 수 있다.

6. 당시 700여명의 치과의사단 회원을 가졌다는 점과 1945년부터 1950년사이 우리나라의 정치·사회·경제의 소용돌이가 기관지로서의 신문발행에 불리한 조건이었음도 명백하다.

7. 신문의 체제나 편집상의 기교같은 것을 평가하기 이전에, 한 시대의 기록물로서 그 가치는 크다.

감사의 말씀

<황무지·불모지에서 치과언론창달에 일평생을 보냈거나 치협주변에서 보내, 그 대가(代價)라고나 할는지, 치협 명예회원이 되신 최효봉선생님께 이 기록을 남기면서 형언할 수 없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남이보아 ‘뭘 그런 그 따위 보잘것없는 것을 하면서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자는 이와같은 작업을 계속 엮어 보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는 동안 한 인간이 국가사회의 많은 변혁과 전쟁은 물론 사회의 흐름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가난과 시련을 넘어 갖은 풍상을 쓰여 받으면서까지 술한 자료를 갖고 계신 터에 이번 이토록 적극적이고 절대적인 협조를 해주신 최선생님께 정중히 인사드립니다.>

참 고 문 헌

- 1) 신기철 신용철: 새우리말 큰 사전, 삼성출판사 제 7판, 1981.10.1
- 2) 신재의: 暗黒期の 齒科界 團體活動(1), 대한치과의사학회지, 제 4권 제 1호, 1983.
- 3) 이병태: 우리나라 치과출판에 관한 연구, 제 1편 대한치과의사 협회지의 조창기변천과정에 관한 검토, 대한치과의사학회지, 제 4권 제 1호, 1983.
- 4)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사, 1980.
- 5) 朝鮮齒界, 제 4호, 1947.6.15, 조선치계사.
- 6) 朝鮮齒界, 제10호, 단기 4281년 6월 10일, 조선치과의사회.
- 7) 朝鮮齒界, 제11호, 단기 4281년 9월 30일, 조선치과의사회.
- 8) 朝鮮齒界, 제12호, 단기 4282년 1월 25일, 조선치과의사회.
- 9) 口腔科會報, 제13호, 단기 4282년 7월 1일, 조선치과의사회.
- 10) 口腔科會報, 제15호, 단기 4282년 12월 15일, 조선치과의사회.
- 11) 東亞年鑑 67년 창간호특집, 「한국백년표」, 동아일보사.
- 12) 기창덕: 개인 면담.
- 13) 이한수: 개인 면담.
- 14) 최효봉: 개인 면담.

近世朝鮮初期 齒藥에 關한 考察

朴 勝 五*

I. 序 論

구강보건학적 의미에 있어서는 물론 개인 위생학적 측면에서도 치아우식증(dental caries)의 감염을 최대한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물리적 억제법은 칫솔질(tooth brushing)이다. 여기에는 칫솔(tooth brush)과 치약(tooth paste)이 필연적으로 대두되며 여기에 사용되는 치약은 흔히 구강청정제 또는 세마제 심지어는 치아 탈색제로서 사용되었다. 따라서 저자는 조선초기에 사용된 치약에 관하여 문헌적 고찰을 하고 이것이 현대의 치약(tooth paste)과 상관 유기적인 관계에 대하여 고찰코자 한다. 그러나 저자가 분명히 지적해야 할 것은 오늘날 현대치과적 의미에서 치약이 예방치과적인 목적 즉 치아우식증을 감소시키기 위한 물리적 방법에 목적이 있다면 조선초기에 있어서 치약의 의미는 예방치과적인 의미보다도 치아우식증 및 치주질환으로 야기된 통증을 제거하는데 주목적이 있었다는 상이점을 먼저 강조한다.

II. 本 論

1. 時代的 背景

조선초기에 있어서 정국은 극히나 불안하여 고려를 몰락시킨 조선은 이태조의 건국사업이 정착되기도 전에 2次に 걸친 王子의 난(1398~1399)을 겪어야 했었고, 함길도의 이시애의 반란을 비롯한 내부의 도전과 북으로는 여진, 남으로는 왜구의 침입이 대소로 끊이지 않았다. 이러한 정국의 불안은 문화사적인 발달에 제동을 걸리게 되었고 필연적으로 출판문화의 퇴조와 사회복지제도의 후퇴를 가져올 수밖에 없었다. 그러던 것이 이방원의 무력 지배가 성공하여 정국의 기틀을 마련하더니 세종조에서 팽목할만한 문화사적인 대사업이 벌어져 자연과학부문의 저서 천문학, 기상학, 지리학에 관한 출판사업이 대대적으로 일어나는 와중에 세종 5년(1423) 崔

致雲으로 하여금 法醫學의 책자인 無冤錄을 주석케 하였을 뿐, 조선초기 계급사회에 있어서 醫人의 사회적 지위는 보잘것 없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 여열에서는 고려말부터 국산약제에 대한 연구개발이 활발해져 1399년 定宗원년에는 鄉藥濟生集成方(鄭敬善)을 만들어 本草學(약학)의 효시를 이루었다. 그후 세종 27년(1445)에는 醫宿 金循義 崔閔등에 의하여 醫方類聚 365권이 완성되었다. 그러나 이는 내용과 수량에 있어서 방대한 이 지나쳐 일반에 보급이 어려워 광해군 2년(1610)고급 醫方의 책을 펴내는 의학백과사전인 東醫寶鑑을 許浚으로 하여금 全 25권에 걸쳐 편찬케 했던 것이다. 따라서 저자는 동의 보감에 나타난 치아 우식 및 치주질환으로 인한 치치 치방에 대하여 본초학적 의미에 대하여 그 배경을 먼저 고찰코자 한다.

2. 本草學的 背景

本草秘方란에 의하면 치아 우식증의 예방에는 신성한 가지의 뿌리를 쥔어서 즙을 만들어 치아에 바르거나 뿌리를 태운재를 만든 다음에 치아에 도포하면은 항우식 작용이 있다고 처방되어 있다. 이는 현대 항우식 에이전트(anticaries agent)인 인연 및 인산염의 구성성분과 그 기능이 일치한다고 추정할 수 있다. 또 한편에는 치아 우식증 및 만성 치은염으로 인한 통증시에는 검은콩을 45°이상의 독주(alcohol)에 끓여 그물에 양치질을 하던 진통의 효과가 있다고 기술되어 있다. 이는 콩의 주성분인 식물성 단백질이 치아우식증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현대의 Schatz(1954)와 Martin이 주창한 단백질용해킬레이트설(proteolytic chelation theory)과도 그이론적 근거가 유관하다고 주장할 수 있다. 또한 치근단 염증으로 인한 종창(Swelling) 때는 겨자를 태워 환부에 발라주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증증의 치아우식증으로 통증이 심할 때는 마늘 한쪽을 불에 뜨겁게 해서 통증이 있는 치아에 꼭 물고 있으면 진통의 효과가 있다고 처방되어 있다. 또한 치아우식 증으로 인해 안면 종창(swelling)

* 서울 朴勝五 齒科醫院

이오면 복숭아나무 뽕나무 버드나무의 白皮를 같은 비율로 넣어 삶은 다음 여기에 약간의 술을 타서 몇차례 양치질(gagle)을 함과 동시에 이 약물로 부어있는 부위에 자주 바르면 효과가 있는 것으로 처방되어 있고 단순 충치일 경우에는 생강을 벽돌위에 놓고 구워 말린 후에 약간의 고변을 섞어 가루를 만들어 환치에 바르거나, 후추 9알에 녹두 21알을 섞어 갈아서 형질에 싸고는 환치에 물고 있으면 진통효과가 오는 것으로 처방되어 있다,

또한 특이한 것은 치아우식증으로 인한 통증시 자두나무의 껍질을 달여서 그물을 gagle용으로 사용하면 진통의 효과가 있고 치아를 회개하려는 표백목적으로는 찹쌀의 겨를 태운 잿가루로 양치질을 하면 효과가 있다고 처방되어 있다. 이상의 본초학적인 처방에서 치아우식증을 억제하거나 이로인한 통증을 억제하는 물질, 즉 항우식요소(anticariogenic agent)는 오늘날 Schafer와 Hein이 주장하는 엽록소(chlorophyll)의 이론과도 그 성분에 있어서 무관하지 않으며 Fosdick가 주장하는 합수탄소 분해를 억제하는 물질인 비타민-K의 이론과도 유관시킬 수 있다고 사료된다. 한편 현재 사용되고 있는 물리적 우식 예방법은 (1) 치면세마(齒面洗磨: dental prophylaxis), (2) 잇솔질(tooth-brushing) (3) 양치(養齒 mouth rinsing) (4) 치간 청결법 (5) 청정식품의 섭취등을 들수 있는데 그 당시 치면세마의 목적으로 찹쌀의 겨를 태운 재를 이의 목적으로 사용하였고, 양치의 목적으로 옥지산(玉池散), 즉 지골피 백지 방풍 세신 송마 천궁 당귀 괴화 고본 감초 생강 및 검은콩을 넣고 달여서 소위 치병수약(齒病漱藥)을 만들어가글(gagle)용으로 널리 사용되었다. 또한 육식을 많이하

는 사람에 있어서 구취가 극심하여 대하기가 거북하고 치아의 탈락을 치료하기 위하여서는 송마 난향藥 당귀 곽향 목향등으로 환약을 만들어 복용케 함으로써 구강내 악취를 제거하여 현대의 구강청정제와도 유사하게 사용되었음을 고찰할 수 있다.

III. 結 言

1. 조선 초기에 사용된 치약은 그 기본 목적이 치아우식증의 예방보다는 치아 우식증 및 치주질환으로 야기된 통증을 제거하는데 있었다.
2. 조선 초기에 사용된 치약은 그 성분의 기본물질을 本草學에 근거를 둔 植物이 주종이었다.
3. 조선 초기에 있어서도 치아의 심미적 효과를 기하기 위하여 치아. 표백제를 사용하였고 구강내 악취를 제거하기 위한 가글(gagle)용액을 조제하여 사용하였다.
4. 조선 초기에 사용된 항우식물질(anti cariogenic agent)은 대부분이 식물의 藥을 사용함으로써 현대적 이론의 항우식물질인 엽록소(chlorophyll)와도 그 유관성을 발견 할 수 있다.

參 考 文 獻

1. 東醫寶鑑 民晶社, 1978年
2. 韓國史大系 三珍社, 1976年
3. 韓國醫學史 探究堂 1975年
4. 口腔保健學 金周換 1979年

齒科界 團體活動 (2)

1933年

辛 在 義*

1933年 10月 1日 午前 八時에는 第13回 朝鮮醫學會總會가 150餘名이 參席한 가운데 京城帝國大學 醫學部 附屬病院 臨床講義室에서 開催되었다.

韓國人은 趙昊衍, 李貞煥, 裴珍極, 李成模가 演者로 參席하였고 總演題는 54題로 다음과 같았다.

1. 急性三叉神經痛ノ一例 — 増田ニ郎 (城大齒科)
2. 上顎智齒ニ因スル膿胞齒牙囊腫ノ一例 — 今村・汎 (城大齒科)
3. 下顎骨々折ノ一例 — 平下 證 (城大齒科)
4. 齒牙缺亡症ノ一例 — 原田 一幸 (城大齒科)
5. 齒性上顎竇炎ノ手術及 補綴裝置ニ就テ — 伊規須秀吉 (城大齒科)
6. 上顎過剩犬齒ニ關スル膿胞性齒牙囊腫ノ一例 — 杉山常ニ郎 (城大齒科)
7. 頰部放線狀菌症ノ一例 — 横山韓一郎 (城大齒科)
8. 畸型上顎智齒埋伏ニ因スル齒槽骨炎 — 松本一男 (城大齒科)
9. 鮮人ノ智齒發生困難症ノ統計的 觀察 — 趙昊衍 (城大齒科)
10. 血管性齒齦腫ノ一例 — 石原靜一 (城大齒科)
11. 硬口蓋ニ發生セル內皮細胞腫ノ一例 — 楠國雄 (城大齒科)
12. 「トリパゾール」ノ實驗例(百〇五例)ニ就テ — 横山韓一郎 (城大齒科)
13. 齒齦肥大ノ一例 — 生田信保 (城大齒科)
14. 「モルフィン」及 「ビロイン」中毒ノ口腔諸臟器ニ及ボス影響ニ就イテノ實驗的研究「第二回報告」モルフィン」及 「ビロイン」中毒犬ノ齒牙及ビ其ノ支持組織ノ變化 — 楠國雄 (城大齒科)
15. 拔齒創感染症ニ就テ — 廣瀬・清 (城大齒科)
16. 下顎神經ノ傳達麻酔ニ就テ — 生田信保 (城大齒科)

17. 下顎智齒ノ拔去術式ニ就テ — 生田信保 (城大齒科)
18. 拔齒創內ノマロツセ氏上皮細胞索ノ 運命 — 廣瀬・清 (城大齒科)
19. 開放性拔齒創ノ治癒機轉ニ就テ — 廣瀬清 (城大齒科)
20. 閉鎖性拔齒創ノ治癒機轉ニ就テ — 廣瀬清 (城大齒科)
21. 「タンボン」拔齒創ノ治癒機轉ニ就テ — 廣瀬清 (城大齒科)
22. 異物ノ迷入ニ因スル拔齒創ノ變化 — 廣瀬清 (城大齒科)
23. 種々ナル藥物ノ拔齒創ニ及ボス影響 — 廣瀬清 (城大齒科)
24. 金冠調製標本ノ供覽 — 伊規須秀吉 (城大齒科)
25. 上顎骨ニ於ケル骨肉腫ノ一例 — 松本一男 (城大齒科)
26. 齒囊炎ニ就テ — 生田信保 (城大齒科)
27. 急性顎骨々髓炎ノニ例 — 小高啓三 (京醫專齒科)
28. 廣汎ナル齒槽骨折ノ一例 — 牧戸・優 (京醫專齒科)
29. 妊娠, 分娩産褥期ニ於ケル齒牙及ビ 血液「カルシウム」無水磷酸, 「マグネシウム」ノ消長ニ就テ — 野澤 鈞, 松尾鎮 (京醫專齒科)
30. 最近經驗セル智齒周圍炎ノ三十例 — 小賀野・惠 (京醫專齒科)
31. 顎骨ニ繼發セル口腔炎ノ四例 — 松尾・鎮 (長醫專齒科)
32. 母體脾臟剔出ガ胎兒及ビ乳齒齒牙及ビ 支持組織ニボス影響ニ就イテ — 小賀野惠, 野澤 鈞 (京醫專齒科)
33. 上顎癌ノ一例 — 德永彌之助 (京醫專齒科)
34. 妊娠, 分娩: 産褥期ニ於ケル血液水素「イオン」膿

* 大韓齒科醫史學會會員・서울 辛在義齒科醫院

度ニ就テ 岡田隆博, 野澤 鈞(京醫專齒科)

35. 齒性上顎洞蓋膿症治驗例 一片川 健(京醫專齒科)
36. 精神病ト口腔一矢島 好定(京醫專齒科)
37. 母體內「カルシウム」鹽類注射が果シテ胎兒ニ移行スルヤ否ヤノ實驗的 研究 一野澤 鈞(京醫專齒科)
38. 齒牙感染ニ因スル慣性化膿症 一李 貞煥, 矢島好定野澤 鈞(京醫專齒科)
39. 腦罩丸組織ニ移植セル齒牙組織態度 一矢島好定, 野澤 鈞(京醫專齒科)
40. 上顎蓋膿症ニ合併セル濾胞性齒牙囊腫ノ腫治驗例 一岡田 隆博(京醫專齒科)
41. 妊娠, 分娩, 産褥期ニ於ケル齒牙及ビ支持組織ニ及影響 一矢島好定, 野澤 鈞(京醫專齒科)
42. 婦人科疾患ニ見タル口腔軟組織殊ニ齒齦ノ變化 一矢島好定, 野澤 鈞(京醫專齒科)
43. 妊娠, 分娩, 産褥期ニ於ケル血液齒牙及ビ支持組織ニ變化ヲ來タス原因ニ就テノ余ノ觀察 一野澤 鈞(京醫專齒科)
44. 臨床上必要ト認メラルル 手術供覽 一野澤鈞(京醫專齒科)
45. 宿題報告, 拔齒創ノ處置 一廣瀬清 (城大齒科)
46. 壞血病性疾患ニ見タル齒齦炎ノ一例 一山中正男(咸興)
47. 臼齒陶齒冠繼續齒ニ就テ 一笠原完(京城)
48. 繼續齒ニ就テ 一飯塚徹(京城)
49. 骨疽ノ一例 一鈴木公重(羅津)
50. 日常口腔外科(特別講演)一遠藤至六郎(東京齒專)
51. リゾノール, 根管內應用ニヨル齒根膜炎及ビ齒槽癭ノ治驗 一裏珍極(海州)
52. 齒槽膿漏ニ因スル上顎骨々骨髓炎(所謂骨炎)ノ一例ニ就テ 一李成模(江陵)
53. 臨床小談 一河崎・正髓(平壤)
54. 「クラス」ノ維持並ニワンピース鑄造義齒ニ就テノ實施(特別講義)一細野來馬教授(日本齒專)

1933年 10月 2日에는 朝鮮聯合齒科醫師會總會가 京城朝鮮호텔에서 開催되었다.

議事內容은 다음과 같았다.

1. 會則改定의 件
2. 法定齒科醫師會의 件
釜山齒科醫師會 藤井彌三郎의 齒科診療受託에 관한 件으로 일어난 脫會를 처리한 內容
3. 朝鮮齒科醫學會와 京城齒科醫學會의 開催時期에 관한 地方會員으로서의 希望

4. 朝鮮齒科醫師試驗制度撤廢 公示要望

1933年 9月 23日과 24日에는 第2回 京城齒科醫學會總會가 京城齒科醫學專門學校의 講堂에서 開催되었다. 第一回에는 40個의 演題가 發表가 되었으며 제2日에는 22個의 演題가 發表되었다.

韓國人으로는 朴明鎮과 李鎬坤이 演者로 나왔다.

第一日 午前八時講演開始

1. 所謂金代用合金「センチュリーゴールド」ノ耐酸度ニ就テ一犬飼源ニ 矢尾太郎(京城)
2. 「ホルマリン」劑ヨリナル所謂根管消毒藥ノ 蛋白凝固性ニ就テ一森藤陽三(京城)
3. 「メガジュール」假封劑ノ 便化時間並ニ其抵抗力ニ就テ一園田清勝, 岡田 肇(京城)
4. 壓迫鑄造時坩堝內ニ發生セル水蒸氣壓ノ 態度ニ就テ一矢尾太郎, 犬飼源ニ (京城)
5. 腐蝕及ビ麻醉併用ニヨル餘等ノ 齒髓抽出法ニ就テ一森哲郎, 大塚徳男(京城)
6. 酸ニ對スル磷酸「セメント」ノ溶解量ニ就テ 一羽生博, 泚谷榮(京城)
7. 保存領域ニ於ケル朝鮮人齒牙疾患ノ 統計的觀察ニ就テ 一青沼一男(京城)
8. 代用合金ノ臨床的應用法ニ就テ 一來賓 井澤進(大阪)
9. 水量ノ 石膏硬化ニ及ボス影響ニ就テ 一荒木國雄, 朴明鎮(京城)
10. 蒸和「ゴム」ノ比較研究, 第一報 一長尾繁(京城)
11. 余ノ 考察ニヨル可換有螺管金床用陶齒ニ就テ一鈴木公重(羅津)
12. 鹽酸「シノメニン」及ビ「シノボン」ノ 鎮痛效果ニ就テ一矢尾太郎(京城)
13. 新藥非「アルカロイド」性 鎮靜鎮痛劑「セダノール」齒痛效果ニ就テ 一矢尾太郎(京城)
14. 臨床上ヨリ觀タル齒槽漏ニ就テ 一特別講演 加藤清治(東京)
15. 所謂根管清掃並ニ擴大劑ノ 蛋白溶解作用ヨリ觀タル比較研究 其一 酸及ビ「アルカリ」類ニ就テ 一森藤陽三(京城)
16. 其二, 「アンチホルミン」及ビ抱水「クロラール」ニ就テ一森藤陽三(京城)
17. 鑄造金屬ノ流入速度測定法ニ就テ一矢尾太郎, 犬飼源二(京城)
18. 所謂「ナスシス」氏膜ニ關スルニ, 三ノ考察 一西山幸男(京城)
19. 京城師範附屬小學校齒科診療所設置後ニ 於ケル學

- 童ノ口腔衛生状態ニ就テ 一 小原節子(京城)
20. 學童口腔検査成績ニ就テ 一 垣見庸三 堀部良友(京城)
21. 學校齒科診査ト其意義 一 附學校齒科施設 來賓 關利重(大連)
22. 大連公學堂兒童齲齒罹患率ト大連日本人小學童齲齒罹患率トノ對比及ビ各年齡別統計一 來賓 關利重(大連)
23. 一. 乳齒ノ生理學上並ニ解剖學の觀察
一. 乳齒ノ齲蝕及齒髓疾患ノ特點
一. 乳齒ノ周圍組織ノ疾患
一. 乳齒ノ早期喪失ノ永久齒齒列ニ及ボス影響一 特別講演 本永七三郎(京都)
24. 臨床小談一河崎正信(平壤)
25. 口腔衛生ヲ基調トセル二三ノ實驗的 研究一西山幸男(京城)
26. 口蓋容積ト齒窩トノ關係一朴明鎮(京城)
27. 蒸和「ゴム」及ビ硅酸「セメント」ニ就テ一來賓 松風憲二(京都)
28. 繼續齒ニ就テ一飯塚 徹(京城)
29. 腐敗根管內雜菌ノ發生スル瓦斯量ニ就テ一堀武(京城)
30. 雄基ニテ發掘セラレタル石器時代人ノ顎骨ニ就テ一森哲郎, 此村元(京城)
31. 「ビタミン」缺乏症ニ於ケル消化管内ノ鹽酸分解率ニ關スル實驗的研究一岡田正(京城)
32. 腐敗根管內ニ棲息セル二, 三細菌ノ抵抗ニ就テ一堀武(京城)
33. 二, 三局所麻醉藥ノ生體ニ及ス影響ニ關スル實驗的研究一桑山邦松(京城)
34. 日本人ノ血液型, 齒窩型並ニ齒牙齲蝕率ニ就テ一森哲郎, 小松松夫(京城)
35. 民族の齒窩考察, 殊ニ日本人並ニ支那人齒窩ニ就テ一來賓 大島新平, 吉見勇(大連)
36. 犯罪人ノ咬合型ニ就テ一來賓 大島新平(大連)
37. 齒根端切除手術創電一治療過程ニ關スル臨床的 X線學的及ビ組織學的研究一來賓 新畑一郎(福岡)
38. 顎路ノ測定ニ就テ一李鎬坤(鎮南浦)
39. 無齒顎ノ印象採得法ニ就テ一李鎬坤(鎮南浦)
40. 總義齒製作ノ實際問題ニ就テ一特別講演 宇垣錦三(東京)

第二日

41. 齒齲腫ノ例ニ就テ一平下・證(京城)
42. 「ワンピースキヤスト」製作順序一伊規須秀古, 平

下 證(京城)

43. 「レントゲン」線ニヨル下齒槽管ト水平智齒トノ關係ニ就テ一垣見庸三 近藤貢(京城)
44. 過剩齒及ビ癒合齒ノ統計的觀察一垣見庸三, 稻川英一(京城)
45. 傳達麻醉針破折片摘出2例 一垣見庸三, 一木清輔(京城)
46. 口腔外科 領域, X線診斷ニ於ケル誤診ノ原因ニ就テ一垣見庸三, 小林 弘(京城)
47. 顎骨々折ノ診斷及ビ療法(幻燈説明)ニ特別講演 中村平藏(東京)
48. 上顎ニ發生セル巨大ナル無菌性濾胞性齒牙囊腫ノ一例 一片瀬幸俊, 鈴木信吉(東京)
49. 幼兒ニ於ケル稀有ナル上顎骨骨髓炎ノ一例 一山中正男, 渡邊勉(羅南)
50. 國產「アクリゼン」系色素劑 特ニ「ペンセプテン」ノ齒科醫治應用ニ就テ一渡邊道夫, 松本文生毛(開城)
51. 特許根管充填材及ビ覆罩材一來賓 松風憲二(京都)
52. 鼻腔內ニ萌出セル過剩齒 一例一堀之内哲夫(京城)
53. 齒痛ノ腸管及ビ子宮運動ニ及ス影響ニ就テ 弘田精一(京城)
54. 齒痛ノ血液像ニ及ボス影響ニ就テ 一弘田精一, 奥野範一(京城)
55. 糖類ニヨル一過性齒痛惹起ニ對スル 一考 一森藤陽三(京城)
55. 亞砒酸ノ 齒髓ニ及ボス影響ニ關スル藥理學的研究 一矢尾太郎(京城)
57. 亞砒酸ノ 齒髓ニ及ボス影響ニ關スル組織學的研究 一桑山邦松(京城)
58. 唾液腺ニ於ケル各種白血球ノ出現ニ就テ 一西山幸男(京城)
59. 齒痛ノ新陳代謝ニ及ボス影響ニ就テ 一野口三郎(京城)
60. 鼠癩菌ノ齒根管内接種ニヨル齒牙中心感染ノ實驗的研究 一古九昌武(小島島)
61. 感染並ニ非感染拔齒創ノ 治療ニ就テ(幻燈説明)ニ特別講演 マイヤー(東京)
62. 蒸和「ゴム」製造實況(映畫説明)一來賓 松風憲二(京都)

1933年 9月 24日 午後 1時에는 朝鮮齒科醫師會 設立 第一回 總會ヲ 總督府圖書館 講堂에서 會員 80餘名이 參席한 가운데 열렸다.

11名의 會員의 演說이 있었는데 韓國人으로는 劉相文과 金然權의 演說이 있었다.

1933年 1月 25日 午後 6時 30分에는 朝鮮齒科醫學會 京城支會 第一回 例會가 明治製菓빌딩 3層 홀에서 開催되었다. 이는 臨床을 주로 하는 6個의 演題이었다.

1. 稀有なる上顎智齒의 迷入齒의 一例—楠國雄
2. X線餘談—河內一宗
3. 微毒殊に先天性ものは口腔齒牙に如何なる徵候を現はすか—野澤鈞
4. 最近經驗せし興味ある批判—利根川清治郎
5. 根管充填に關する座談會—座長 生田信保, 司會者 野澤鈞
6. 滿洲問題を中心として—醫專配屬將校 寺田潔

1933年 5月 10日 午後 7時 30分에는 朝鮮齒科醫學會 京成支會 第二回例會가 明治製菓 빌딩에서 開催되었다. 演題는 다음과 같았다.

1. 非貴金屬合金ヲ以テ「ワンピースキヤストメタル」ノ模型供覽(15分間) —橫山韓一郎
2. 不良義齒狀線ノ 刺戟ニ因スル限局性肥大性齒齦炎ノ一例—松尾 鎮
3. 「モルヒネ」中毒「ラツテ」齒牙ニ現ハレタル齦蝕ノ標本供覽(15分間)—楠 國雄
4. 根管問題(30分間)—飯塚 徹
5. 破折齒根ノ處置ニ關スル座談會(1時間)—座長 野澤 鈞, 司會者 生田信保
6. 上海土產話(30分間)—城大法文學部 助教授 辛島 曉

1933年 8月 23日 午後 6時 30分 朝鮮齒科醫學會 京城支會 第三回例會가 明治製菓빌딩에서 會員 60餘名이 參席한 가운데 다음과 같은 演題로 열었다.

1. 困難なる拔齒すべき齒牙의 齒根に就て —楠國雄
2. 「ノヴォラシル」의 齒科領域に於ける應用 —橫山韓一郎
3. 余の所謂開業漫談—山室元仁
4. 精神病と口腔—矢島好定
5. 日常口腔外科に必要な二,三の注意事項—廣瀬清
6. 輸血に就いて(40分間)—醫專教授 白麟濟
7. 金冠問題に關する座談會—座長 生田信保, 司會者 野澤 鈞
8. 齒科に關聯有する解剖學新用語紹介 —野澤 鈞

한편 1933年 5月 27日 午後 7時 30分에는 京城齒科醫學會 第三回 支會가 京城齒科醫專校 講堂에서 開催되었다.

1. (イ) モデルラスターに依る—印象法
(ロ) プロデンティスの齒冠輔綴
2. 齒科用 金屬의 研究(電解溶液中に於ける金屬對立に依る電極の實驗)—酒井好一
3. 二, 三不正咬合의 矯正に就て—森哲郎
4. 李朝時代に於ける 醫藥의 發達に就て—柳樂達見

1933年 7月 22日 午後 八時 會員 60餘名이 參席한 가운데 京城齒科醫學 專門學校 講堂에서 京城齒科醫學會 支部例會가 舉行되었다.

- 一. 口腔領域に 分布する神經に就て—桑山邦松
- 一. 口腔と「アタビスムス」—西山幸男
- 一. 實驗的痛に於ける筋肉「グリーニューゲニ」量の消長に就て—森藤陽三.
- 一. 「キヤストクラウン」의 一調製法と金代用合金に就て—犬飼源三

1933年 11月 22日 午後 7時 京城齒科醫學會 支部例會가 京城齒科醫學 專門學校 講堂에서 開催되었다.

1. 新藥「セドノールハタ」의 齒痛に對する鎮痛效力に就て—森藤陽三
2. 滿州視察記—岡田正
3. 藥理學上より觀たる鎮痛作用—矢尾太郎
4. 牙關緊急に對する解剖學的所見—桑山邦松
5. 余の渡鮮當時に於ける朝鮮齒界의 狀況に就て—飯塚 徹
6. 東洋式ホシトニーアーコンプレッサー의 實驗—古林 政春

1933年 10月 31日 午後 6時 30分에는 京城齒科醫師會에서는 會員 相互의 親睦을 위하여 全會員이 參席한 가운데 懇談會가 開催되었다.

1933年의 6月 5日은 平壤齒科醫師會에서 韓國人이 最初로 會長이 되는 特記할 만한 날이다. 役員 改選이 正副會長은 日本人과 韓國人을 每年 交代로 選出하는 規定에 依據해서 韓東燦이 選出되었다. 그 內容은 다음과 같다.

會長 韓東燦, 副會長 河崎正信,
幹事 阪本楨, 藤井康基, 高明天, 韓宗鎬
評議員 岡友三郎, 天野茂樹, 李正信, 李翰運

1933年 12月 16日에는 咸北 羅津에 齒科醫師 鈴木公重에 의하여 羅津齒科醫師會가 생겨났다.

參考文獻

朝鮮齒科醫學會雜誌
滿鮮之齒界

와전(瓦塼) 귀면무늬(鬼面紋)의 치아(齒牙)에 대(對)하여

裴 珖 植*

차 례

- I. 와전에 대한 일반적인 고찰(考察)
 1. 와전의 기원(起源)
 2. 와전의 모양, 이름, 무늬
- II. 와전에 새겨진 귀면무늬
 1. 귀면무늬의 기원(起源)과 귀면무늬가 새겨진 와전
 2. 귀면무늬의 시대에 따른 모양(치아를 중심으로)
 - (1) 고구려시대의 귀면무늬
 - (2) 백제시대의 귀면무늬
 - (3) 통일신라시대의 귀면무늬
 - (4) 고려시대의 귀면무늬
 - (5) 이조시대의 귀면무늬
 - (6) 총괄(總括) 및 맺는말(結語)

I. 와전에 대한 일반적인 고찰

1. 와전의 기원

와전은 개와(蓋瓦)와 벽돌(Tile)을 합쳐서 부르는 이름으로 모두 양질(良質)의 점토(粘土)를 일정한 모양으로 성형(成形)시킨 후 와요(瓦窯)에서 구워서 만든 일종의 건축 부재(建築部材)이다. 이중 개와는 지붕을 잇는 데 쓰이고 벽돌은 바닥이나 벽에 쓰인다.

개와(기와)의 기원은 중국의 「古史考」에 “夏時昆吾氏作瓦”라는 기록이 있고 약 3,000년전 중국 周代에 사용된 기와가 最古의 瓦例로 알려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낙랑(樂浪), 대방(帶方)때의 기와가 발견된 것으로 미루어 한사군(漢四郡)이 설치된 기원전 1~2세기경에 한 나라로부터 기와가 유입(流入)된 것으로 생각된다.

전(塼)의 기원도 대체로 기와의 기원과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2. 와전의 모양, 이름, 무늬

기와는 사용되는 위치에 따라 그 모양과 이름이 다르다. 우선 기본적으로 기왓골을 이루는 압기와(平瓦)와

기왓등을 이루는 숫기와(円瓦)가 있고, 기왓골의 끝(先端) 즉 압기와 줄의 끝에 사용되는 장방형(長方形)의 드림새(重板)를 붙인 압막새(平瓦當)와 기왓등의 끝(先端) 즉 숫기와줄의 끝을 막음하는 원형(圓形)의 드림새를 붙인 숫막새(円瓦當)가 있다. 그밖에 용마루의 양끝을 높게 장식하는 망새(치미鰓尾), 내림마루끝을 장식하는 귀면와(鬼面瓦=棟端飾瓦), 마루를 쌓아올리는 적새(提瓦), 마루적새밑의 기왓골을 베우는 착고막이(着高瓦), 서까래(연목椽木)의 끝(先端面)을 막는 서까래막새기와(椽木瓦), 주너골의 사각(四角)서까래의 끝을 막는 사래와(鬼板瓦=望板瓦)가 있다. 이밖에 모서리기와(隅瓦), 타원숫막새(橢圓瓦當), 곱새기와(또는 바래기望瓦) 등이 있고 지붕이외에 사용하는 장식와(裝飾瓦)가 있다.

이들 각종 기와에는 대개 무늬(紋樣)가 베풀어(施紋) 지는데 무늬의 종류로는 크게 식물성 무늬, 동물성 무늬, 기타 무늬로 나눌 수 있다. 식물성 무늬로는 연꽃무늬(蓮花紋), 국화무늬, 보상화무늬(寶相華紋), 인동무늬(忍冬紋), 당초무늬(唐草紋), 화훼무늬(花卉紋), 보상화당초무늬, 인동당초무늬, 포도당초무늬(葡萄唐草紋) 등이 있고, 동물성 무늬로는 물오리, 공작, 사슴, 두꺼비, 토끼등 실존(實存)하는 동물무늬와 날개사자, 날개말, 비룡(飛龍), 봉황(鳳凰), 인두조신(人頭鳥身=迦陵頻伽 Kalavinka)등 상서로운 짐승(瑞獸)또는 새(瑞禽)의 무늬가 있다. 기타 무늬로는 구름, 탑(塔), 불상(佛像), 인물(人物), 문자(文字), 비천(飛天), 귀형(鬼形)또는 귀면(鬼面)무늬, 차바퀴무늬(車軸紋) 등이 있다.

벽돌(塼)의 종류도 매우 다양한데 쓰임새에 따라 부전(敷塼), 벽전(壁塼), 묘전(墓塼), 탑전(塔塼)등으로 나눌 수 있고 모양에 따라 방형(方形), 장방형(長方形) 삼각형(三角形), 이형전(異形塼)등으로 나눌 수 있다.

벽돌(塼)에 시문(施紋)된 무늬로는 주로 연꽃무늬, 보상화무늬, 당초무늬, 쌍룡보상화무늬(雙龍寶相華紋) 초화무늬(草花紋) 등이 있고, 때로는 불각(佛閣), 불상, 불탑, 비천, 사천왕상(四天王像), 산경(山景), 봉황, 수렴무늬(狩獵紋), 귀형무늬(鬼形紋), 모란당초무늬, 십

* 서울 裴珖植齒科醫院

장생(十長生) 등이 시문(施紋)되기도 한다. 동전무늬(錢紋), 기하무늬(幾何學紋), 고사리무늬(蕨手紋) 등이 시문된 경우도 있다.

이렇게 와전(瓦塼)에 놓여진 각종무늬중에서 특히 귀면무늬(鬼面紋) 또는 귀형무늬(鬼形紋)에서는 齒牙가 強調되고 잘 表現되어 있기에 귀면무늬 및 귀형무늬의 아에 대해 상세히 고찰(考察)하고자 한다.

II. 와전에 새겨진 귀면무늬

1. 귀면무늬의 기원(起源)과 귀면무늬가 새겨진 와전

귀면무늬의 기원에 대해서는 중국 殷代 이후에 유행한 옛동기(古銅器)의 도철문(鑿鐵紋)에서 유래했다는 설(說)과, 개국설화(開國說話)에 나오는 치우장수(蚩尤匠師: 桓因의 신하로서 軍神)의 동두가면(銅頭假面)을 본뜬 것이라는 說, 또는 처용(處容)의 얼굴을 본뜬 것이라는 說등이 있는데 어찌됐든 모두가 잡귀(雜鬼)를 물리치는 벽사(辟邪)의 의미가 내포(內包)되었다고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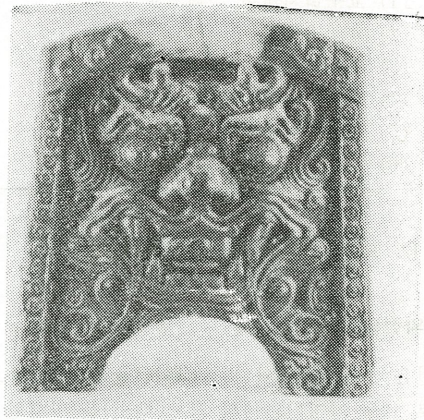
귀문(鬼紋)이 시문(施紋)된 와전의 종류를 시대별로 보면 낙랑, 대방의 와전에는 鬼紋(鬼形 또는 鬼面紋)이 施紋된 것이 발견되지 않고, 고구려시대에는 반원숫막새(半圓瓦當)에 鬼形紋 또는 鬼面紋이 있는 것이 발견되고, 숫막새(圓瓦當), 鬼面瓦(棟端飾瓦)에 귀면무늬가 있는 것이 발견되었다. 백제시대에는 방형전(方形塼)에 鬼形紋이 施紋된 것과 방형(方形) 석가래막새기와(椽木瓦)에 귀면무늬가 施紋된 것이 있다. 古新羅시대에는 귀면무늬가 시문된 와전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통일신라시대에는 특수전(特殊塼)으로 수면반방전(獸面半方塼)이 발견되었고, 숫막새에 귀형무늬 또는 귀면무늬가 있는 것이 발견되었으며, 암막새에도 귀면무늬가 시문된 것이 있으며 많은 수의 귀면와(棟端飾瓦)가 출토(出土)되었다. 고려시대에는 숫막새, 암막새에 귀면무늬가 시문된 것이 발견되고 귀면와(棟端飾瓦)가 발견되며, 이조시대에는 숫막새 또는 바래기(望瓦)에 인면(人面)에 가까운 귀면무늬가 시문된 것이 발견되고 있다.

2. 귀면무늬의 시대에 따른모양(치아를 중심으로)

이제 우선 귀면무늬의 전형적인 모양을 묘사하고 각 시대에 따른 귀면무늬의 형태를 치아와 입에 주안점(主眼點)을 두고 살펴보기로 하겠다.

귀면무늬의 참모습이 잘 나타난 기와는 역시 귀면와(棟端飾瓦)인데 두께가 1.8cm~6.3cm되는 판상(板狀)의 기와로서 외형(外形)은 대체로 높이가 높은 사다리

꼴로서 윗변이 약간 둥근 것이 보통이고 아랫변은 숫기나 암기와와 등을 탈 수 있도록 호선(弧線)으로 가랑이를 뒀다. (사진참조) 이 기와의 거의 전표면(全表面)을 도깨비 얼굴로 채웠는데 눈·코·입 세부분이 크게 강조되어 얼굴의 거의 전부를 차지하고 두 눈위에 빨, 얼굴의 여백에 수염 머리칼등이 施紋되었다. 눈은 대개 톱 불거진 반구형(半球形)이고 코는 들창코에 주먹코이고 입은 얼굴 아래쪽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크게 벌리고, 벌린 입의 외형(外形)은 역(逆)사다리 꼴이거나 장방형(長方形)이다. 크게 벌린 입 속에는 좌우에 날카롭고 긴 송곳니(犬齒)가 위치한 사이에 3개 이상의 넓적한 문치(門齒)가 자리잡고 있으며 上下顎 門齒사이로 舌端이 보이거나, 혀로 아랫니를 덮어 혀바닥(舌背)이 보이거나 또는 이를 악문 모습을 보이며 잇몸(齒齦)은 표현되기도 하고 생략되기도 한다. 또한 얼굴 전체가 철저히 좌우대칭형이다. (사진참조)



寫眞 1. 雁鴨池出土 綠釉鬼面瓦



寫眞 2. 雁鴨池出土 綠釉鬼面瓦

(1) 고구려시대의 귀면무늬

평양 林原面 上五里에서 출토된 귀면와(鬼面瓦)의 입 모양은 거의 장방형에 가까운 역사다리꼴로서 역사다리꼴 윗변(윗입술)의 중앙부 $\frac{1}{2}$ 정도를 주먹코의 콧방울로 내리눌러 함입(陷入)시킨 모양으로 함입되지 않은 나머지 윗변(윗입술)이 비익(鼻翼)과 같은 수평선상에 위치하며 돌출(突出)된 眼球下緣과 거의 붙어 있다. 또한 인중(人中)이 전혀 없이 코끝 正中部에서 윗입술이 잇대어 시작된다. 상악전치(上顎犬齒)는 동공(瞳孔)에서 내려그는 수선(垂線)의 약간 원심측(遠心側)에서 거의 수직방향으로 내리뻗었고 正中部를 중심으로 좌우로 2개씩 거의 같은 크기의 상악문치(門齒) 4개가 위치하며 상악전치와 상악문치사이의 공간(Space)에는 하악전치(犬齒)가 맞물려 끼워져 있는데 하악전치는 상악전치와 거의 같은 모양과 크기로서, 하악전치의 방향은 약간 近心側으로 경사가 이루어져 있으며 거의 동공수선(瞳孔垂線)上에 위치한다. 하악문치도 상악문치와 거의 같은 모양, 같은 크기로서 절단교합(切斷咬合 Edgebite)을 하고 있다. 하악전치와 하악문치사이의 공간없이 접(接)하고 있다. 윗잇몸과 아래잇몸이 모두 들어난 상태이며 치은연(齒齦緣)은 각 치아의 경선(頸線 Cervical line)에 따라 弧形을 이루고 있다. 전체적으로 이를 악문채 입술을 크게 벌려 이와 잇몸이 들어난 형태이며 이를 악물었으므로 혀는 보이지 않는다.

上五里에서 출토된 숫막새의 귀면무늬도 위에 설명한 귀면와와 거의 비슷한 형태로 이를 악물었는데 차이점은 콧방울 아래부분의 윗입술부분이 거의 생략되어 마치 윗입술이 좌우측 비익(鼻翼)에서 시작되는듯이 느껴지고, 상악전치가 동공수선상에 위치하고 상악문치가 3개뿐이어서 中央의 門齒는 正中線에 걸쳐 있다. 하악도 3개의 門齒로 보이나 치간(齒間)의 홈을 거의 파지 않아 명확히 구별할 수 없다.

淸岩里에서 출토된 숫막새의 귀면무늬의 입모양도 역사다리꼴인 점은 거의 같으나, 구각부(口角部)가 예리하게 표현되어 윗입술과 아랫입술이 명확히 구분되는 점이 특징이다. 口角部와 상악門齒의 절단면(切斷面)과는 거의 동일수평선상에 놓인다. 門齒는 위아래 각 3개씩이고 상하악치아 사이는 약간(Freeway space 정도) 벌어져 있다. 상악전치의 절단면과 하악전치의 절단면은 구각부와 거의 일직선상에 놓여 맞물리지 않은 상태이다.

또 大同江面 土城里 출토 숫막새에는 방사상(放射狀)으로 뻗은 4개의 연판무늬(連瓣紋) 사이사이에 4개의 귀면이 머리를 원돌레쪽으로 향하고 입을 중심쪽으로 향

한 귀면무늬가 발견되는데 매우 도식화(圖式化)되고 상징화되어 구분이 명확하지는 않으나 대개 좌우 전치사이에 3개의 문치를 표시하였다.

그밖에 大同江面 土城里 출토의 반원숫막새(半圓瓦當)에는 도식화되고 상징화된 귀면무늬가 있으나 치아부분이 초문(草紋)으로 변형되어 있고, 출토지 미상(未祥)의 반원숫막새에 얼핏 개구리를 연상시키는 귀형문(얼굴, 몸통, 팔다리가 다 그려있음)이 있는데 역시 3개의 門齒를 악물고 있는 형태이다.

또 무슨 기와인지 분별할 수 없는 파편(破片) 기와에도 귀면이 나타난 경우가 있는데 모두 門齒가 3개임을 추측할 수 있다.

이상을 간추려본다면 고구려의 귀면무늬는 귀면와 일례(一例)에서 4개의 문치가 발견되었을 뿐 치아가 보이는 나머지 예에서는 모두 문치가 3개였고 대개 이를 악문 형태이고, 일부 상하악문치사이에 간격이 보이나 혀의 묘사는 없고 대개 자세한 귀면문에서는 잇몸을 묘사하였다.

(2) 백제시대의 귀면무늬

부여군 窺岩面 外里에서 출토된 방형(方形)의 귀형문전(鬼形紋塼)에는 얼굴·몸통·팔다리가 모두 묘사되어 있는데 위아래의 비례를 보면 塼의 세로길이의 위쪽1/4에 얼굴, 그 밑 1/4에 몸통, 그 밑 1/4에 다리가 있으며 발 밑에 1/4정도의 공간에는 물결무늬의 바닥이 있다. 좌우의 비례를 보면 塼의 가로길이의 중앙 1/3정도를 얼굴이 차지한다. 이 얼굴의 아래쪽 절반을 차지하는 것이 큰 입인데 입의 외형(外形)은 역사다리꼴이고 코끝중앙에 잇대어 윗입술이 시작해 양눈의 밑으로 입술이 찢어져 올라갔다. 윗입술의 형태는 활장무늬(中括弧) 부호의 한쪽을 얹어 놓은 모양(~)이고, 아랫입술은 꺾쇠무늬(大括弧)의 한쪽 부호를 뒤어놓은 모양(⌋)이다. 치아의 형태는 상악좌우전치가 동공수선(瞳孔垂線)상의 찢어져 올라간 입술에서 시작하여 수직방향으로 날카롭고 길게 내리 뻗었고 그 사이에 4개의 동일한 크기의 門齒가 자리잡고 있는데 門齒 4개는 서로 近接해 있으나 전치와 문치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 하악치아는 좌우 전치가 상악전치보다 近心側에 길게 뻗어있고 4개의 문치가 그 사이에 자리하는데 4개의 하악문치의 크기는 같고 상악문치보다는 약간 작다. 잇몸의 묘사는 거의 알 수 없고 상하악문치 사이의 공간에 둘로 갈라진 혀끝이 보인다. 상악전치보다 遠心側에 소구치인듯한 치아가 1개씩 양쪽에 2개 있다.

또 하나의 방형전(方形塼)은 앞의 것과 거의 유사하나 상하악 문치사이의 공간에 혀의 묘사가 없다.

百濟에 것으로 귀면무늬가 施紋된 기와는 오직 방형(方形)서까래막새기와 한개가 발견되었는데 아래쪽 절반을 임이 차지하고 있고 좌우양측의 동공수선상에 치켜올라간 입술에서 상악전치가 솟아있고 그 사이에 3개의 상악문치가 자리하고 있으며 하악부분은 생략되고 상악문치 절단면에 잇테에서 수염으로 처리되었다. 또 상악의 잇몸이 표시되어 있는데 문치및 전치의 경선(頸線: Cervical line)은 弧形을 이루고 있다.

(3) 통일신라시대의 귀면무늬

통일신라시대의 와전은 무늬가 다양화되고 화려해진다. 鬼紋기와도 상당히 많은 양이 출토되고 있다. 예를 들면 경주 雁鴨池 出土의 귀면와만 해도 41種에 이르고 있다. (사진 참조)

통일신라의 귀면문은 대체로 眼球가 고구려, 백제에 비해서 작아지고 뿔, 수염, 귀가 크게 강조된 모습이다. 그러나 임의 크기는 여전히 안면 전체면적의 아래쪽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대체로 역사다리꼴의 外形이고 윗입술은 활장뿔뿔의 한쪽 부호를 얹어놓은 모습(∩)이고 아랫입술은 꺾쇠뿔뿔의 한쪽 부호를 얹어놓은 모습(∪)이다. 門齒는 3개인 경우(사진 1참조)가 가장 많으며 4개인 경우(사진 2참조)도 자주 보이고 간혹 5~6개인 경우도 있다. 門齒가 3개인 경우는 대개 상악문치가 하악문치보다 크다. 또 일반적으로 하악전치가 상악전치보다 近心側에 위치해서 상악문치와 전치사이의 공간에 맞물릴 수 있는 위치에 존재한다. 상악전치는 동공수선상 또는 약간 遠心側에 위치한다.

鬼面瓦나 사래와의 경우 잇몸표현이 뚜렷해서 치근(齒根)의 두드러진 외형(Contour)에 따라 잇몸이 두드러진 모습을 보인다. 혀는 혀끝만 보이는 경우, 중앙이 분리된 혀끝이 보이는 경우가 있고 혀바닥이 보이면서 혀끝이 약간 말려올라간 경우도 있다. 혀가 하악문치를 덮어서 하악문치가 안보이는 경우도 있다. 간혹 교합상태의 경우가 있어 이때는 혀가 보이지 않는다. 안암지출토의 녹유귀면와(綠釉鬼面瓦)중에는 3개의 하악문치 절단면에 갓 맹출한 치아에서 보이는 3개의 突起(mamelons)를 갖춘 것이 있다. (사진 1참조) 귀면와중 一例는 코와 눈대신 연꽃무늬가 차지하고 연꽃무늬에 잇테에서 상악치아가 뻗어 있는데 파편이어서 확실하지는 않지만 하악전치가 상악전치보다 遠心側에 存在한다.

숫막새의 귀면무늬의 입은 대개 초승달모양이며 상악전치는 동공수선상에서 시작해서 遠心側으로 약 45°가량 경사지어 뻗어있다. 혀와 잇몸의 묘사는 대개 없으며 하악치아가 생략된 경우도 많으며 하악전치가 상악전치의 근심측에 존재한다. 다만 예외로 天恩寺址 出土

숫막새에서 하악전치가 상악전치보다 원심측에 위치한 경우가 보인다.

암막새의 귀면무늬의 입모양도 초승달 비슷한데 口角部를 원만한 曲線으로 둥글렸으며 대개 상악전치 근심측으로 하악전치가 맞물려 있고 상악문치만 표현되고 하악문치는 공간의 부족으로 생략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이밖에 그 쓰임새가 아직 확실하지 않은 수면반방전(獸面半方磚)이 발견됐는데 여기에서는 귀면에 활장뿔뿔 한쪽을 얹어놓은 모습(∩)의 윗입술이 묘사되었고, 윗입술의 꺾여올라간 부분(동공수선과일치)에서 시작해 近心側으로 경사지게 뻗어 내린 길고 날카로운 犬齒가 있으며 그 사이에 4개의 같은 크기의 문치가 자리 잡고 있다. 하악은 전(塹)의 외형에 잘려서 표현되지 않은 상태이다. 특기할 사항은 正中部와 그 양쪽으로 3개의 계대(繫帶 Frenum)가 표현되었다는 점과 점점막(類粘膜)이 주름형식으로 표현되었다는 점이다.

興輪寺址에서 “신라의 미소”로 불리우는 人面무늬의 숫막새가 出土되었는데 이것은 귀면무늬와는 別個의 무늬이며 치아는 전혀 묘사되고 있지 않다.

(4) 고려시대의 귀면무늬

고려시대는 통일신라에 비해 대체로 와전(瓦塹)의 무늬들이 그 섬세함과 화려함을 잃고 치졸(稚拙)해지고 퇴화(退化)하여 불분명해지며 겨우 통일신라의 귀면무늬를 미루어볼때 귀면무늬의 일종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형식적인 표현이다. 그래서 귀면무늬의 현상들을 등을 전혀 느낄 수 없고 탈을 보는 듯한 느낌이다.

고려시대의 귀면와는 타원형의 입술에 전치와 문치가 반원(半圓)형태로 물방울 매달리듯 매달려 있으며 4개의 문치와 2개의 전치가 있다. 치아형태라고 보기 힘든 물방울 모양이 입속에 치아가 차지할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므로서 겨우 치아인것을 알아 볼 정도이다. 전치와 문치는 동일한 크기 동일한 모양이어서 신라기와의 귀면무늬에서 전치위치이므로 전치라고 말하고 문치위치이므로 문치라고 말할 수 있을 뿐이다.

숫막새 一例는 눈과 코가 작아져서 중간쯤으로 내려와 입술 위에 얹혔는데 초승달의 양귀를 둥글린 모양의 입에 5개의 상악문치가 있고 이보다 작은 상악 전치가 좌우에 있으며 하악치아자리는 공백으로 있고 또 한 예는 초승달의 양귀를 둥글린 모양의 입에 4개의 상악문치가 길게 아랫입술까지 닿아 있고 2개의 상악전치는 문치보다도 짧다. 하악치아는 전혀 생략되어있다.

그외에 고려와당으로는 비교적 섬세한 표현을 한 숫막새 一例가 있는데 이 경우는 통일신라의 역사다리꼴

입모양을 높이만 낮춘듯한 입모양을 하고 있으며 상악 좌우전치사이에 7개의 문치가 자리했다. 정중부의 문치가 가장 크고 遠心側으로 갈수록 치아크기가 점차적으로 작아진다. 또한 상악전치의 원심측에 2개의 소구치가 있어 양측 4개가 된다. 하악도 상악전치보다 근심측에 위치한 하악전치 사이에 7개의 하악문치가 상악문치보다 작은 크기로 위치하고 있다. 또한 전치 원심측에 2개씩 4개의 소구치가 하악에도 있다. 그러나 잇몸과 혀의 묘사는 생략되어 있다.

암막새는 상악에 전치사이에 6개의 문치가 있고 하악 문치는 없으며 상악전치와 상악문치사이에 하악전치만 표시된 것이 있다.

(5) 이조시대의 귀면무늬

이조시대의 귀면무늬는 고려때보다도 더욱 간략화되고 퇴화된 형태로 귀면이라기 보다 차라리 인면(人面)으로 보인다.

숫막새에서 초승달모양으로 두툼하게 도드라진 입에 칼로 찍은 듯한 수직의 음각선(陰刻線)이 윗입술쪽에 3개, 아랫입술쪽에 3개가 엇갈려 치간(齒間)을 표시한다. 또 상악에 두개의 문치와 두개의 역삼각형모양의 전치, 하악에 4개의 문치와 2개의 역삼각형 모양의 전치를 가진 숫막새도 있다.

바래기(望瓦)에 鬼面이 새겨진 경우가 있는데 상하 3개씩의 門齒밖에 상악전치인지 하악전치인지 구분할 수 없는 역삼각형 전치가 좌우 1개씩 있는 경우도 있다 모두 잇몸이나 혀의 묘사는 없다.

(6) 총괄(總括) 및 맺는말(結語)

安鶴宮址 出土品으로 전해지고 있는 암막새 여러개에서 하악전치가 상악전치의 원심측에 맞물리는 경우가 발견되었는데, 安鶴宮址는 평안남도 大同郡 林原面 北四里에 있으며 고구려의 평양성 도읍시대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읍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삼국시대 암막새는 발견예가 없고 통일신라시대에 들어와서 무악식(無顎式)암막새가 생기기 시작해서 유악식(有顎式)암막새로 변천해 간다는 學說이 지배적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두가지 사실은 서로 모순된다. 반면에 어떤 학자는 고구려시대의 암막새에 隆起線(隆起線)으로 표현되어 박진감이 결여된 귀문(鬼紋)이 있다고 표현한 학자도 있다. 著者로서는 이 기와를 어느 시대에 귀속시킬지를 알 수 없어서 시대구분에서 제외하였다.

통일신라시대의 귀면무늬기와는 出土品이 너무 많아서 개개의 예를 열거할 수 없어서 무리스럽지만 공통적인 특징을 뽑아내려 노력하였다.

삼국시대 이래로 이조시대까지 꾸준히 와전(瓦塼)에

鬼面紋이 施紋되어 왔는데 동일한 모양은 아니고 시대에 따라 여러가지로 변천되어왔다. 여기서는 특히 입부분에 主眼點을 두고 살펴보았는데 고려나 이조의 퇴화된 시기를 빼고는 비교적 상세히 이, 잇몸, 혀등을 묘사하였다. 대체로 문치의 모양은 상하로 긴 장방형에 經線(頸線)을 弧線(弧線)으로 表示하였고 송곳니는 날카롭고 길게 표현하였는데 도깨비의 얼굴이지만 사람이나 짐승의 실제 치아와 흡사하게 묘사하였다. 잇몸의 표현도 실제의 잇몸과 거의 흡사하게 齒根으로 因한 隆起까지 표현하였고 일부예에서는 繫帶(Frenum)까지 표현하였다. 혀도 개구(開口) 상태에 따라 혀끝 또는 혀바닥까지 묘사하였고 하악치아를 덮을 경우도 있었다. 하악門齒에서 Mamelons(갓 萌出한 齒牙의 절단면의 3개의 突起)를 표시한 예도 있었다. (사진 1참조) 하악문치가 상악문치와 크기가 같은 경우도 있고 작은 경우도 있었다. 門齒끼리는 크기가 동일한 경우도 있고 正中部에 가까이 있는 齒牙보다 먼데 있는 齒牙가 작아지는 경우도 있었다. 교합은 대체로 근심교합(近心咬合) : 상악치아보다 하악치아가 더 近心側임, 특히 犬齒의 경우)이었고 일부 예외가 있었다.

門齒의 個數는 대체로 3~7개로 다양했으며 同一時代의 同一出土地에서 나온 것들 간에도 갯수가 상이한 경우가 많았다. 사람의 門齒는 4개이고 개의 門齒는 6개이며 모든 동물은 짝수의 문치를 가지고 있다. 3개, 5개, 7개의 문치를 施紋한 理由가 무엇일까 고려해 볼點이다. 홀수 門齒에 대한 說明으로 가능한 경우를 들어보면 첫째 瓦工이 치아에 대한 상식이 없어서 홀수의 門齒를 施紋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Mamelons까지 묘사하고, 齒根으로 因한 齒齦隆起를 묘사하며 近心咬合을 묘사하는 詳細함으로 보면 치아의 개수를 몰라서 홀수의 치아를 새겼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둘째로 사람이나 짐승이 아니고 도깨비인만큼 형상궁고 기괴(奇怪)하게 보여야 하는데 正中線에 門齒가 걸쳐있으므로 기괴한 느낌을 더해주기 위해 일부러 홀수의 門齒를 썼을 가능성이 있다. 셋째로 음양(陰陽)의 조화를 생각할 수 있다. 홀수는 양이고 짝수는 음이다. 또한 각 방위(方位)도 음양으로 구분할 수 있다. 사람이 사는 집은 양택(陽宅)이고 무덤은 음택(陰宅)이다. 또는 기와의 형태나 응도에 따라 음양을 구분할 수도 있다. 실제로 문살의 숫자를 예로 들면 남자가 기거하는 사랑방의 문살과 여자가 기거하는 안방의 문살의 숫자가 홀짝으로 구분되어있기도 하다.

(아직 見聞이 菲薄하여 큰 謬謬를 짓는 것이 될까 두렵지마는 祖上들의 슬기를 조금이라도 接하고자 하는

熱望을 보아서 널리 풀어주시고 가르쳐주시기를 斯學의
先輩諸賢께 바랍니다.)

參 考 文 獻

1. 金豊植外「충북의 기와」유림사, 1980.
2. 동산문화사編「신라의 기와」1976.

3. 백제문화개발연구원「百濟瓦塼圖錄」1983
4. 申榮勳「民藝骨董」中央日報社 1981.
5. 秦弘燮(瓦當에 새겨진 도깨비)「한국의 도깨비」
悅話堂 1981.
6. 井內古文化研究室編「鬼面紋瓦의 研究」1958
7. 井內古文化研究室編「朝鮮瓦塼圖譜 I ~ VII」1976

삼 옥 치 과 기 공 소

대 표 윤 남 기

서울시 중구 순화동 205

전화 753-2826 · 778-7029

평 화 치 과 기 공 소

대 표 김 영 곤

TEL. 743-5442·743-5443·743-9922

서울시 종로구 낙원동 235번지 (조양빌딩 501호)

신 일 치 과 기 공 소

대 표 손 영 수

TEL. 756-2875~6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5가 6-25

東 光 齒 科 商 社

代 表 李 榮 圭

TEL. 778-5292·753-8607

서울市 中区 南大門路5街 63-7

三 富 齒 科 商 社

代 表 金 富 一

TEL. 755-0713·752-8678

서울市 中区 巡和洞207-26 (경인빌딩 302호)

□ 표지설명 □

이번 호의 표지는 이칫자(齒)의 근원이 되는 갑골문자를 모은 것이다. 이것을 통해 보더라도 치(齒)라는 문자의 뜻은 본시가 구강 또는 입이라는 점을 이해할 수가 있다. 즉, 이 문자는 사람이 입을 벌리고 있는 모습을 그린 것이다.

여기 수록된 20개의 문자는 북경(北京)의 치과 의사 주대성(周大成)씨가 보고한 것을 중심으로 임의로 선택했다. 그리고 되도록 실물과 동일하게 그렸다. 우선 그 아름다움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이한수>

□ 편집후기 □

대한 치과 의사 학회지 제5권 1호의 발행을 자축한다. 이 한수 전회장님의 끊임없는 지도와 김정균 신임 회장의 정열이 없었던들 이처럼 소중한 학회지의 속행이 가능했을까를 생각해 본다. 시간을 초로 나누어 쓰는 이 병태 부회장의 그 부지런함 그리고 전문적인 편집 인쇄 제본까지의 과학적인 사고력……이 모든 화합 자체는 우리 치과 의학사의 조그마한 또 하나의 역사로 기록될 것 같다. 이제 본학회는 치과 의사로서 우리 치과 학의 뿌리를 찾으려는 노력과 우리 치과 학의 발달사를 심오하게 캐어보려는 회원들의 참여가 날로 증가하는 것은 또한 경하할 만한 일이다. 우리 학회는 이제 빠르지는 않지만 쉬임없는 치과사의 과거 추적을, 요란하지는 않지만 차분하게 과거와 현재를 접목시켜 보다 밝은 치과 장래를 추구하여 나아갈 것이다. 여기에는 보다 많은, 보다 뜨거운, 치과계 선배 후배 동료의 참여와 관심이 전제 되어야 할 것이다.

본호에 발표된 논문들은 저자 자신들의 필사적인 학구열과 꾸준한 연구의 결정체이나 우리들의 이상에는 미흡할 지 모른다. 원컨대 본 학회를 사랑하는 선배 후배 강호 제현께서 끊임없는 지도 편달과 격려를 내려주는 길만 이 우리들의 발전을 기약할 수 있는 소금일 것이다. <朴勝五>

임원명단

종신 명예회장	이 동 섭	종신 명예회장	이 덕 일	직 전 회장	이 한 수
회 장	김 정 균	부 회 장	이 병 태	총 무	박 승 오
이 사	신재의 · 허정규 · 배광식	감 사	김 지 호		

1984년 12월 26일 인쇄
1984년 12월 31일 발행

대한치과의사학회지

제 5 권 제 1 호 통권 5 호

발행인 : 김 정 균
(대한치과의사학회장)

편집인 : 박 승 오
(학회 총무)

발행소 : 대한치과 의사협회 산하
대한치과 의사학회
서울특별시 중구태평로1가 64의 8

비매품

The JOURNAL of the
Korean Academy of the
History of DENTISTRY
Vol. 5 No. 1 1984

Publisher Kim, Jeong-Gyun
Editor in chief Park, Sung-Oh
Address Yung-Doong-Po,
C.P.O. Box 41, SEOUL, KOREA